

제 11 편

성씨 인물

第八節

授業證書

李鍾夏

居李郡東面

年二十八

右人이襄陽郡私立峴山學校

師範速成科에서卒業方이

기授業證書是茲에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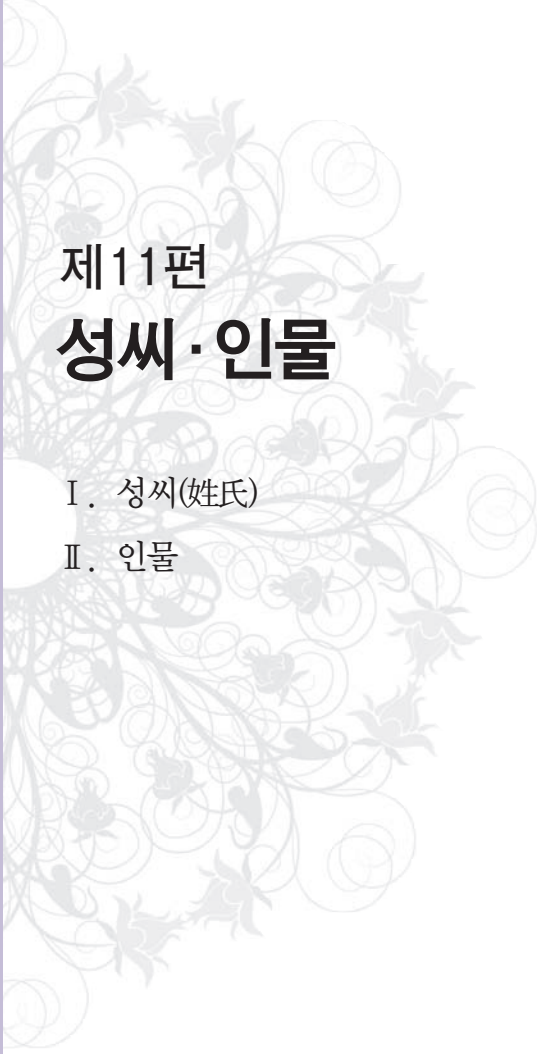
科程 歷史管理 師範 文典

修身 算術 作文 體操

隆熙二年十二月二十九日

私立峴山學校長崔鍾洛



A decorative floral pattern in a light gray color, featuring swirling vines and small flowers, positioned behind the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제11편 성씨·인물

I. 성씨(姓氏)

II. 인물

第八節 授業證書
 李鍾夏 居本郡東面 年二十八
 右人이襄陽郡私立岘山學
 師範速成科에서卒業
 其授業證書是茲에授與
 科程 歷史管理 師範
 修身算術 作文體
 教師 申高敬 金鴻植
 隆熙二年十二月二十九日
 私立岘山學校校長崔鍾洛

I. 성씨 姓氏

1. 성씨의 기원

동양의 성씨제도는 중국에서의 한(漢)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고대의 한민족 팔대성(八大姓)이라고 일컫는 희(姬)·강(姜)·영(嬴)·원(嫫)·사(姁)·길(姁)·운(妘)·규(嬌) 등이 모두 여(女)변으로 된 글자인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여계모권시대(女系母權時代)에 있어서 족칭(族稱)의 전통을 표시한 것이었다. 또한 거주하던 땅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등에서 성을 삼았는데 고대 중국의 예로서 신농씨(神農氏) 어머니는 강수(姜水)에서 살았기에 강(姜)씨, 황제(黃帝)의 어머니는 희수(姬水)에 살았으므로 희(姬)씨라 칭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성을 갖게 된 기원이요 유래라 하겠다.

2. 성씨와 본관(本貫·貫鄉·本鄉)

유사 이래 종족은 생존하는 동안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이며 차별화된 집단의 표상과 표시방법의 하나로 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종족의 집단에서 같은 성 하나로만 가지고 생존한다는 것이 꼭 구별하기 힘들어 이에 구별된 방법을 찾아 내놓게 되겠는데 바로 그것이 성은 같이 쓰되 보다 세분하기 위하여 본관(本貫 또는 貫鄉·本鄉)을 정해 놓아 그 가문(家門)의 출생계통을 나타내는 특별한 칭호로 통용하게 이르게 된 것이라 하겠다. 바로 그것을 예를 든다면 ‘경주 이씨·강릉 김씨(慶州 李氏·江陵 金氏)’ 이런 것이라 하겠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성씨는 278성(어떤 기록에는 298성)에 3,454개의 본관이 있는 것이다. 한때 조선시대 중엽에는 무려 4,000개가 넘을 때도 있었다.

조사에 의한 10대 성씨를 소개하면 김(金), 이(李), 박(朴), 최(崔), 정(鄭), 강(姜), 조(趙), 윤(尹), 한(韓)씨라 하겠고, 그밖에 특이한 것 즉 1%에도 들지 않고 있는 성씨를 곁해 열거하게 되면 비(丕) · 선(先) · 간(簡) · 응(應) · 포(包) · 방(房) · 은(恩) · 엽(葉)씨라 하겠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성(單姓)이 원칙이나 예외로 복성(複姓)이 있다. 복성에는 3자성도 있었으나 현재로는 남궁(南宮) · 황보(皇甫) · 선우(鮮于) · 석말(石抹) · 부여(扶餘) · 독고(獨孤) · 영호(令狐) · 동방(東方) · 서문(西門) · 사마(司馬) · 사공(司空) 등 2자성이 전해지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성씨

1) 고구려

고(高)씨(시조 주몽), 극(克)씨 · 중실(仲室)씨 · 소실(小室)씨는 임금으로부터 사성되다. 헤(稽)씨 · 예(芮)씨 · 동(董)씨 등 100여 성씨가 있다.

2) 신라

박(朴) · 석(昔) · 김(金), 삼성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으며, 신라 3대 유리왕(儒理王)때에 성을 갖게 된 것을 열거해보면 6부 촌장을 들 수 있다.

- 금량부(及梁部)알천양산촌(闕川楊山村)에 이(李)
- 사랑부(沙梁部)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에 최(崔)
- 점량부(漸梁部)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에 손(孫)
- 본피부(本彼部)자산진지촌(紫山珍支村)에 정(鄭)
- 한저부(漢祗部)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에 배(裵)
- 습비부(習比部)명활고야부(明活高耶村)에 설(薛)의 성을 주었고, 그 외 10여 성씨

3) 백제

부여(扶餘)씨(시조 온조가 부여에서 왔기에), 연(燕) · 장(張) · 사마(司馬) · 흑치(黑齒)씨 등 18여 성씨가 있다.

4) 고려

왕(王)씨(시조 왕건) 왕건 아버지용(龍)으로 부르고 권(權)氏, 우(牛)·마(馬)·상(象)·돈(豚)·원(獐)·돈(頓)씨 등 당시 자주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짐승의 뜻을 가진 것으로 성을 주어 부르기도 했다.

5) 조선

양민에게까지 성을 갖게 됨이 보편화되었고, 즉 후기까지도 노비나 천민계급은 성을 쓸 수 없었다. 1909년 새로운 호적법이 시행되면서 모두가 성(姓)과 본(本)을 가지도록 법제화하였다. 이처럼 우리조상들도 주변 다른 민족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뿌리를 이어가고자 면면히 살아오면서도 성씨(姓氏)를 매우 중요시 여겨왔다. 특히 조선시대의 성씨는 『동국여지승람』(성종, 1486년)에 277개 성씨, 『도곡총설』(영조, 1724년)에 288개 성씨, 『증보문헌비고』(고종, 1908년)에 696개의 성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6) 근현대

1934년 중추원이 발행한「조선의 성명씨족에관한연구조사」에 의하면 성씨는 326개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에 258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85년 경제기획원 자료에 의하면 274성씨에 3,454개의 본관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양양(襄陽)을 관향(貫鄕)으로 한 성씨

-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고성군(高城郡) 성씨(姓氏) 중 양양(襄陽) 김(金)씨가 세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고성군(高城郡)편 姓氏)

성씨(본군)류박맹유오 류오병래 최강릉 정구고 김양양

(안창)이가은천녕 고이안(환가)최황보박

姓氏(本郡)柳朴孟兪吳 柳吳並來 崔江陵 鄭九臯 金襄陽

(安昌)李加恩川寧 高利安(參 猥)崔皇甫朴

2) 강원도지 권일(江原道誌 卷一)(1940년 발행) 성씨편에도 양양 김씨 기록이 있다.

5. 양양의 세거(世居) 성씨

1)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세종7년 을사 1425년)

김(金) 이(李) 손(孫) 박(朴) 하(河) 정(鄭) 장(張) 임(林) 윤(尹) 최(崔) 진(陳)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99~1530년)

김(金) 이(李) 손(孫) 박(朴) 하(河) 정(鄭) 장(張) 임(林) 윤(尹) 최(崔) 진(陳)

3)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년)

김(金)–(강릉 · 경주)	정(鄭)–(초계)	채(蔡)–(평강)	황(黃)–(창원)
이(李)–(함평 · 전의 · 안성 · 경주 · 가산)		장(張)–(울진)	박(朴)–(청주)
윤(尹)–(칠원)	노(盧)–(광주)	최(崔)–(강릉)	하(河)
임(林)–(나주)	고(高)–(제주)		

4) 양주읍지(襄州邑誌)(1822년)

김(金)–(강릉 · 김해 · 경주)	조(趙)–(한양 · 풍양)	고(高)–(제주)	황(黃)–(창원)
이(李)–(함평 · 전의 · 가산 · 경주)	손(孫)–(밀양)	최(崔)–(강릉 · 경주)	
박(朴)–(청주 · 밀양)	정(鄭)–(연일)	장(張)–(울진)	윤(尹)–(파평)
함(咸)–(강릉)	오(吳)–(해주)	하(河)	임(林)–(나주)
노(盧)–(광주)	원(元)–(원주)		

5) 관동지(關東誌)(1826년~1828년 추정)

김(金)–(강릉 · 경주)	정(鄭)–(초계)	채(蔡)–(평강)	황(黃)–(창원)
이(李)–(함평 · 전의 · 안성 · 가산 · 경주)		장(張)–(울진)	박(朴)–(청주)
윤(尹)–(칠원)	노(盧)–(광주)	최(崔)–(강릉)	하(河)

임(林)-(나주) 고(高)-(제주)

6) 관동읍지(關東邑誌)(1871년)

김(金)-(강릉 · 경주)	하(河)-(진주)	채(蔡)-(평강)	황(黃)-(창원)
이(李)-(함평 · 전의 · 안성 · 경주 · 가산)	정(鄭)-(초계)	박(朴)-(청주)	
장(張)-(울진)	노(盧)-(광주)	최(崔)-(강릉)	윤(尹)-(칠원)
임(林)-(나주)	고(高)-(제주)		

7) 강원도양양군읍지일(江原道襄陽郡邑誌一)(1899년)

김(金)-(강릉 · 경주 · 김해)	박(朴)-(청주 · 밀양)	이(李)-(함평 · 전의 · 경주 · 가산)	
윤(尹)-(파평)	정(鄭)-(초계)	최(崔)-(강릉)	고(高)-(제주)
장(張)-(울진)	노(盧)-(광주)		

8) 강원도지(江原道誌)(1940년)

이(李)-(전주 · 함평 · 홍주 · 안성 · 성주 · 경주 · 평창 · 농서)	고(高)-(제주 · 장흥)		
정(鄭)-(초계 · 연일)	장(張)-(인동 · 단양)	권(權)-(안동)	차(車)-(연안)
손(孫)-(밀양)	최(崔)-(강릉 · 전주 · 해주 · 경주)		탁(卓)-(광산)
김(金)-(울산 · 강릉 · 경주 · 김해 · 연안 · 안동 · 김녕)	박(朴)-(밀양 · 춘천 · 강릉)		
노(盧)-(광주)	우(禹)-(단양)	안(安)-(순흥)	임(林)-(평택)
함(咸)-(강릉)	유(柳)-(문화)	주(朱)-(신안)	마(馬)-(장흥)
원(元)-(원주)	조(趙)-(한양)	엄(嚴)-(영월)	전(全)-(정선)
윤(尹)-(파평)	황(黃)-(평해)	오(吳)-(해주)	한(韓)-(청주)
강(姜)-(진주)	하(河)-(진주)		

9) 2009년 8월 현재 양양의 성씨 · 관향

2009년 8월 현재 양양에는 95성씨에 324관향임이 밝혀졌다.

(1) 성씨 · 관향(성씨는 가나다순이며 괄호 안은 관향이다.)

가(賈)-(소주) 강(姜)-(진주 · 평양 · 경주 · 송림) 강(康)-(곡산)
 계(桂)-(수안) 고(高)-(제주 · 장흥 · 개성 · 횡성) 곽(郭)-(현풍)
 권(權)-(안동) 공(孔)-(곡부) 구(具)-(능성) 국(鞠)-(구산)
 금(琴)-(태화) 기(箕)-(행주) 나(羅)-(금성 · 나주) 길(吉)-(해평)
 김(金)-(김해 · 경주 · 강릉 · 연안 김녕 · 광산 · 해주 · 삼척 · 안동 · 선산 · 광주 ·
 전주 · 순천 · 의성 · 나주 · 양주 · 청주 · 청풍 · 화순 · 울산 · 고양 · 상주 ·
 선산 · 안악 · 충주 · 금산 · 부안 · 성주 · 언양 · 영양 · 정주 · 청주)
 남(南)-(의령 · 영양 · 함안 · 남양) 노(盧)-(광주 · 교화 · 광산 · 풍천 · 함평)
 도(都)-(성주) 동(董)-(광천) 마(馬)-(장흥 · 한흥) 매(梅)-(장흥)
 맹(孟)-(신창) 모(牟)-(함평) 문(文)-(남평) 방(房)-(양산)
 민(閔)-(여흥 · 남평) 방(方)-(온양 · 양산) 백(白)-(수원) 변(邊)-(원주)
 박(朴)-(밀양 · 강릉 · 춘천 · 순천 · 무안 · 영해 · 고령 · 반남 · 수원 · 열성 · 명천 ·
 상주 · 죽산 · 청송 · 충주 · 함양)
 배(裴)-(홍해 · 성주 · 경주 · 김해 · 달성 · 인동 · 함주) 변(卞)-(밀양 · 초계)
 사(史)-(청주) 서(徐)-(달성 · 이천 · 갈천 · 부여) 선(宣)-(보성)
 석(石)-(광주 · 충주 · 경주 · 홍천) 성(成)-(창녕) 소(蘇)-(진주)
 신(愼)-(안동) 손(孫)-(밀양 · 경주) 송(宋)-(여산 · 은진 · 은율 · 능성)
 신(申)-(평산 · 아주 · 영산 · 낙신 · 신평) 신(辛)-(영월 · 영산 · 달성)
 심(沈)-(청송 · 삼척 · 풍산) 안(安)-(순흥 · 죽산 · 광주)
 양(楊)-(중화 · 청주) 양(梁)-(남원 · 제주) 어(魚)-(함중 · 성주)
 엄(嚴)-(영월 · 달성) 여(呂)-(성주 · 함양) 연(延)-(곡산) 염(廉)-(파주 · 파평)
 용(龍)-(홍천) 오(吳)-(해주 · 보성 · 울산) 우(禹)-(단양)
 원(元)-(원주) 유(劉)-(강릉) 유(兪)-(기계 · 원덕)
 유(柳)-(문화 · 전주 · 진주 · 경주) 육(陸)-(옥천) 윤(尹)-(파평 · 해주 · 해남)
 윤(倫)-(파평) 이(李)-(전주 · 경주 · 함평 · 안성 · 평창 · 성주 · 연안 · 하산 ·
 광주 · 홍천 · 영천 · 월성 · 고성 · 홍주 · 덕수 · 순흥 · 용인 · 전의 · 진주 · 김능 · 달성 ·

영해 · 옥천 · 재령 · 정선 · 진성 · 광산 · 성산 · 아산 · 양성 · 여주 · 영주 · 원주 · 전은 · 청풍 · 태안 · 함안 · 해안 · 하빈)

임(林)-(평택 · 나주 · 예천 · 양주 · 울진 · 부안 · 전주 · 평창 · 해진 · 영월)

임(任)-(풍천 · 장흥 · 평택) 전(田)-(담양) 정(丁)-(나주 · 영광)

장(張)-(인동 · 울진 · 안동 · 단양 · 경주 · 동래 · 별성 · 여산 · 홍성)

전(全)-(정선 · 경주 · 한양 · 나주 · 경산 · 성주 · 전주 · 진주 · 평강)

정(鄭)-(연일 · 초계 · 진주 · 영일 · 온양 · 나주 · 동래 · 경주 · 봉화 · 안동 · 청산 · 전주 · 조천 · 청주 · 오천 · 해주 · 곡산 · 남원 · 정주 · 창녕 · 하동 · 한산)

정(程)-(하남) 조(趙)-(한양 · 함안 · 풍양 · 횡성 · 배천 · 양주)

조(曹)-(창녕) 주(朱)-(신안 · 능성 · 여산) 지(智)-(봉산)

지(池)-(춘천 · 충주 · 평창) 진(秦)-(풍기) 차(車)-(연안)

진(陣)-(여양 · 평강 · 경주 · 밀양 · 진주) 채(蔡)-(평강 · 진주) 천(千)-(여왕)

최(崔)-(강릉 · 경주 · 전주 · 해주 · 동원 · 강화 · 변강 · 송원 · 수원 · 양천 · 연일 · 화신)

추(秋)-(추계) 탁(卓)-(광산 · 광주) 태(太)-(남원) 편(片)-(절강)

표(表)-(신창) 하(河)-(진주 · 진양) 함(咸)-(강릉 · 양근) 한(韓)-(청주)

허(許)-(김해 · 양천 · 양주 · 하양 · 양평 · 하정) 현(玄)-(정주)

홍(洪)-(남양 · 부림 · 순흥 · 해주) 남궁(南宮)-(함열)

황(黃)-(평해 · 황산 · 창원 · 장수 · 덕산 · 청주 · 황해)

(2) 읍면별 성씨 분포(2008년)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가(賈)	소주		1					1	
강(姜)	진주	25	10	4	17	14	37	107	
	경주	2			1			3	
	소림	1						1	
	평양						5	5	
강(康)	곡산		2					2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계(桂)	수안		1					1	
고(高)	제주	20	1	31	10	6	11	79	1681년
	장흥	4						4	
	횡성			1				1	
	개성						2	2	
곽(郭)	현풍		1	1	1			3	
권(權)	안동	31	13	10	15	21	18	108	
공(孔)	곡부		1		1			2	
구(具)	능성			1		1	2	4	
국(鞠)	구산						3	3	
금(琴)	태화	1						1	
기(箕)	행주	3					3	6	
길(吉)	해평	2						2	
김(金)	경주	224	155	49	32	80	132	672	1559년
	연안	93	19	25	68	4	12	221	1538년
	의성	4				4		8	
	강릉	131	24	25	68	70	251	569	1534년
	김해	171	130	61	143	62	441	1,008	
	김녕	10	1	7	46	1	3	68	
	선산	1					1	2	
	금화	2						2	
	고양	2						2	
	안악	2						2	
	삼척	10	2	1		8	3	24	
	전주		2	1			6	9	
	청풍	3					1	4	
	광산	4	7	2	18	15	15	61	
	안동		3		2	10	3	18	
	울산	1		1			1	3	
	순천			1	7			8	
	양주	4						4	
	화순	4						4	
	선산	4			11			15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김(金)	광주	11	1					12	
	청주	2			1	1	1	5	
	상주	2						2	
	해주	25						25	
	나주		1			3		4	
	성주		1					1	
	언양		1					1	
	충주		2					2	
	정주		1					1	
	부안				1			1	
	금산						1	1	
	영양						1	1	
남(南)	남양				3			3	
	영양	2	1			2	4	9	
	의령	4	6	2	1		12	25	
	함안				7			7	
노(盧)	광주	49	6	4	4		11	74	1469년
	광산	2					1	3	
	함평	1						1	
	교하	7	2		2	2	3	16	
	풍천			1				1	
도(都)	성주					1		1	
동(董)	광천					1		1	
나(羅)	금성	1					1	2	
	나주						2	2	
마(馬)	장흥	16	6		6		8	36	
	한흥						1	1	
매(梅)	장흥		3					3	
맹(孟)	신창	3						3	
모(牟)	함평		1				4	5	
문(文)	남평	13	4	1	13	6	10	47	
민(閔)	여흥	3			1	2	5	11	
	남평						1	1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박(朴)	밀양	13	68	18	115	62	207	483	500년 전
	수원	3						3	
	강릉	13	15	7		5	1	41	1550년
	순천	21	2				1	24	
	춘천	23	1				13	37	
	충주	1						1	
	청송	1						1	
	무안	14	1				4	19	
	고령	3	1					4	
	열성	2						2	
	반남	1	1			2		4	
	영해	1	4				1	6	
	명천	1						1	
	함양		1					1	
	죽산						1	1	
	상주						1	1	
방(方)	온양	7	1		2		8	18	
	양산				1			1	
방(房)	양산				1			1	
배(裵)	흥해	1	2			6		9	
	인동	1						1	
	성주	1		1		1		3	
	함주	1						1	
	달성	1						1	
	김해		1					1	
	경주						1	1	
백(白)	수원	9	1	2	1		19	32	
변(邊)	원주	5		1	2	1		9	
변(卞)	밀양			1				1	
	초계						1	1	
사(史)	청주	2						2	
서(徐)	달성	24	3	3	11	12	18	71	
	이천	2	1			2	2	7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서(徐)	갈전						2	2	
	부여				1			1	
석(石)	광주	3			1			4	
	경주	1						1	
	충주	3						3	
	홍천	1						1	
선(宣)	보성	1						1	
성(成)	창녕	4		1				5	
소(蘇)	진주						1	1	
손(孫)	밀양	42	5	6	8	7	35	103	1800년대
	경주	2	2					4	
송(宋)	여산	4	3	2		4	22	35	
	은진	10						10	
	능성	1						1	
	은율				3			3	
신(愼)	안동	1						1	
신(申)	평산	27	18	5	10	8	32	100	
	낙신		1					1	
	신평		1					1	
	영산						2	2	
	아주						3	3	
신(辛)	영월	16	3	2	1	2	3	27	
	달성	1						1	
	영산	1					3	4	
심(沈)	청송	9	1	1	6		14	31	
	삼척	4	1	4		2		11	
	풍산	1	1					2	
안(安)	순흥	25	5	2	8	12	33	85	250년전
	광주						1	1	
	죽산				5			5	
양(楊)	중화	1						1	
	청주			1				1	
양(梁)	남원	23	3	6	10	1	41	84	1880년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양(梁)	제주				2			2	
어(魚)	함종	2	2				2	6	300년전
	성주	1						1	
엄(嚴)	영월	7	15	2	8	15	16	63	
	달성	2						2	
여(呂)	성주		2				1	3	
	함양						1	1	
연(延)	곡산	3	1				2	6	1940년
염(廉)	파주	4	1					5	
	파평	2						2	
오(吳)	해주	20		4	37	15	45	121	1592년
	울산	1						1	
	보성				1		1	2	
용(龍)	흥천	3	3				8	14	
우(禹)	단양	2	1		1	5	1	10	600년전
원(元)	원주	7	1			7	1	16	1906년
유(劉)	강릉	4	1		1	7	4	17	
유(兪)	기계	2						2	
	원덕			1				1	
유(柳)	문화	5	4		2	9	4	24	
	전주	4	3				15	22	
	경주	1						1	
	진주		1				4	5	
육(陸)	옥천						1	1	
윤(尹)	파평	52	23	31	31	28	58	223	1581년
	해주						4	4	
	해남						1	1	
윤(倫)	파평	4						4	
이(李)	영주	1						1	
	영천	2	1		1	1	1	6	150년전
	원주	1						1	
	재령	1				1		2	
	전의	1	2					3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이(李)	전주	43	82	76	124	72	286	683	1456년
	정선	2						2	
	태안	1						1	
	평창	2	14	5		12	6	39	
	한산	10	1					11	
	함평	71	10	8			2	91	1534년
	고성	3				2		5	
	경주	123	85	20	151	42	109	530	1550년
	광산	1						1	
	금릉	2						2	
	달성	2						2	
	성주	2		4	1	2	11	20	
	순흥	3						3	
	아산	1						1	
	안성	37	1	2			2	42	1938년
	양성	1						1	
	연안	8	2	1				11	
	홍천	7						7	
	옥천	2						2	
	광주	3		3	1	1		8	
	월성	5	1					6	
	진주		1				2	3	
	홍주	3		2				5	1792년
	여주			1				1	
	영해			2				2	
	함안					1		1	
	진성					2		2	
	용인						3	3	
	청풍						1	1	
	하빈						1	1	
	덕수						3	3	
	성산						1	1	
	해안						1	1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이(李)	전은				1			1	
임(林)	울진	2	1	3				6	
	평택	14	1	3	3	12	1	34	
	양주	8						8	
	전주	3						3	
	나주	2			10		14	26	
	영월		1					1	
	평창					2		2	
	해진						2	2	
	예천						17	17	
	부안						3	3	
	장흥	3						3	
임(任)	풍천	1	2		7		1	11	
	평택					3		3	
	인동	49	7	2	24	20	76	178	1594년
장(張)	단양	5	1	2			1	9	
	울진	6				10	3	19	
	여산	1						1	
	경주	5						5	
	동해	2						2	
	홍성		1					1	
	별성			2				2	
	안동						10	10	
	정선	86	13	10	32	33	69	243	1700년경
전(全)	경주	3						3	
	평강	1						1	
	진주	1						1	
	전주	1						1	
	나주		1					1	
	성주						1	1	
	경산						1	1	
	한양						2	2	
전(田)	담양				1		9	10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정(鄭)	연일	108	12	2	12	17	17	168	400년전
	영일	7	1	1		5	25	39	
	청주	2		2				4	
	청산	6						6	
	봉화	5	1					6	
	나주	4			2		7	13	
	경주	2	4			2	1	9	
	조천	4						4	
	동래	3	2		5		2	12	
	전주	5						5	
	초계	1			13	37	1	53	1681년
	안동	5	1					6	
	오천	3						3	
	곡산	1						1	
	하동		1					1	
	한산		1					1	
	진주		1			1	42	44	
	남원		1					1	
	정주			1				1	
	해주			1			1	2	
	창녕						1	1	
	온양						16	16	
정(程)	하남	4						4	
정(丁)	나주	2						2	
	영광	1						1	
조(趙)	한양	12	47	2	13	43	21	138	300년전
	함안	2			13			15	
	풍양	1	1		2	3	3	10	
	횡성		1				2	3	
	양주						1	1	
	배천		1	1				2	
조(曹)	창녕	3	1			2	12	18	
주(朱)	신안	7	1		1		6	15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주(朱)	여산	1						1	
	능성	2						2	
지(池)	춘천	1					8	9	
	충주				1	2		3	
	평창					1		1	
지(智)	봉주	1						1	
진(秦)	풍기	1						1	
진(陣)	여양	9	3	7			9	28	
	평강	2						2	
	밀양	1						1	
	진주		1					1	
	경주				1			1	
차(車)	연안	8	1		2	1	2	14	1890년
채(蔡)	평강	2				2	4	8	
	진주		1					1	
천(千)	여양		1	1		1	9	12	
최(崔)	강릉	340	8	39	45	27	97	556	1574년
	경주	55	19	8	33	30	60	205	
	전주	24	2	1	2		3	32	1774년
	해주	15	2	1		1	1	20	
	송원	1						1	
	연일	1						1	
	양천	1						1	
	수원	1						1	
	화신	1						1	
	변장					1		1	
	동원						15	15	
	강화						1	1	
추(秋)	추계	24	2	5		1	23	55	
탁(卓)	광산	27	2	3	5		15	52	1660년
	광주	2	13					15	
태(太)	남원	1						1	
편(片)	절강	1						1	

성 씨	관 향	읍 면 별 분 포(세대수)							입향시기
		양양	서	손양	현북	현남	강현	계	
표(表)	신창						6	6	
하(河)	진주	1	1			1	3	6	
	진양						3	3	
한(韓)	청주	27	10	1	23	3	15	79	1750년
함(咸)	강릉	37	2	25	22	5	7	98	1600년경
	양근	8						8	
허(許)	양천	2	1		1			4	
	양주	3						3	
	하정	1						1	
	하양	2						2	
	김해	1	1		1	2	12	17	
	양평						1	1	
현(玄)	정주	2						2	
홍(洪)	남양	18	5	8	23	34	39	127	1850년경
	부림		3					3	
	순흥					2		2	
	해주					2		2	
황(黃)	창원	3	2		3		2	10	
	평해	31	14	1	35	6	1	88	조선초기
	장수	1	2			1	2	6	
	황해						1	1	
	황산						28	28	
	청주						1	1	
	덕산						1	1	
남궁(南宮)	함열	1						1	

第八節
授業證書
李鍾夏
居本郡東面
年二十八
右人李襄陽郎私立峴山興
師範速成科에 서卒業
기授業證書는茲에授與
科程 歷史管理 師範
修身算術 作文體
教師 申尚敏
金鴻植
隆熙二年十二月二十九日
私立峴山學校長崔鍾洛

II. 인물

1990년도 발행한 『양주지(襄州誌)』에 등재된 인물은 전원 수록하였고 수정 보완이 요하는 사항은 수정 보완하였으며, 누락되었거나 그 후 대한민국 주권의 영향권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향민의 존경과 귀감이 되었던 인물로서 고인(故人)이 되신 분을 최대한 탐문 수록하였다.

1. 불교와 인연한 인물

○ 의상대사(義湘大師)

신라 진평왕 47년(625년)~성덕왕 1년(702년) · 속성은 김(金)씨이고 아버지는 한신(韓信)이다. 20세에 출가하여 경주 낭산황복사(狼山黃福寺)에서 수도하였다. 진덕왕 4년(650년)에 원효와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난을 당하여 이루지 못하고 그 후 문무왕 1년(661년)에 당나라 사신의 배를 빌어 타고 건너가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지엄(至儼 : 중국 화엄종의 시조)의 문하에서 화엄의 깊은 이치를 깨달았다. 당시 아침저녁 탁발(托鉢)하러 다닐 때면 선묘(善妙)라는 처녀가 의상을 붙들고 희망을 걸어 연모하면서 의상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생생세세(生生世世) 귀의(歸依)할 것을 맹세’ 하였으나 불심이 강한 의상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무왕 10년(670년)에 귀국하여 관음대비(觀音大悲)의 진신(眞身)이 산다는 관음굴(觀音窟) 앞에서 재계(齋戒)한지 7일 만에 좌구(座具 : 앉아 있던 자리)를 신수(晨水 : 새벽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 팔부 시종(龍天 八部 侍從)이 그 굴속으로 인도하여 들어갔다. 공중에 참례(參禮)하니 수정염주(水晶念珠) 한 꾸러미와 동해룡(東海龍)이 주는 여

의보주(如意寶珠) 한 알을 받아가지고 나와 다시 7일간 재계하였더니, 들어가 진신의 참 모습을 보았다. 진신이 일러 주는 대로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가 대나무 두 그루가 솟는 곳에 금당(金堂)을 짓고 부처를 모시니 곧 낙산사(洛山寺)를 창건한 화엄종(華嚴宗)의 시조시다.

의상의 문인으로 뛰어난 10대덕(十大德)으로 오진(悟眞) 지통(知通) 표훈(表訓) 진정(眞定) 진장(眞藏) 도융(道融) 양원(良圓) 상원(相源) 능인(能人) 의적(義寂)이 있으며, 전교(傳敎)의 10대찰로는 부석사(浮石寺) 화엄사(華嚴寺) 해인사(海印寺) 갑사(甲寺) 범어사(梵魚寺) 미리사(美理寺) 보광사(普光寺) 보원사(普源寺) 옥천사(玉泉寺) 청담사(靑潭寺)가 있다.

○ 원효대사(元曉大師)

신라 진평왕 39년(617년)에 태어나 신문왕 6년(686년)에 사망하였다. 속성은 설(薛)씨이고 아버지는 담날(談捺)이다.

29세에 출가하여 황룡사에서 수도하다 34세 때에 동학하던 의상과 함께 불법을 닦으러 당나라에 가던 길에 요동에 이르러 어느 무덤들 사이에서 한 밤을 자던 중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한 그릇 마셨던 바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해골 속의 더러운 물이었음을 알고 급히 토하다가 깨닫기를 ‘심생즉중종법생 심멸즉축루불이[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髑髏不二] : 마음이 나야 모든 사물과 법이 나는 것이요,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이 없도다.]라 하신 부처님 말씀에 삼계(三界)가 오직 마음뿐이라 한 것을 어찌 잊었더냐.’ 하고 바로 귀국하고서 통불교[(通佛敎) : 원효종 분황종 해동종]를 제창하며 민중 속에 불교를 보급하다가 하루는 마음이 들떠 거리에 나가 노래하기를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내 하늘을 받칠 기둥을 깎으리로다.” 하니 태종이 알아차리고 요석궁(瑤石宮)의 홀로된 공주와 짝하게 하여 설총[薛聰] : 신라 십현의 제일인]을 낳았다. 그 후 실계(失戒)한 원효는 낙산사가 명찰이라는 말을 듣고 양양 땅에 들어와 바로 낙산이 보이는 들녘에서 벼를 베고 있는 여인[관음보살의 화신] 또 맑은 시냇가 다리 밑에서 생리대 빨래를 하는 여인과 희롱하다 발길을 재촉 낙산사로 가려는데 들 가운데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휴제호

화상(休醴酬和尚) : 그만두게 불성이 뛰어난 훌륭한 스님!” 크게 한마디 조롱하는 듯 웃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낙산사 법당에 들어가 크게 뉘우친바 있다는 전설이 있다.

원효는 설악산 관모봉 위 동해 일출이 바라보이는 자리에 일출암(日出庵)을 짓고 2년 뒤인 신문왕 9년(689년)에 영혈사를 창건하였으며 이어서 관모봉 동쪽 큰 청연골에 청연암을 지었다고 한다. 또한 영혈사의 영천을 나눠 홍련암 옆에 샘이 솟게 하였다는 전설도 남겼다.

○ 도의국사(道義國師)

속성은 왕(王)씨이고 법호는 원적(元寂), 선덕왕 1년(780년)에 당나라에 가서 지장(智藏)의 제자가 되어 그 불법을 물려받고 도의라 개명하고, 821년에 귀국하여 남종선(南宗禪)을 전하였으며 마침내 서라벌을 떠나 멀고 먼 북산에 당도한 곳이 바로 부두골에 있었던 진전사(陳田寺)이며 도의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宗祖)이다.

○ 범일국사(梵日國師)

신라 헌덕왕 2년(810년)에 태어나 진성여왕 3년(889년)사망하였다. 속성은 김(金)씨이고 흥덕왕 때 당나라에 유학하다 847년에 귀국하고 851년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는 굴산사(掘山寺)를 세우고 수도하다. 당나라 명주(明州) 땅 개국사(開國寺)에서 만났던 왼쪽 귀가 없는 정취(正趣)보살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익령현(翼領縣) 덕기방(德耆坊)을 찾아가서 돌다리 밑 웅덩이에서 정취보살의 화신인 황옥으로 된 돌부처를 찾아서 현안왕 2년(858년) 낙산의 상방(上方)에 불전(佛殿) 3간을 짓고 돌부처를 봉안(奉安)하였다고 한다.[익령현은 통일신라시대 양양의 이름이며 덕기방은 낙산사 아래에 있는 마을로 전해진다.]

○ 정취보살(正趣菩薩)

익령현 덕기방[통일신라시대 낙산사 아래에 있는 마을]이 고향인 정취보살은 당나라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서 수도하였으며 범일국사가 827~835년 간 수도할 때 만났던 왼쪽귀가 떨어진 중으로 범일국사에게 “나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집은 익

령현 덕기방에 있습니다. 법사께서 만일 다른 날 귀국하면 모름지기 내 집을 지어 주십시오.” 하였다. 범일국사 귀국 후 858년 무인(戊寅) 2월 15일 밤 꿈에 옛날에 본 중이 들창 아래에 이르러 “전에 명주 개국사에 있을 때 조사께서 나와 언약하여 이미 허락한 바 있거늘 어찌 그리 늦었는고?” 하였다. 범일이 놀라 깨어 곧 수 십 명을 거느리고 익령의 경계에 이르러 그가 거처하던 곳 낙산 아랫마을에 덕기라는 여인을 만나니 겨우 8세인 그녀의 아들이 날마다 남쪽 돌다리 가에서 금빛 나는 동자와 논다고 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놀던 다리 밑에 가 물 가운데 황옥 돌부처를 찾아 꺼내보니 정취보살의 화상이 분명하므로 기뻐하며 전에 그의 부탁대로 범일국사는 낙산의 상방(上方)이 길함으로 3간(間) 불전을 짓고 정취보살의 화상인 돌부처를 봉안하였다.[정취보살 : 극락 또는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한다는 보살.]

○ 조신(調信)

신라의 중으로 신라 세규사(世達寺)의 장사(莊舍) : 절이 가지고 있는 농장]가 명주날리군(溟州捺李郡)에 있어 그 곳의 지장(知莊) : 장사의 관리인]으로 파견되어 왔다. 그 고을 원 김흔공(金昕公)의 딸을 홀로 연모하여 낙산사 대비전에 여러 번 나아가 그 여자와 인연이 맺어지기를 몰래 빌었으나 그 여자가 탄 곳으로 출가를 하게 되자, 또 불당 앞에서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그리운 정에 지쳐 잠깐 졸다가 꿈을 꾸는데 김씨 남자가 다가서며 “동혈(同穴) 짝이 되고자 왔노라”하면서 지난 사연을 아뢰니 즉 꿈이 이루어져 40년 동안 동거하면서 자녀 5남매를 낳았다. 생활고로 큰 아들(15세)이 죽자 익령 해현총(翼領 蟹峴塚) : 양양읍 사천리 뒷산 그 기지는 분명치는 않다]에 묻고 방랑하다 우곡현(羽曲縣) : 강릉 옥계]에서 10세 딸마저 개에 물려 누우니 우환과 가난을 못 이겨 이별하려 할 때에 꿈에서 깨어난 아침 백발이 되었다. 속세에 물든 온갖 탐욕의 마음을 얼음처럼 녹여 뿌리면서 다시 대비전에서 부끄러움을 깊이 참회하고, 해현총에 들러 장남의 묘를 발굴하니 시체 대신 미륵일좌와치(彌勒一座臥置) : 돌부처 일좌가 누워 있음]하였으므로 깨끗이 씻어 낙산사에 안치하고 서라벌로 돌아가 장사의 소임을 벗고 정토사(淨土寺)를 지어 백업(白業)을 닦았다고 한다.[삼국유사에 기록]

○ 결승(乞升)

고려 고종(高宗) 때 낙산사의 사노(寺奴) : 절의 종]였다. 1253년(계축) 1254년(갑인) 몽고군이 쳐들어 올 때 낙산사의 이성(二聖)의 진용(眞容)과 두 보주를 양주성(襄州城)에 옮겼는데 양주성이 함락될 때 낙산사의 주지 선사 아행(阿行)이 두 보주를 은합(銀盒)에 담아가지고 도망하려하니 이를 탈취하여 깊이 땅속에 묻었다. 1254년 10월 22일 양주성이 함락될 때 아행은 죽고, 죽음을 면한 결승은 병화가 물러간 뒤 두 보주를 파내어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 낭중 이록수(郎中 李祿綏)에게 바쳤다.

1258년(무오) 10월에 지림사(祇林寺) 주지 대선사 각유(覺猷)가 “낙산사의 두 보주는 국가의 신보(神寶)인바 지금 명주성도 위태하니 어부[(御府 : 임금의 물건을 넣어두는 곳집)로 옮겨 안치함이 마땅하다.” 아뢰니 고종[(高宗 : 고려 23대왕)께서 윤허[(允許 : 임금의 허가]하시어 야별초[(夜別抄 : 고려 고종 때 최우(崔瑀)가 조직한 특수한 밤 순라군] 10인을 보내어 결승을 거느리고 명주성에서 가져다 내부[(內府 : 나라 안 곳집)에 봉안하였으며 보상으로 은 1근과 쌀 5석을 받았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곧 낙산사의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지켜낸 인물이라 하겠다.[삼국유사에 기록]

○ 익조대왕(翼祖大王)

고려 말 사람으로 성은 이(李)이고 이름은 행리(行里)이며 조선 태조대왕[이성계]의 증조부이다. 부인 정숙왕후(情淑王后) 등주최씨(登州崔氏)와 더불어 관음굴에 행행하시어 후사를 기도하셨다. 꿈에 한 가사 승이 와서 이르기를 반드시 생남 할 터이니 이름을 선래(善來)로 지으라 하였다. 과연 태기가 있어 의주(宜州)에 돌아가 아들을 낳으셨으니 이름을 선래라고 짓고 후에 도조대왕(度祖大王)으로 추존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양양이 태조대왕의 외친향(外親鄉)으로 우대받았었다.[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기록]

○ 진묵대사(震默大師)(1562~1633년)

이름은 일옥(一玉)이며 만경불거촌(萬頃佛居村) 사람으로 7세에 전주 봉서사(鳳棲寺)에서 중이 되었다. 봉곡(鳳谷) 김동준(金東準)과 우의가 깊었고, 변산(邊山)의 명월사(明月寺), 전주의 원등사(遠燈寺) · 대원사(大元寺) 등에 있었으며 이적을 많이 했다. 머리

가 좋고 술도 잘 마시며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물 위를 걸어 다니고 땅 속으로 마음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한다. 그가 현북면 법수치 검달동 안막에 암자를 세우고 한때 기거할 때의 일화가 있다.

당시 양양부사가 법수치리 대승폭포의 솟대뻐기라는 곳에 일산을 높이 쫓고 천렵을 하는데 마침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부사가 생선국을 권하니 희룡조의 권에 못 이겨 생선국을 다 먹고 갈 때 폭포물을 가로타고 앉아서 대변을 보면서 말하기를 “소승은 죽은 고기 먹고 산고기를 싸놓고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방변을 하는데 그 변 중에서는 기이하게도 은린옥척(銀鱗玉尺)의 물고기들이 펄펄 뛰었다. 그 때부터 검달동 폭포를 대승폭포(大僧瀑布)라 이름 하였다고 전한다.

2. 충의

○ 조인벽(趙仁璧)

관향은 한양이며 고려 검교밀직부사 용성군(檢校密直副使 龍城君) 돈(墩)의 아들로써 공민왕조(恭愍王朝)에 부친을 따라 동북면(東北面) 병마사(兵馬使) 유인우군(柳仁雨軍)에 속하여 쌍성(雙城)회복의 공이 있었고 또 전공도 크며 조선 태조대왕의 매부이다.

공민왕조 판위(判尉) 의덕부사(懿德副使)를 배하고 삼중대광원군(三重大匡龍源君)에 이르렀다가 아들 온(溫)과 연(涓)은 조선조(朝鮮朝)창업의 공을 세웠다.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은 여조훈신(麗朝勳臣)이라 고려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여 양주(襄州) 동쪽 10여리에 와서 은퇴하던 중 삼징칠벽(三徵七辟: 벼슬을 주려고 자주 조정에서나 지방관아에서 부름을 하나 가지를 앓았다. 그 동리의 이름은 시상(柴桑): 지금의 조산)이고 그 동쪽 대포성(大浦城)의 동쪽 기슭에 해월정(海月亭)을 짓고 소일했으며 또 노연탄(魯連灘)과 도취석(陶醉石)이 있어 고상함을 나타냈다. 사후에 시호를 양렬(襄烈)이라 하였다. 그 굳은 의지와 절개는 일조일석에 모든 고을에 전해지고 양양유림에서는 예를 후히 갖추었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동명서원(東溟書院)을 건립하여 충절을 표창하고 군민은 절의를 추모하여 춘추에 제향을 올린다.

○ 조 온(趙溫 : 漢陽人)

관향은 한양이며 해월정 조인벽의 아들이다. 조선 초엽에 개국모책(開國謀策) 정사(定社) 좌명(佐命) 등 3대 공훈으로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을 봉하였고 벼슬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훈공으로서 재물을 득한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초려수간에서 극빈한 생활을 하여 세인이 공의 결백 강직함을 탄복하였다하며 퇴관 귀향하여 창해백조와 송림야학과 더불어 시문을 벗 삼아 수년을 보내다가 80세에 몰하였다. 그 후 그의 아들이 화려하게 새로 집을 지어 낙성할 때 숙부 우의정 양경공(良敬公)을 청한바 양경공은 그 뜰 안을 보고서는 앉지도 아니하고 나가면서 왈 “백형택이 원래 검소한 거택으로 보잘것없는 집에서 백형은 만족히 생각하고 즐거하셨는데 너는 선친의 검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석단설비한 좋은 집을 지었으니 내 어찌 너의 방에 들어가 앉겠느냐”하니 족하는 황공후회하였다고 한다.

○ 함귀녕(咸貴寧)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동은(東隱) 안평공 전립(安平公 傳霖)의 아들로서 선조조(宣祖朝)에 무과에 등과하고 벼슬이 사과(司果)가 되었다. 임진란 때는 팔위보호관 전략장군(八衛保護官 宣略將軍)으로 양양에서 전투하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이내 물러났다가 봉평리(蓬平里)에 내려가 살았다.

○ 김윤백(金允白)

관향은 경주이며 조선조 인조(仁祖) 때 심기원란(沈器遠亂)에 인조왕을 직접 업고 야간 30여리에 피란시킨 공으로 녕국원종공신이등 통정대부(寧國原從功臣二等 通政大夫)로 승계(昇階)되었다.

○ 이교하(李敎夏)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대일(大一)이라 하고 일제강점의 치욕을 보복하기 위하여 의분심을 갖고 항일투쟁의 뜻을 품었다. 의병소집장 이강년(李康年)의 휘하에서 관동지방도처에서 일병과 항전하였다. 10여 년 간 일제에 항거하고 집안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평

생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다.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고향에 오지 못하고 인제산골에서 은거하였다. 1949년 6월 9일에 졸하니 그의 사적이 이 세상에 빛을 못 보았다.

○ 김성서(金聖瑞)

관향은 경주이며 일찍이 항일의식이 강하고 의병장 이강년과 더불어 각지에서 전투하고 항쟁하였다. 연곡지구에서 일군(日軍)과 싸우다가 부상된 것을 연곡 홍진사(洪進士)의 기별로서 그 자제들이 업고 왔다가 연곡리에서 종신하고 명지리 장지에 모셨다. 현재 현산충훈탑에 그 신위가 진좌하여 호국지신이 되었다.

○ 함홍기(咸鴻基)

관향은 강릉이며 선생은 1895년 3월 25일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서 출생하여 현산 학교를 졸업하고 가사에 종사하면서 왜정식민지 정책에 분개하여 오던 중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3·1독립만세투쟁은 날이 갈수록 강하여졌으며 양양지역의 독립운동은 영동에서도 가장 컸다. 당시 선생은 운동대열의 선봉에서 구국의 독립만세를 외치며 적수공권으로 왜적 경찰서에 뛰어들어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다가 비참하게도 24세를 일기로 왜정의 총검에 쓸어 지고 말았다. 선생은 경찰에 체포되자 어차피 죽을 몸임을 각오하고 “내 할일 다 하겠다.”고 서장실에 돌입, 화로를 들어 서장을 향하여 “죽어라”하고 던졌으나 실패했다. 그 옆에 있던 대석(大石)이란 일본 순사부장과 추산(秋山)의 칼을 맞고 즉석에서 순국하였다.

○ 권병연(權炳淵)

손양면 간리 고개에서 거주하였다.(현재의 위치 : 손양주유소 뒤편 영광건재 자리) 1919년 기미 삼일독립만세운동 당시 선두에서 함홍기 선생과 같이 적수공권으로 양양 경찰서 서장실에 뛰어들어 테이블을 뒤집으며 만세를 외치다 왜정의 총검에 즉석에서 순국하였다. 행정수복후 국민운동 양양군지부에서 함홍기 선생과 권병연 선생의 추모비를 간리고개 7번국도변 잔디밭에 세워 놓았다.

3. 효자·효부·열녀

1) 효자

○ 김수영(金壽永)[명종(明宗) 10년 을묘(1555년) 3월 29일자 명종실록에 실려 있다.]

세종 때 충순위(忠順衛)였던 김공은 부모가 돌아가자 몹시 슬퍼하여 뼈만 남았었지만 채소와 과일도 먹지 않고 3년간 죽만 먹었으며, 또 스스로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지어 자기 손으로 좌우무릎에 자자(刺字)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입계(入啓)하니 나라에서 그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문을 세워주고 복호(復戶)의 혜택을 입은 효자였다.

○ 김경길(金景吉)(1642~1727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적은리에 행적비가 세워져있다. 호는 묵간(默幹), 군기감 효온(軍器監 孝溫)의 후손이다.

14세에 모상을 당하고 어린나이에 3년을 시묘하였으며 시시왕래(時時往來)하며 부친을 문후하였다. 그 후 시묘가 종료되자 부친의 득병으로 고심 중 병환중의 부



친이 오이를 희구함으로 시절은 9월 중추라 오이를 찾아다니니 세인이 왈 “중추에 무슨 오이를 구하느냐 헛수고를 하지 말라.”하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찾아다니던 중 20여 일이 지난 어느 날 홀연히 한 노인이 나타나 오이를 두개 주거늘 뜻밖의 일이라 백배사례하고 머리를 든즉 그 노인은 행방을 감추었다. 이는 반드시 신의 가호라 자각하고 부친께 올렸더니 그 후 병에서 회복되었다. 수년 후에 다시 득병하여 병세가 악화일로에 있을 때 공은 부친의 대변을 감미하고 재생의 희망을 잃었다.[당시 한방에 변이 달면 죽고 쓰면 산다는 것이 있다.]

백방으로 구약하던 중 병중의 부친이 민물고기를 희구하였으나 때는 엄동이라 구하기 힘이 들었다. 그는 빙판을 뚫고 수족을 적시며 개울을 헤매기에 오리지성이면 감천

이라 한 마리의 큰 송어가 빙판위로 뛰어오르기에 이를 잡아다가 부친에게 복용시킨 결과 회생되어 오래 살았다고 한다. 조선 정조 신해년(1791년)에 그의 내용이 왕에게까지 상문되자 어명으로 낙산사 미니실(彌尼室)앞 대로좌변에 비각을 건립하였는데 지금은 강현면 적은리 삼가동에 이건하였다. 이 사적은 현재 양양향교의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기재되어있다.

○ 노경복(盧景福) 관향은 광주이며 양양읍 태생이다. 서흥(瑞興)부사로 유년시 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본래 가난한 가정이므로 잘 먹지 못했으나 대과관주서(大科官注書)를 지냈다. 기한(飢寒)의 고통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 동리에서 효성이 지극하여 음식 물을 주어도 좋은 것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공양하였다. 부친 병이 위독할 때 연령은 10세였으나 하늘을 우러러 부친님 대신해 내가 죽겠다고 맹세하고 손가락을 끊고 흐르는 피를 부친 입에 넣었더니 수일간 회생하였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3년간 계속 시묘하였고 그 후에 모친 병이 위독함에 다시 무명지를 끊어 그 피를 입에 넣었더니 3일간 회생하였다. 또 3년간 시묘하였다. 이 사실이 정부에 알려지자 효자정려(旌閭)를 세웠다.

○ 이휘건(李彙健) 관향은 함평이며 양양읍 태생이다. 부모가 병이 나면 그 분(糞)을 맛보아 그 증상을 감별하여 시약(施藥)하고 부모가 위독할 때는 단지주혈(斷指注血)하고 대신 죽기를 기원하며 신표(神効)를 얻어 회춘(回春)시킨 바 있다.

○ 정희구(鄭熙九)

관향은 초계이며 현남면 태생이다. 13세의 어린나이에 모친의 병이 위독함으로 분을 맛보고 병증을 감증하여 시약하여 병이 낫기를 하늘에 기원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 시묘하였는데 이 사실이 예조에 알려져 계명복호[啓蒙復戶-효자 절부가 난 집]했다.

○ 이범식(李範植) 관향은 함평인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10세 당시 부친의 각기병으로 항상 근심하여 왔으나 그 부친은 침구(鍼

灸)를 맞지 못함으로 먼저 자기 몸에 침을 맞고 땀을 뜨니 부친에게 그 침과 땀이 감전하여 즉시 차도를 보았다. 그 후 부친이 서울에 갔다 오는 도중 병환으로 홍천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험로를 도보로 가던 중 범을 만나 동행하였고 다음날 홍천에 다다른즉 부친은 운명에 가까우므로 손가락을 끊어 주혈하니 회생하였다가 다시 운명하였다. 이 사실로 정려(旌閭)하였다.

○ 이동명(李東明)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동호(東湖)이다. 양희공흥상(襄僖公興商)의 후손이다. 일찍 부모를 여이고 조부가 병에 위독함에 단지하고, 상사에 애통을 다 하였다. 아들 진수(鎭壽)와 더불어 세상에 일문삼효(一門三孝)라고 칭하였다.

○ 장도평(張道平) 관향은 인동이며 숙종조(肅宗朝)에 통정대부(通政大夫)겸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역임하였으며 학문과 덕행이 탁월한 이로서 모친 임종에 즈음하여 단지 수혈로 3일간 더 연명시켰으며 사후 3년간 시묘한 출천지대효(出天之太孝)로서 이 사실이 상문(上聞)에 달하여 명정려(命旌閭)하다.

○ 고응건(高應健) 관향은 제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항상 어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고 효성을 다 하였으며 득병하였을 때는 분을 맛보아가며 시약하고 항상 회복하기를 기원하였으며 천수를 다하자 친상육기(親喪六期)에 이르기까지 시묘사리를 한 사실이 있어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주었다.

○ 이필용(李弼鏞)(1744~1812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부모가 득병하면 불침불식하며 신명을 다하여 간호하였고 부친 병환 시에는 분을 맛보고 하늘에 대신하여 죽겠다고 기원하였다. 모친이 병중에 꿩고기(雉肉)를 원함에 이를 구하고자 정성을 다할 때에 꿩이 스스로 집에 날아들어 왔으므로 이를 잡아 대접하였으며 또 두루미 고기를 원하거늘 형제가 울며 가로되 “이 설한(雪寒)에 어떻게 구할까”하고 흑한을 무릅쓰고 찾아 해매다가 집 뒤편에 갔더니 마침 두루미가 나타나므로 잡아서 공양하였더니 차도를 보이더니 돌연 기절하였는데 그 형제가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더니 회생하

었다. 이런 미행(美行)사실을 조정에서 알게 되자 정려(旌閭)를 명하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의 벼슬을 주었다. 정려문은 6·25한국전쟁 중(1950년 12월 24일) 소실되었다.

○ 이백용(李百鏞)(1756~1818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이필용(李弼鏞)의 동생으로서 친상육기(親喪六期)까지 시묘사리를 하였고, 형(弼鏞)과 동일하게 전후 범사를 행하여 왔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정려(旌閭)하는 한편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의 벼슬을 주었으며 도설전에 올라 있다. 정려문은 6·25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

○ 이종태(李鍾泰) 관향은 함평이며 양양읍 태생이다. 좋은 음식을 구하면 먼저 부모에게 바쳐 효도를 다한바 사후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주었다.

○ 최관식(崔觀植)

관향은 강릉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동생 항식(恒植)과 함께 하늘이 낸 쌍효(雙孝)라고 칭하여 왔다. 그 모친은 조사하고 그 부친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기원하였고 부친이 황어회를 즐겨함으로 얼음을 깨고 황어를 잡아서 공양도 하여 왔다. 백약이 무효로 부친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슬픔이 일구난설(一口難說)이며 장사 전날 밤 꿈에 한 노인이 와서 지시하기를 “흰 사슴이 누운 자리가 있으니 그곳이 명당자리라.”하였다. 이어 꿈에 계시한 대로 명당을 얻어 장사하니 모두들 효성이 지극하여 이런 일이 있다고 했다. 이 사실로 정려(旌閭)하였다. 공이 몰한 후 218년이 지난 후 1979년 12월 공의 후손에 의하여 공이 살던 터에 정려유허비를 세웠다.



○ 최찬대(崔燦大) 관향은 강릉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효자 최항식의 아들이므로 모친

병환 중 손가락을 끊었고 부친병환 중에(8개월 동안 와병) 송어를 원하였으므로 구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한발로 인하여 송어 구하가가 막연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마른 샘터에 두 마리의 송어가 나타나므로 이를 구하여 대접하였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내가 대신하여 죽겠다”고 기원하였고 분의 맛을 보아 병증을 감상 시약(鑑嘗施藥)하였고 또한 임중에 즈음 하여는 손가락을 끊어 주혈(注血)하니 수일간 회생하였다가 백약이 무효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 지극한 효성은 불멸의 귀감이 되고 있다.

○ 이종상(李鍾祥) 관향은 함평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8세 때 부모상을 당하고 그 슬픔이란 말할 수 없었다. 매년 기일에는 주과를 갖추어 묘소에 가서 묘제를 봉하였는데, 그 후 사손(嗣孫)들이 남방에 이사하여 갔는데 나이 이미 칠순이 가까운 몸이라 묘제를 봉하기 어려움으로 자기 방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봉함으로써 정성을 다하던 중 72세 정해년(丁亥年) 제석(除夕)을 맞이하여 성묘 차 노구로 말을 타고 묘소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말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옷을 함빡 적시어 때마침 몰아치는 폭한에 수족이 오그라지면서도 끝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곧 별세하였다. 이 사실로 정려(旌閭)했다.

○ 이광국(李光國)(1710~1789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9세가 될 때까지 보행불능이므로 모친상에 상을 입지 못하였다. 그 후 성장하면서 이것이 한이 되어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비단의복을 입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말하기를 부보생전에 좋은 음식과 수의로 쓰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좋은 음식과 비단 의복을 입겠느냐”하고 평생토록 포의한식(布衣寒食) 간소한 생활로 일관하였다 한다.

○ 이종근(李宗根)(1734~1815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이광국의 아들이로서 그 가통을 계승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이 또한 지극하였다. 부친 병환 시 목욕 재계하고 지성으로 밤낮 기도를 드렸더니 다소의 차도를 보았고 잉어회를 원하므로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하여 공양하여 많은 효험을 보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백약이

무효인고로 손가락을 잘라 주혈 하였으나 하루 밤낮을 더 지나고 드디어 운명하고 말았다. 그 후 모친 위독시에도 손가락을 깨물어 주혈하여 며칠을 더 회생케 하였고 사후 3년 동안 시묘사리를 하여 효행에 본보기가 되었다.

○ 김수형(金秀珩) 관향은 경주이며 현북면 태생이다. 어려서부터 효경이 비범하여 이웃에서 어떤 좋은 음식이 생기면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먼저 받았다. 결혼 후에는 처 김씨와 함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본래 집이 빈한하여 쌀을 구하러 영서에 갔다 돌아오는 도중 한시바삐 부모님께 쌀밥을 대접하고자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험한 산길을 밤중에 넘을 때 난데없는 여산대호(如山大虎)가 나타나 그의 쌀 짐을 빼앗아 그의 집까지 갖다 주었다고 한다. 효성이 지극하여 산신령이 돌보아 주었다고 세인이 칭송하였으며 이사실로 정려(旌閭)하였다.

○ 김진권(金鎭權)(1804~1877년)

관향은 경주이며 서면 태생이다. 서면 상평리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공촌(恭村)이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예의범절이 출중하였을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아버지 섬기기를 내 몸 같이하여 빈한한 가정임에도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으로 봉양하였으며



며 평생을 하루같이 조석으로 잠자리를 보살폈으며 출필고 반필면(出必告反必面)하였으며 양친이 병석에 눕게 되자 팔방에서 약을 구해 시탕하며 천지신명에게 회춘을 빌었으며 잠시도 곁을 비우지 아니하면서 진심탕력시봉(盡心湯力侍奉)하였으나 병세 위독함에 손가락을 잘라 주혈 하였으나 효력 없이 운명하니 예를 갖추어 장사하고 불식어육(不食魚肉)하며 3년 시묘하니 마을에서 효성을 칭송하고 소문이 본부(本府)에 전해져 부사 조일호(趙一鎬)공은 이를 높이 찬양하여 시상하였고 유림에서도 효친실상(孝親實相)을 상주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어사 강란향(姜蘭馨)으로 하여금 정려(旌閭)를 특허하는 동시에 승지 벼슬을 제수하였다.

이에 어당(御堂)과 종문(宗門)에서 상평리(上坪里)앞 노송 옆에 정려(旌閭)를 건립,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1877년 2월 14일 향년 74세로 영민하였다. 1936년 병자(丙子)에 대흥수로 정각[旌閣]이 유실되어 1944년 갑진 4월에 화수대표 김을제(金乙濟)를 중심으로 상평리 조금 지나 서북 오색령으로 가는 국도변 산기슭에 재건하여 유덕을 기리고 있다.

효자각명문 초명노준 자치서 호공촌 갑자생 공효행 탁신훈정성을례 비시공감지절 자유 지노 소무해태년장칠십 련조간우육상초토 총훼지범 종시여일 린향리당 구칭지효 본부 사조공일호 친리본제 초견상작 어사강공란형 특허정각수증승지 기정축칠월이십사일수 칠십사세

광복후갑진사월 일 중건 화수대표 김을제 경주김씨행촌공파진권효자비

(孝子閣銘文 初名魯俊 字致瑞 號恭村 甲子生 公孝行 卓晨昏定省乙禮 非時供甘之節 自幼至老 少無懈怠年將七十 連遭艱憂六霜草土 夷毀之範 終始如一 隣鄉里黨 俱稱至孝 本府使趙公一鎬 親莅本第 招見賞酌 御使姜公蘭馨 特許旌閣壽贈承旨 忌丁丑七月二十四日壽七十四歲

光復後甲辰四月 日 重建 花樹代表 金乙濟 慶州金氏幸村公派鎮權孝子碑)

○ 유희일(俞晦一) 양양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한지라 조선에 당쟁살육이 심함으로 강현면 물치리에 복거(卜居)중 부친이 돌아가시자 여막동사(廬幕凍死) 순효(殉孝)하였으니 그 효절을 마을 사람들이 흠모하여 입사향사(立祠享祀)하였다. 지금은 유허비(遺墟碑)만 존재하고 있다.

○ 조운호(趙雲昊) 관향은 풍양이며 서면 태생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 병환 시에는 기특하게도 젖도 먹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그가 성장하였을 때 하룻밤 홀연히 범이 방에 돌입하여 부친을 물고 달아나므로 쫓아가 꼬리를 잡고 따라가며 나를 대신 물어가라고 외쳤다. 산 밑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범을 쫓고 부친을 구하여 주고는 형적을 감추고 말았다. 귀가하여 부친이 득병하니 분을 맛보고 하늘을 우러러 하루속히 병이 낫도록 기원하면서 항상 효성을 다하여 이 사실로 정려(旌閭)했다.

○ 노서린(魯瑞麟) 노(魯)효자는 군리(軍吏)로서 승덕(崇德) 3년 무인(戊寅)에 부친이 중병 때 백약이 무효하여 운명직전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니 아버지가 회생하였다. 효성이 지극함에 감사의 주청으로 숙종조(肅宗朝)에 정각(旌閣)을 내려 표창하였다.

○ 장도홍(張道弘) 관향은 인동이며 충원공 안세(忠員公 安世)의 후손이다. 가빈하였으나 지극히 효도를 다하고 양친공양에 고기를 낚고 머리를 깎아 양식을 구하여 극진히 시봉하던 중 가족이 동서남북으로 유리리산(遊離離散)하게 됨에 하늘에 부모의 안전과 상봉을 지성으로 기도한 효험으로 재회의 기회를 얻었으며 양친의 연로시까지 성심껏 모시다가 모친 병에 단지하고 또 부친 병에도 단지하니 향리에서 효자라 칭하고 관에서 후호(後戶)를 명하다.

○ 박지의(朴志誼) 관향은 강릉이며 양양군 태생이다. 호를 이재(彝齋)라하고 벼슬은 가선(嘉善)이 되었으며 소생이 독효(篤孝)하여 유령실모(幼齡失母)하고 읍혈과애(泣血過哀)이나 부친은 엄유(嚴諭)하여 불감진정(不敢盡情)이고 부친에게는 효성하는 한편 부친 병에 상분단지(嘗糞斷指)하고 돌아가시니 노모종제(蘆墓終制)하였다. 헌종(憲宗) 승하에 축단옥후(築壇屋後)하고 몸에 상복을 걸쳐 매일 3시 곡배(哭拜)하니 사람마다 그 축단을 가리켜 충신 박모지단(朴某之壇)이라 칭송하였으며 충효를 겸하였으므로 사림(士林)에 포천(褒薦)하여 정각(旌閣)하다.

○ 전시혁(全時赫) 관향은 정선이며 양양읍 태생이다. 부친이 천식병으로 장기간 신음하고 있었는데 항상 근심이 그칠 날이 없고 시종일관 병간호에 힘썼다. 위독할 때는 더욱 불면불휴로 간호에 전력하였으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대신에 제가 죽겠다고 기원하였는데 하루는 의사에게 친찰을 한즉 이 병에는 가장 유효한 약이 백사(白蛇)라 한다. 때는 엄동인데 산과 들에는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하고 설한풍(雪寒風)은 살을 예이는데 어디에서 이 신약을 구한다는 말인가. 눈물을 흘리며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구하던 중 홀연 백사를 가진 자가 나타나므로 후한 값을 지불하고 이를 사서 공양한 결과 신호를 얻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한 탓이라 칭찬하였고 이 사실로 정각(旌閣)했다.

○ 전인조(全仁祚) 관향은 정선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불행하게도 일찍 고독단신의 몸이 되어 양부모를 봉양하던 중 양모가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하였는데 의생이 이끄기를 “인육이 특효라” 고하니 결연히 자신의 고육(股肉)을 베어서 양모에게 제공하니 과연 점차 완쾌하였으므로 그 효행이 부중(府中)에 자자하였다.

○ 전대근(全大根) 관향은 정선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어려서 부친을 잃고 모친을 봉양하다가 득병 위독하니 분을 맞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대신 죽을 것을 맹세하고 기도를 드렸으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시묘사리를 하는 동안 처는 양식을 구걸하여 죽을 대접하기를 3년간이나 하였다. 정사(丁巳) 8월에 국휼(國恤)이 반포되자 묘 뒤에 단을 설치하고 조석으로 분향하고 서쪽으로 사배후(四拜後)에 다시 묘에 가서 곡하니 이를 가로되 효가 충으로까지 행하였다고 하여 유림에서 사유를 부군(府郡)에 보고하여 면(面)으로부터 잡역을 면제하여주었다.

○ 김문경(金文卿) 관향은 경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일곱 살 때에 부모를 여이고 양노모를 모시게 되었는데 성장하여 가사를 돌보게 될 무렵 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자 과거 양육지경이 더욱 간절하여 분을 맞보아 감지하고 월 여간 하늘에 기도를 드렸으며 단지주혈 하였으나 운명하고 말았다. 사망 후 3년간 조석으로 계속 통곡하였으므로 효자라 칭하였다.

○ 손용관(孫龍寬) 관향은 밀양이며 서면 태생이다. 일찍이 부친을 여이고 편모를 봉양하여 오던 중 모친 병을 수개월동안 간호하여 왔다. 빈한한 가정이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공양하고 모병이 위독하여 단지주혈 한즉 감았던 눈을 떴다가 다시 절명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향리에서는 부군(府郡)에 보고하였더니 부(府)에서는 오위장(五衛將)이란 벼슬을 주었다.

○ 김상우(金商宇) 관향은 경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부사 계황후인(繼黃后人)이라 어려서부터 출천지효(出天之孝)라고 하였으며 모병 위증함에 이르러 모의 소원으로 설

한풍중임에도 산에 가서 약을 구하고 설빙 중에 고기를 얻어 공진(供進)하니 잠시 쾌차하였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효성에 감탄하였으며 그 후 모상에 시묘 3년을 지냈더니 그 효도는 후세에 전하여오고 정조대왕(正祖大王)께 상문(上聞)하여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증(贈)하였고 정각(旌閣)을 명하였다.

○ 오명근(吳命根) 관향은 해주이며 현북면 태생이다. 어려서부터 온량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이 득병 시에는 온갖 노력으로 약을 구하여 바쳤고 병이 중태에 이르자 분을 감상하고는 하늘을 우리러 대신하여 죽겠다고 기원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함으로 단지하여 주혈 하였더니 회생하였다. 이 사실을 향리에서 부에 보고하였다.

○ 이설기·최순영(李肅起·崔順英) 관향은 미상으로 손양면 태생이다. 양인은 부부로 적빈한 가정에 양자로 입양하였으며 평소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양부가 장기간 외병하였을 때 염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양하였다. 특히 왜정말기 평민으로는 구하지 못하는 우육을 자기 집에서 사육하던 소를 관의 눈을 피해 밀도살하여 공양하였다. 당시 양양군수로부터 효자표창을 받았다.

○ 이동주(李東柱)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8세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성인처럼 애도하였다. 부병 시에는 분을 감징(鑑澄)하고 하늘을 우리러 대신 죽을 것을 맹세하고 기원하였으나 절명에 이르렀으므로 단지주혈 하여 연 1일이나 경과 후 사망하였다. 그리고 3년 시묘하였으므로 부영(府營)에 보고하였다.

○ 김도경(金燾卿)(정해~무자)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부친이 풍병에 걸렸으므로 하늘을 우리러 대신 죽겠다고 기원하였고 또 공양물로서 설중에 하충 생치 선어 감과(夏虫 生雉 鮮魚 甘果)등을 구하여 대접하였다. 거상 6년에



어육을 불식하고 시묘사리 중에는 범이 3년간이나 나타났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묘사리를 계속하였다. 이 사실을 관에 보고하자 동몽교관(童蒙敎官)의 벼슬을 주었다.

○ 김건수(金健秀)

관향은 연안이며 손양면 태생이다. 부친 병환 시는 분의 맛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대신 죽겠다고 기원하였으며 절명하게 되자 단지주혈 하여 회생되어 2년이나 연명했다. 그 후 다시 득병하였을 때 그의 둘째 동생 윤진(倫秦)이 단지주혈로 회생하였다가 세상을 떠났다. 건수의 아들 사윤(思潤)이 모친 병환 시에 단지 건수의 처 평해황씨(平海黃氏)가 지아비 병환 시에 단지 윤진의 아들 사순(思舜)이 부친 병에 단지 건수의 질부 강릉최씨(江陵崔氏)가 지아비 병환에 단지하였으므로 모두가 이르기를 이세 사효이열(二世四孝二烈)이라 하였다. 고종 임진(高宗 壬辰 1892년)에 정려각을 내려 표창하였다.

○ 김유종(金有宗)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당년 10세시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절차범절이 뛰어났다. 모병 위독 시에는 급수(汲水)하여 하늘에 기도하고 그 물로 약을 다려드리고 분으로 병증을 감정하고 단지주혈로 회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 엄성모(嚴誠模) 관향은 영월이며 현남면 태생이다. 효행이 돈독하여 부모봉양에 지성을 다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의대를 풀지 않고 시묘살이 3년 동안에 기이하게도 범이 와서 함께 돌보아주었으니 이는 철천지효로 이루어졌다고 향인들이 일컬었고 이 효행으로 정려했다.

○ 김용기(金龍起) 관향은 미상으로 그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와 같이 효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큰 종기로 여러 해 동안 앓던 중 쇠고기만 먹고 싶어 하여 땔나무를 해다 소 잡는 집에 주고 쇠고기를 얻어 대접하였으며 당시 소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부득이 그의 처 김씨가 시집을 때 해온 옷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뒤란에서 잡아 대접하고 남의 집 방아품 등을 팔아서 3차례나 대접하면서 하늘에 축원하니 약을 쓰지 않고도 병이 나았다.

○ 신병묵(辛炳默) 관향은 영월이며 현남면 태생이다. 효행이 특출하여 지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여 향리에서 효도의 귀감으로 칭송이 높았다.

○ 장진학(張震學)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15세 때 모친 병에 하늘을 우러러 대신 죽겠다고 기원하고 분으로 병을 가정하고 단지주혈 하였다. 사망 후에는 3년 동안 시묘사리를 하였으므로 잡역면제의 은전을 받았다.

○ 장도천(張道千)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당년 17세에 노모병의 간호를 극진히 하였으며 병상 위급함에 단지주혈 하였다.

○ 이진수(李鎭壽) 관향은 경주이며 동명(東明)의 아들로써 증조모가 위독함에 의사를 부르러간 사이에 단지주혈 하니 회생하여 10년을 더 살았다. 향리에 효자라 칭하였다.

○ 이종윤(李宗閔) 관향은 경주이며 진수(鎭壽)의 자로서 모친 병에 하늘에 기도하며 항상 변을 맞보아 병세를 알아보고 병이 위독함에 단지주혈 하니 며칠 더 살았다고 한다.

○ 이상익(李相益)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평소 양친 봉양에 지성을 다하다가 부친 임종에 단지주혈하고 3일간 단식 통곡함으로 효자로 칭송하였다

○ 김현기(金顯基) 관향은 연안이며 서면 태생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조반을 하지 않고 동리 밖을 나가지 않았다. 부모가 80세 때 원방에 있는 친척집에 가고 싶다하여 업고 왕래하였다고 한다.

○ 김철기(金澈紀)(1871~1942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천성이 온후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모친이 안질로 두 눈이 실명함에 매일 밤 자정에 목욕재계 후 모친의 개안을 하늘에 기도하기를 3년 계속하였으나 효력을 보지 못하였고 밤낮 모친 곁을 떠나지 않고 희락담소로 모친을 위안하였으며 별세 후는 비바람 불구하고 3

년간 아침저녁 곡을 계속하였으므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 김진구(金振龜) 관향은 강릉이며 모친 병이 위독하였을 때 단지주혈로 7일간 더 연명하였다. 별세 후 3년 시묘 중 어떤 때는 사흘 밤 계속하여 백호가 묘 앞에 와서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울어댔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통하게하니 범 역시 효성이 지극함에 감복하여 스스로 물러갔다.

○ 장진백(張震白)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모친 병환 때 단지주혈로 3일간 다시 소생하였으며 별세 후는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조선조 숙종(肅宗) 승하 시에 집 뒤에 단을 쌓고 매일 밤 통곡을 3년간 계속하였다. 유생들이 어사에게 보고하여 크게 상을 내렸다.

○ 추만구(秋晩求) 관향은 추계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모친의 병환에 매일 밤마다 하늘에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기도하였고 임종에 단지 주혈한 반 3일간 희생하였으므로 향리에서 효자라 칭하였다.

○ 탁인헌(卓仁憲)(1878~1932년)

관향은 광주이며 현북면 태생이다. 자는 응순(應淳)으로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했음에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 강릉김씨(江陵金氏 1851~1894년)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집안 살림에도 부친 운발(雲發, 1846~1913년)의 건강을 위해 송아



지를 잡아 장복케 하였으며 남의 집에 초대되어 갈 때에는 보자기를 준비하여 자기가 먹기 전 깨끗한 음식을 골고루 가져다 부친께 드렸다. 또 1년 동안이나 병상에만 누워 메밀국수만을 찾는 부친을 위하여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을 마다하지 않고 겨울에는 동치미 국물에 여름에는 샘물로 국수를 장만하여 대접하는 등 부친의 여생까지 공경했다고

한다. 동생 인준(仁俊)과 제수 달성서씨(達城徐氏)도 효성이 못지않았다고 한다.

공의 효자각(孝子閣)은 현북면 법수치리 산6번지 산비탈 길가에 1932년 임신(壬申) 8월 7일에 세워졌으며 그 길을 지나는 수많은 피서객들의 눈길을 머물게 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각명되어 있다.

〈앞면〉 효자 통훈대부임중추원의관탁공인헌지비

(孝子 通訓大夫任中樞院議官卓公仁憲之碑)

〈뒷면〉 배정부인강릉최씨 장자두한 부남양홍씨 차자재한 부달성서씨

(配貞夫人江陵崔氏 長子斗翰 婦南陽洪氏 次子在翰 婦達城徐氏)

장손주환 손주영 손주백 임신년 팔월 칠일(長孫周煥 孫周榮 孫周白 壬申年 八月 七日)

○ 윤형중(尹衡重)(1897~?)

관향은 파평이며 자는 사빈(士彬)이다. 호는 총구(總九)로 현북면 법수치리 가난한 집안 궁내부주사(宮內府主事) 한병(翰炳)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봉(參奉) 이종서(李鍾瑞)의 딸 전주이씨와 혼인하였다. 두 분 내외 일심(一心)으로 뜻을 같이하고 자



식들과는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면서도 평생 부모에게는 험한 음식과 남루한 의복은 드리지 않았다. 오로지 부모를 잘 봉양하는 즐거움을 생활신조로 이웃에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 병환 위독할 때 변을 맛보아 병세를 진단하고 단지주혈로서 잠시나마 연명케 하는 등 그 효행이 지극하였으므로 그 효행과 덕행을 향리에 널리 알려 기리게 하고자 1928년 9월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중간연원유림향약본소(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淵源儒林鄉約本所) 전원합의에 의한 완의문(完議文)을 내려 효자각(孝子閣)을 세우게 하였기 그해 12월 상순에 자헌대부의정부찬정장례원경 원임시강원첨사 완산 이재현(資憲大夫議政府贊政掌禮院卿 原任侍講院詹事 完山 李載現撰)이 비문을 지어 현북면 말곡리 98-8번지에 파평윤공형중효행지비(坡平尹公衡重孝行之碑)의 효자각을 세워 기리고 있다.

○ 박양운(朴良雲)(1598~1681년)

관향은 밀양이며, 대과승지(大科承旨)를 지낸 청렴한 주(籌)의 아들로 원명은 수운(守雲)이고 양운(良雲)은 초휘(初諱)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인제현 합강촌에 묘소를 설치하고, 어머니 평창이씨(平昌李氏)를 모시고 양양으로 입향하였다. 광해



9년 정사(1617년)에 진사가 된 박공은 어머니가 백약이 무효인 중병에 신음하니 단지주혈로서 마지막 효성을 다하였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니 조정에서는 효자정려하는 한편 가선대부성균관교관(嘉善大夫成均館敎官)의 벼슬을 내렸다. 공의 사후 효자노직가선대부박량운지비(孝子老職嘉善大夫朴良雲之碑)와 효자각을 양양부 남면 하판교리(襄陽府南面下板橋里) 동구 길가에 세웠었다. 이곳은 손양면 하왕도리로서 7번국도 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그 자리에서 수십 보 떨어진 길 위쪽 산언덕에 비석만을 옮겨 세워놓았다.

2) 효부

○ 최창익 처 전주이씨(崔昌翼 妻 全州李氏)

효부(孝婦)인 전주이씨는 반가(班家)의 가문에서 아버지인 통덕랑(通德郎) 제항(齊恒)과 어머니 파평윤씨 사이에서 1751년에 출생한 바 일찍이 양친을 여의고 강릉 향호리 외가[초계정씨]에서 성장하였다. 22세 때에 18세 연상인 최창익(1733~1789년)의 계실(繼室)로 혼인하였다. 계실이 된지 12년 만에 아들 용필[龍弼(1784~1853년)]을 낳았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언서(諺書)로 필사한 소학(小學) 내측(內則)등을 잠교(箴敎)함으로써 부학(婦學)과 부덕(婦德)을 쌓았다. 위천 상하방(渭川 上下坊)[양양읍 사천리 조산리]에 일정한 전답과 노비를 소유하였으며 노비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젖을 먹여 키우는 은혜와 성숙된 위엄의 자세를 보였고, 결혼 초부터 길쌈하여 옷감 짜는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이는데도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매년 곡식을 판매하여 가용(家用)을 취했으

며, 비록 궁색한 살림이었으나 가난으로 인해 남을 원망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이 의연한 생활 자세를 보였다. 시부모도 돌아가신 후에 정혼한 처지였으므로 양가 부모를 모셔보지 못한 것을 불효라 한탄하며 절일(節日)과 기일(忌日)에는 정성을 다해 치제(致祭)하니 동리에서 모두 감탄하는 모범을 보였다. 결혼 17년 만에 미망인이 된 이씨의 생활은 불안정한 소농경영(小農經營)이었으며, 1783~1784년의 풍수충(風水虫)의 재해로 혹심한 가난에 이어, 전처의 아들 한필(漢弼)마저 잃었으니 고통이 가중되는 와중임에도 이웃이나 친척이 눈치 채지 못하게 안빈한 자세로 생활한다. “가난은 병이 아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자식이 배우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하여 가족의 화목과 자식의 교육을 중시하면서, 호탕하게 웃고 즐기는 자리는 기피하고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집안의 일이 밖으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언서에 능통하여 인척간 편지로 문안하고 타인의 편지도 대필해주는 선의를 베풀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어미가 있으면서 교육시키지 아니함과 어미가 없음이 무엇이 다르며, 자식이 있으면서 배우지 않는 것과 자식이 없는 것이 무엇이 다르랴. 어미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배우지 아니하면 살아도 이로울 게 없으니 죽은 들 또한 무엇이 애석하랴.”는 전주이씨의 교육관은 “사랑하고도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의 사랑일 뿐”이라는 임윤지당(任允摯堂)의 사고나, 성리학적 선이나 의리를 권면하였던 정부인 안동장씨(貞夫人 安東張氏)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세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들 용필을 종부(從父) 창적(昌迪)·홍천현감, 동몽교관이 개설한 학당에 입문시켜 학문을 수학하게 하여 생원(生員)이 되게 했다. 머리카락이라도 부모의 유체(遺體)인데 어찌 우의(牛衣)나 마천(馬韉)에 쓰라고 여상(女商)이 가져온 얼레빗이나 바늘쌈 등과 바꾸겠는가. 라며 명분을 지켰다. 1822년 72세로 생을 마감 할 때까지 특히 33년간의 미망인으로서의 정렬(貞烈)의 행장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였으며 조선시대 여성 지식인들의 보편적 사고의 표상으로 조명된다.

○ 장도원 처 경주김씨(張道元 妻 慶州金氏)

의부 김씨(義婦 金氏)는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승하하자 국호가 반포된 3년간 망곡(望哭)하였으며 매월 삭망 시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곡배(哭拜)하였으며 3년간 어육불식

(魚肉不食)하였으므로 군에 보고하여 비를 건립하였다. 2005년 4월 양양지역의 대화재 때에 충렬각(忠烈閣)이 소실되고 열화로 비석도 많이 훼손되었으나 후손들에 의해 2006년 2월 11일에 충렬각을 중건하여 기리고 있다.



○ 정연옥(鄭然玉)(1895~1992년)

관향은 연일(延日)이며 양양읍 남문리에 거주하였다. 이인수(李寅洙 全州人)의 처로 강릉 정석화(鄭錫和)씨의 장녀로서 원래 그 성품이 온순하고 예의범절이 출중한 여성으로서 18세에 출가하여 단 3개월간 안락신정(安樂新情)한 생활을 영위할 무렵 불행하게도 그의 남편이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후 청상(靑孀)의 몸으로 궁한 생활을 지속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20청춘시절부터 청죽 같은 절개로 수절하면서 그의 신념은 삼강오륜의 미풍양속이 퇴색된 이때에 여성의 귀감이 되기에 족하므로 강원도지사 및 경찰국장으로부터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1951년에는 대한부인회 양양군지부 초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부녀계몽운동, 문맹퇴치자선사업, 낙산보육원을 설립하여 보육사업에 일생동안 헌신하다가 1992년 5월 27일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김현세 처 경주인(金顯世 妻 慶州人)

가세가 극빈하였으나 한탄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였으며 남편에의 공경도 지극하였다. 시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백약무효하여 차도를 보지 못하였는데 인육(人肉)이 특효라 하므로 자기 허벅지의 살을 베어서 복용시켰더니 즉효를 보았다고 한다.

○ 김용기 처 경주김씨(金龍起 妻 慶州金氏)

강현면에 거주하였으며 부인은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부환대중(父患大腫)으로 수년간 신음하여 오던 중 쇠고기를 원함으로 여자의 몸으로 산에서 나물을 하여

이를 팔아 쇠고기를 공양하였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도살금지령이 엄하게 내려 쇠고기를 사기 어려웠는데 마지막에는 혼수를 팔아 소를 사서 밀도살하여서까지 대접하였다.

○ 김수형 처 강릉최씨(金秀珩 妻 江陵崔氏)

현북면에 거주하며 부인 강릉최씨는 시부모에 효행이 지극하였다. 그 부친병환 시에 손가락을 잘라 주혈 하여 희생하였으나 다시 병들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죽으려 하였으나 참고 오직 남은 분들에게 더욱 효행을 다하였으며 조발세면(調髮洗面)도 하지 않고 3년간을 지냈다. 따라서 효열이라 칭하고 정각(旌閣)하였다.

○ 박철선(朴鐵鮮) 관향은 밀양이며 양양읍 군행리 이상호(李相浩)의 부인인데 효성이 지극한 근세의 모범인이다. 가정은 빈곤하고 자녀가 많은 대가족으로 나이 많으신 시부모를 모시고 지성을 다하였다. 시아버지는 반신불수로 기거가 여의치 못하고 대소변의 처리도 손수 가려주며 노망한 시어머니는 횡설수설 착란을 일으켜도 이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시봉에 정성을 다하였다. 따라서 효열이라 칭하고 정각(旌閣)하였다.

○ 윤상범 처 밀양박씨(尹相範 妻 密陽朴氏) 부인 밀양박씨는 시부모에 효행이 지극하였다. 시어머니 병에 낫에는 약을 대접하고 밤에는 하늘에 기도하고 시아버지는 학질병으로 3년간 신음 중 백약이 무효라 인육이 특효하다기에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이것을 개고기라고 속여 복용시켰더니 즉효를 보았다. 그 후 자부가 운명에 즈음하여 왼쪽 허벅지살이 베어진 흔적이 있기에 그 연유를 물음에 전기 사실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망하였다. 그 효행을 관에 보고하여 고종(高宗)때에 정각(旌閣)표창하였다.

○ 권오옥(權五玉)

강현면 사교리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사별 후 청춘으로 40여 년을 수절하면서 오직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고 시동생들의 양육과 교육에 힘쓴바 크므로 그의 효행이 부녀들에게 귀감이 되므로 1965년 1월 5일 대한민국 교육자치제 실시 1주년기념일에 즈음하여 양양군교육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 최병숙(崔炳叔) 서면 서림리에 거주하면서 최여사는 고 김주학(金柱鶴) 교사의 아내로서 일찍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또한 교직자의 아내로서 언행과 자녀교육에 있어 인근주민의 모범이 되었다. 애석하게도 남편 사별 후 5남매를 거느린 그는 행상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진학시키는 한편 매사를 행함에 있어 부녀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1967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양양군교육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 홍춘옥(洪春玉) 양양읍 월리에 거주하면서 홍여사는 17세 때 신재순(辛在舜)에게 출가하여 가정이 빈곤하여 부군은 양양광산에 취업하고 시아버지 신지묵(辛芝默)은 반신불수의 불편한 몸으로 행상을 하면서 가계를 도와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고 성심껏 시아버지를 봉양하여 왔다. 9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전신불수가 되어 음식도 못 들고 대소변도 누워서보는 불구가 되었다. 시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성의를 다하였다. 맛난 음식이 생기면 아들들이 빼앗아 먹을까봐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왼쪽에 끌어안고 시아버지에게 대접하였다. 이 담량세태(淡涼世態)에 더럽다 여기지 않고 괴로운 빛없이 효성을 다한 거룩한 천출(天出)의 효부로서 1974년 3월 1일 양양군수의 효부표창을 받은 25세의 꽃다운 청춘효부로서 높이 평가받았다.

3) 열녀

○ 김윤항 처 이씨(金允恒 妻 李氏) 정조(正祖) 6년 임인(1782년) 5월 10일자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양양지방의 열녀였다. 관동어사(關東御史) 이기(李夔)가 조사하여 여러 차례 상신하였으며 그녀의 효행과 절개를 기리기 위해 예조(禮曹)에서 포상하고 그녀가 살던 마을에 정표(旌表)를 세웠었다.

○ 김상우 처 정선전씨(金商祐 妻 旌善全氏) 전씨의 열녀각은 손양면 상운리에 있다. 대양의 파도소리가 사시 들려오고 상운벌을 앞에 둔 아담한 이 마을 산중턱에 아름다운 미덕을 간직한 열녀각이 서있다. 이 열녀각의 유래인즉 경주 김공 규경씨가 젊은 나이에 병고로 신음하며 고생하였다고 한다. 부인 전씨는 양양에서 자라 출가하였으나

불행히도 남편 김씨가 병에 시달려 고생하게 되니 가정형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점의 혈육도 없이 애석하게도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모시고 한없이 울다가 생존 시에 입었던 의복을 깨끗이 세탁하고 집안을 청소한 뒤 제삿밥을



2인분이나 장만하여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 다음 송죽같이 굳은 절개를 지닌 그녀는 장례전일 목을 매고 32세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따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다음날 함께 장례를 지내게 되니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 후 그 집안 김씨 일가와 동리 사람들의 주선으로 고종 31년 갑오(1894년)에 열녀각을 세우니 그의 아름다운 부덕은 노송 두 그루와 함께 지금도 찬연히 빛나고 있다.

○ 장지협 처 제주고씨(張志協 妻 濟州高氏) 고씨의 열녀비는 강현면 방축리 노변에 있다. 인동 장공 지협은 처 열녀 제주고씨는 조선조 영조 때의 사람으로 21세에 사망하였다. 18세에 출가하여 19세에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3년간 시묘살이하고 집에 오니 아무도 없어 쓸쓸히 슬픈 날을



보내던 중 이웃에 사는 최씨가 재산과 권세를 믿고 성군작당(成群作黨)하여 강제로 묶어 갔다. 이에 고씨는 일편단심 남편을 따르겠다는 굳은 절개로 우물에 빠져 죽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비수를 찾아 목을 찔러 많은 피를 토하고 순종(殉從)하였다. 사망 후 7일간 옥상에 광채가 났다하여 순조께서 정각(旌閣)했다. 그 후 그 종가는 침체되어 다른 곳으로 뿔뿔이 헤어지고 지금은 소식조차 없으며 몇 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에 이를 가늠히 여겨 인동 장씨 종친결의로 1963년 열녀비를 건립하였다. 강원도지에 기록되어 있다.

○ 김병경 처 경주이씨(金炳經 妻 慶州李氏) 이씨의 효열녀각은 강현면 물갑리 [영광정]에 세워져있다. 경주이씨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시모의 중기병에 수충(水蟲)이 최효라 함으로 설중에 우물물을 푸니 수충이 그 속에 있으므로 이것을 복용시켜 차도를 보았다. 또 지아버가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고 인육이 최효라하여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달여서 복용시킨바 7일을 더 연명하다가 사망하니 대는 순조(純祖)말이다. 그녀의 부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1856년에 정려를 세워 표창하였다.



○ 김필제 처 진주강씨(金弼濟 妻 晉州姜氏) 강현면에 거주하던 진주강씨는 지아버가 병이 극심함으로 단지주혈하니 회생하였다가 사망하였다. 장사를 마친 후 과거에서 돌아온 시숙에게 이 사유를 알리고 수의를 입고 자결하였다.

○ 장익기 처 경주이씨(張翼箕 妻 慶州李氏) 양양읍에 거주하던 경주이씨는 양양사람으로 지아버가 병이 위독하여 단지주혈 하였으나 천도무심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코자 하였으나 70노시어머니와 9세 고아가 있으므로 자결치 못하고 가난한 형세에도 늙으신 시어머니 공양에 또한 지극하여 이웃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엄훈양육하고 부도(婦道)로서 후세에 귀감이 되었으며 고종조(高宗朝)에 상문하여 입비(立碑) 명정려(命旌閭)하였다.

○ 이명춘 처 경주김씨(李明春 妻 慶州金氏) 손양면에 거주하던 경주김씨는 남편 장사날 쓰러져 따라 죽으니 합장하였다. 이 사실로 고종2년 을축(乙丑, 1865년)에 정려했다.

○ 조규남 처 파평윤씨(趙奎南 妻 坡平尹氏) 파평윤씨는 남편이 사망하니 그 즉시 쓰러져 따라 죽으니 합장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고종 15년 무인(戊寅, 1878

년)에 정려했다.

○ 박수린 처 파평윤씨(朴受麟 妻 坡平尹氏) 양양읍에 거주하던 파평윤씨는 남편의 운명에 임하여 단지주혈 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이 사망하였다. 애통한 정을 금할 수 없는 그는 조발과 세면도 안하며 어육을 먹지 않고 죄인의 마음으로 삼상을 치루고 자결하였다. 이 사실로 고종 때 정려를 내렸다.

○ 전상우 처 정선전씨(全商祐 妻 旌善全氏) 정선전씨는 남편 장삿날 전날 밤에 수의를 준비하여 상여에 매달려 슬프게 죽으니 합장하였다. 이 사실로 정려하였다.

○ 김재구 처 광산김씨(金在龜 妻 光山金氏) 광산김씨 동호명(東湖明)의 딸로서 남편의 병에 단지 수혈하니 회생하여 평생 동안 경순화락(慶順和樂)의 도로서 살아 향리에서 그 부덕을 칭송하였다.

○ 김창경 처 안동김씨(金昌卿 妻 安東金氏) 김용근(金溶根)의 딸인 김씨는 남편의 병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기도하였고 운명 시에는 단지급혈 하여 3일 연명하는 신호를 보았다. 향리에서는 열녀로 칭송하여 군읍(郡邑)에서는 표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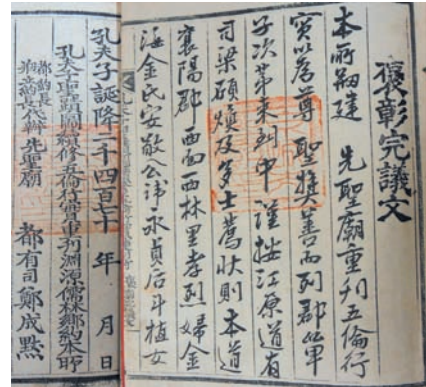
○ 김진인 처 횡성진씨(金振仁 妻 橫城陳氏) 진씨는 나이 20세에 남편의 죽음을 당함에 단지 수혈하여 반일 연명하였다가 결국 사망하니 동시 자결코자 수일간 음식을 전패하고 밤에 뒷편 감나무에 목매었으나 집사람들에 발각되어 자살미수하였다. 열녀로 칭송이 자자했다.

○ 김현필 처 횡성진씨(金顯弼 妻 橫城陳氏) 진씨는 20세 때 남편의 임종에 단지주혈 하였으나 기적이 없어 동형동사(同穴同死)를 꾀하였으나 시모의 만류로 죽지 못하고 종신효도를 다함으로 향리에서 열녀로 이름이 높았다.

○ 김현겸 처 강릉최씨(金顯謙 妻 江陵崔氏) 강현면. 최씨는 26세에 남편이 우연히 득병하여 임종하려함에 단지주혈 하여 열녀로 칭송을 받았다.

○ 김상범 처 김해김씨(金商範 妻 金海金氏)(1845~1923년)

김씨는 김두식(金斗植)의 딸로 서면 서림리에 사는 3년 연하인 경주김씨 상범(商範)(1848~1866년)과 혼인하고 일찍이 아들 원제(元濟)와 딸 《밀양박씨 용호(密陽朴氏 容浩)에게 출가》을 두었는데 19세 어린 남편이 우연히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고 위독하여 단지주혈로서 3일간 연명시켰으나 하늘은 무너지고 말았다. 30여 년을 하루같이 시부모 봉양과 자식 보육에 온 정성을 다 바쳤다. 애통하게 시부모 상을 당해서 상례(喪禮)에 어긋남 없이 상기(喪期)를 마쳤으니 고금(古今)에 드문 김씨의 효열은 지극히 훌륭한 행위였으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1919년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중간연원유림향약본소(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淵源儒林鄉約本所)에서 포창완의문(褒彰完議文)을 내려 효열부(孝烈婦)로 표창하였으며, 김씨의 수절(守節) 57년 세월은 송백(松柏)같이 곧고 아름다웠다. 2009년 김씨의 현손 규병(圭秉)이 서림리에 모셔져있는 김씨 묘 앞에 ‘효열부김해김씨숭모비(孝烈婦金海金氏崇慕碑)’를 세워 기리고 있다.



포창완의문

○ 김사륜 처 파평윤씨(金思倫 妻 坡平尹氏)(1864~1940년)

윤씨는 윤원병(尹元炳)의 딸로서 손양면 주리에서 자라 연안김씨 무골댁 사륜(思倫)(1862~1880년)과 정혼하였다. 결혼식날 남편이 갑자기 기절함으로 신부의 몸으로 즉석에서 단지주혈 하니 회생하여 1일 더 연명하였으나 끝내 운명하였다. 그 후



시부 김병수(金秉秀)가 말하기를 “비록 혼례식은 올렸으나 종신토록 청상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개가를 권했으나 불응하고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정렬(貞烈)을 지켰었다. 손양면 상왕도리 동구 우측 외진 곳 풀숲에 열녀비만 쓸쓸히 서있다.

○ 김동기 처 경주김씨(金東起 妻 慶州金氏)

현남면에 거주하며 김씨는 출가한지 1년 만에 남편이 병사함에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시부모를 위로하며 장례를 순조롭게 마치고 나서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집 뒤에 나가서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르니 세인이 열녀라 칭송하였다.

○ 이성녀(李姓女)

관향은 경주이며 서면 서선리에 시집온 후 부모공양에 남달리 극진하여 이웃사람들의 본보기로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병들어 3여년을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보람 없이 숨지게 되자 손가락을 끊어 남편의 입에 넣어 잠시나마 되살아나게 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 26세의 젊은 나이로 53세에 이르기까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수성가하여 두 아들과 5남매의 손자를 거느리고 다복하게 살았다.

○ 김시배 처 김씨(金時培 妻 金氏) 남편의 병이 낫기를 하늘에 지성으로 기도하였으나 끝내 사망하기에 이르러 같이 묻히기를 꾀하였으나 어린 아이가 있어 뒤를 이어가야 할 생각으로 참고 견디며 시아버지를 극진히 공양하여 효성을 다하였다. 아이 교육에 정성을 기울였으므로 유도회에서 부덕을 찬양하여 표창하였다.

○ 김종탁 처 윤재열(金鍾卓 妻 尹在烈) 강현면에 거주하며 파평윤씨 재열(在烈)은 결혼한 지 1년도 안되어 남편이 반공의거로 괴뢰군에 감금되었으나 남편대신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효성을 다하므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 노택경 처 강릉최씨(盧宅慶 妻 江陵崔氏) 손양면에 거주하며 노씨택에 출가하여 시부모를 섬기는데 효성이 지극하였다. 남편이 병이 들자 하늘을 우러러 대신 죽겠다고

기도를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로 3차례나 손가락을 잘라 주혈 하여 잠시 회생하였다가 사망하였다. 눈물로 한탄하면서 5일간이나 굶어 기진맥진하므로 노인들의 권유로 먹기를 시작하였으나 3년간 조발 세면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로 정려했다.

○ 손병하 처 영월엄씨(孫炳夏 妻 寧越嚴氏)

강현면에 거주하며 30세에 남편이 우연히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여 임종 시 손가락을 잘라 주혈한 바 일시 회생하였다가 결국 운명하니 관에서 열부로 표창하였다.

○ 오동선 처 연안김씨(吳東善 妻 延安金氏)(1815~1876년)

김씨의 행적비각이 현북면 상광정리에 세워져있다. 김씨는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남편이 인후병으로 빈사상태에 빠지자 단지주혈로 일시 회생하였으나 곧 약년(弱年) 19세로 별세하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안은 그녀는 22세로 남편을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차마 죽



지 못하고 송죽 같은 절개로 오직 아이가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다 때가 됨에 “내가 죽거든 남편 옆에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62세에 자결하여 남편 뒤를 따랐으며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하였다. 그의 현손 오세덕(吳世德)의 청에 의하여 1978년 4월 양양군수 최계명(崔桂明)이 비문을 새로 지었다.

○ 오진근 처 김해김씨(吳鎭根 妻 金海金氏) 김해후인 김명식(金明植)의 딸로서 성품이 단아하고 16세에 시집왔으나 미구에 남편이 병들어 명재경각(命在頃刻)하니 팔의 살을 도려내어 화약(和藥)하여 먹이는 살신지성(殺身之誠)을 다하였다. 그러나 드디어 절명하니 그 장일에 또한 죽으려 하였으나 친척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20년간 시부모를 효성으로 공양하였고 양자를 친자식같이 의로 가르치고 준엄히 치가 하니 그 명성이 마을에서 자자하고 관부에서 그를 포상하였다.

○ 이호교 처 밀양박씨(李鎬敎 妻 密陽朴氏) 손양면에 거주하며 박씨는 시부모에 효성이 지극했다 남편이 빈사지경에 이르자 단지주혈하였으나 한나절을 연명하다가 사망했다. 이 사실로 정려했다.

○ 이제설 처 김순례(李濟說 妻 金順禮) 양양읍에 거주하며 관향은 경주다. 22세에 이제설과 결혼하여 금슬이 좋았다. 3년이 되든 봄에 남편이 우연히 병이 들어 한 달간 신음 중 혼수상태에 이르고 죽었다. 김씨는 가족 모르게 후원에 나가 왼손 무명지를 절단하여 그 피를 꼭 다문 남편의 입을 벌리고 넣어주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약 30분 소생하여 그 후 84세로 신사(神死)하였다.

○ 이병용 처 경주김씨(李秉龍 妻 慶州金氏) 김상항(金商恒)의 딸로서 시어머니 남씨(南氏)가 채홍지조(彩虹之兆)가 있어 시부모가 모두 하세하고 시조부모가 있어 아침저녁으로 공양을 극진히 하고 거상에 지성을 다하였다. 남편은 벼슬길에 올랐으나 김씨는 치가와 교아에 지엄하고 근검으로 문호를 빛내니 그 명성이 자자했다.

○ 정용관 처 평산신씨(鄭用寬 妻 平山申氏)

비각이 서면 장승리에 세워져있다. 신씨는 본래부터 행실이 착실하였다. 남편이 서당에서 돌아올 때 범이 물어갔다. 사람들은 전율과 공포로 우왕좌왕 할 뿐이었으나 신씨는 범을 추적하여 깊은 산까지 들어가 남편의 시신을 찾아 혼자 시신을 안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있는 곳으로 왔다.



시신을 집까지 운반하여 방안에 안치한 후 방안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들어가 보니 액사(縊死)하였다. 이 사실로 정려했다. 이 비각은 오랜 세월로 낡은 것을 양양광업소에서 재건 단청하였다.

○ 함만춘 처 횡성진씨(咸萬春 妻 橫城陳氏)

열녀비가 손양면 가평리에 영조 8년 입자(1732년) 3월에 세워져있다. 횡성진씨가 친가에 다녀오다가 청천벽력으로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부음을 듣고 집 앞 연당에 투신 익사하여 합장하였다. 가평리에 열녀 함만춘 처 진씨지비(烈女 咸萬春 妻 陳氏之碑)와 묘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 모를 잡초만 무성하여 옛 고절과 세상의 허무함을 말하여 주고 있다.



○ 장을생(張乙生)

강현면 둔전리에 1976년 11월 30일에 열녀 인동장씨지비(烈女仁同張氏之碑)가 세워졌다. 장을생은 16세에 간곡리 최식민에게 시집와서 극진히 시부모와 남편을 섬겼다. 21세 때 남편이 중병에 걸려 회생이 불가능하고 죽음의 찰나에 단지주혈로 완전히 회생시켜 3남 1녀를 두고 해로했다. 6·25한국전쟁 때는 마을 이장을 지내고, 피난 때 옷과 양식을 준비하여 시아버지를 피난하게 하였으나 시아버지는 피난지에서 사망하였다. 시아버지의 시신을 모시어 향리 선영하에 안장하여 효도를 다하였다. 또한 인민군에 끌려간 남편이 전시에 3명의 인민군과 같이 간곡리에 온 것을 갖은 수단을 써서 남편을 빼돌렸다. 장씨는 여중호걸(女中豪傑)형의 효열의 부인으로서 1953년에 양양군민정광의 표창과 1975년 3월 1일 강원도지사의 공로패와 상금을 받았다.



○ 임병천 처 파평윤씨(林炳天 妻 坡平尹氏)

윤씨의 열녀각은 손양면 하양혈리 산언덕에 있다. 말없이 고유의 미덕을 간직한 채 메마른 오늘날의 도의사회를 끝없이 밝혀주는 듯 지나가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6·25한국전쟁 때의 일이다. 이곳 하양혈리에는 일찍이 임병천이라는 가난한 농부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양친을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로서 그럭저럭 살아오다가 현북면 말곡리에서 아직 다 피지 않은 꽃 고아 윤씨를 맞아 조혼



하였다. 농사를 하면서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를 하여 오던 중 남편이 우연히 병이 들어 앓게 되었다. 17세의 나이 어린 여인은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방을 전전하면서 구걸에 나섰다. “고생 끝에는 낙이 있으리.” 희망을 안고 온갖 힘을 기우렸으나 하늘도 무심하여 남편 임씨는 드디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윤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당하게 되었다. 슬픔에 찬 그에게 장례일이 다가 왔다. 주위 사람들도 슬피우니 두견새도 따라 우는 가운데 장례식을 끝냈다. 장사가 끝난 후 상주인 윤씨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산중턱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목을 매고 황천길로 가고 있었다. 남편의 뒤를 따라 17세의 어린꽃잎이 떨어져 바람을 타고 날아갔으니 당시 제1군단 민사처장 전소령(全少領)께서 이를 높이 찬양하고 1952년 4월에 이곳 현지에 열녀각을 세웠다.

○ 김진혁 처 경주김씨(金振赫 妻 慶州金氏)(1868~1940년)

김정순(金正舜)의 딸로 어려서부터 예의와 효행이 몸에 베이도록 곱게 성장하여 강현면 사교리 강릉김씨 문중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된 진혁(振赫) 일명 진규(振圭)에게 시집오니 나이는 18세였으며 10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독자 윤기(雲起)를 득남한바 남편은 시름시름 병에 누워 김씨는 약을 구해 다니면서 북두칠성게 빌며 대신하기를 애걸하였으나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통곡(1895년 3월 13일)에 같은 무덤 속에 따라 들려하다 생각을 바꾸고 나서 엄숙하게 양례(襄禮)를 마치고는 머리도 빗질하지 않고 새 옷도 입지 않으면서 미망인으로서의 곤은 절개를 지켰다. 차차 몸이 쇠약해져 가나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써 건전하게 집안을 다스리며 홀로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외독자를 바르게 키웠으니 그의 아들도 효자였다. 또한 손자 다섯(남하, 남학, 남

송, 남필, 남섭)을 훌륭하게 자라도록 돌보고 나서 세상을 뜨니 꽃다운 김씨의 행실이 널리 알려져 양양군유림(襄陽郡儒林)에서 추천하니 유회포창사(儒會褒彰社)에서 1941년 정월에 찬양문을 내려 비석을 세워 팔도에 유방(流芳)하게하였다.

4. 명관 · 사관질(名官 · 仕官秩)

1) 명관

○ 최 재(崔 宰)(고려) 지주(知州)라는 벼슬에 있을 때 강향사(降香使)가 존무사(存撫使)를 능욕했다 생각하니 나도 장차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벼슬을 버리고 갔다.

○ 김 흰(金 暉)(고려) 노경륜(盧景倫)을 반항함으로서 양양부사로 강등하였다.

○ 이춘령(李春齡)(조선) 중종 을사(1545년)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여 선치하였으므로 관민이 감복하였다. 후에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오르다. ‘사재거관인神明’ (四載居官人神明)

○ 강 호(姜 鎬)(조선) 효종때의 문신으로 자는 경숙(京叔)이고 전라도 화순 출신이다. 1642년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역임하고 1655년 장령헌납(掌令獻納)을 거쳐 1657년 세자대강원필선(世子待講院弼善) 1660년 8월 양양부사에 도임하였다. 1664년 정월 장령제수(掌令除授) 1668년 승지제수(承旨除授) 1669년 원양도관찰사(原襄道觀察使)를 지냈다. 현산공원에 불망비가 세워져 있다.

○ 이상일(李尙逸)(조선) 조선중엽의 양양부사로 법률에 밝고 정사에 청렴하고 농상(農桑)에 근려(勤勵)하여 빈궁한 자를 구휼함으로 선정비를 건립했다. 백성들이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백지소장을 지참하고 비 밑[碑下]에 가서 눈물로서 탄원하였으므로 타루비(墮淚碑)라고도 했다.

○ 조종저(趙宗著)(조선) 조선중엽의 양양부사로 교육에 치중하고 교풍을 진흥시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냈으므로 흥학비(興學碑)와 선정비를 건립했다.

○ 이해조(李海朝)(조선) 조선중엽의 양양부사로 풍파(風派)와 문채(文彩)가 국내에 떨쳤고 현산별곡(峴山別曲)을 작곡하였다.

○ 채팽윤(蔡彭胤)(조선) 조선중엽의 양양부사로 정사에 탁월하고 문교(文教)를 진흥시켜 매년 호시절에 청년을 동반하고 학사(學舍)·관루(官樓) 같은 곳에서 글을 짓고, 동해신묘를 중수하고 선정하였으므로 현산공원에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대제사(大堤詞)를 지어서 작곡하였고 문형(文衡)이라는 벼슬까지 했다.

○ 남태제(南泰濟)(조선) 정치에 엄정하고 선정하여 근세에 찾을 수 없는 우수한 행정을 하였다. ‘엄명지치훈도지정태비근소유’(嚴明之治訓導之政殆非近所有)

○ 최상익(崔尙翼)(조선) 숙종 8년(1682년)에 양양부사로 부임 이래 대재해가 있을 때 마다 재력을 감축하여 조난자를 구제하고 교풍(敎風)을 진작시켜 향교를 이 건했다. 선정이 최우수함으로 조정에서 특별상을 수여했다.

○ 한명상(韓命相)(조선) 숙종 신미(1691년)에 부임 이래 명량한 행정을 하였으므로 백성이 선정비를 세웠다.

○ 김 연(金 演)(조선) 숙종 정축(1697년)에 부임 이래 세궁민(細窮民)을 구제하고 장학에 힘쓰고 현북면 면옥치리 지역을 향교에 이속(移屬)하니 백성이 선정비를 세웠다. 그의 문장이 특출하였다.

○ 양중하(梁重廈)(조선) 숙종 임오(1702년)에 부임이래로 명량한 행정을 하여 관민이 감복하여 선정비를 세웠다.(후손이 손양면 상왕도리에 살고 있다.)

○ 정필동(鄭必東)(조선) 숙종 병술에 부임이래 교화(敎化)를 진작시키고 민폐를 근절시켰음으로 선정비를 세우다.

○ 유경시(柳敬時)(조선) 영조 정미(1727년) 부임이래로 교학(敎學)을 진작시킴으로 선정비를 세우다.

○ 안경운(安慶運)(조선) 영조 을해(1755년)에 부임하여 학문을 장려하고 향교재산을 증식시켰으므로 흥학비(興學碑)가 건립되었다.

○ 김종희(金重熙)(조선) 영조 을묘(1735년) 부임이래 관아를 건축하고 태평루(太平樓)와 동문루(東門樓)를 중수하였다. 후에 사간직(司諫職)으로 승차(昇差)하였다.

○ 임희교(任希敎)(조선) 영조 을축(1745년)에 부임하여 예의학문(銳意學問)에 힘쓰고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여 흥학비가 세워졌다.

○ 구세적(具世勳)(조선) 정조 임인(1782년)에 부사로 부임이래 긴 장마로 백곡이 성숙치 않아 백성은 기아상태에 빠졌으므로 선박을 이용하여 남방에서 양곡을 이입하여 구제한 공로로 백성이 선정비를 건립했으며 남북무역이 계속되었다.

○ 이영식(李英植)(조선) 순조 신미(1811년) 부임이래 언행이 신중하고 선치함으로 관민이 열복(悅服)하고 원만히 행정을 실시하여 관내가 안태(安泰)하였다.

○ 홍백순(洪百淳)(조선) 순조 병자(1816년) 부임이래 조정에 인삼을 헌납하여 오던 것이 민폐가 된다하여 영문(營門)에 보고하고 도백(道伯)은 조정에 보고한즉 특히 반감 헌납하도록 허(許)하였으므로 관민이 감격에 넘쳐 태평루에 대연(大宴)을 베풀었고 불망비(不忘碑)를 건립했다.

○ 심동윤(沈東潤)(조선) 순조 임오(1822년)에 부임 향교를 중수하고 그의 문장이 특출하였다.

○ 권중민(權中敏)(조선) 순조 계미(1823년) 3월에 부임하고 2년 후인 1825년 6월에 폄천(貶遷)되다. 계미년 부임이래로 법으로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백성을 공평하게 잘 다스렸다. ‘계미래치민이법불편부당’ (癸未來治民以法不偏不黨)하여 불망비가 현산공원에 세워져 있다.

○ 유장환(俞章煥)(조선) 현종 임인(1842년)에 부임하고 동년 12월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빗을 지고 노비들이 사는 그곳에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모자라 자기 월급으로 부담하였으므로 불망비를 세웠다. ‘이환갱노구체류민감부족정월봉이위불망비’ (邇還更奴區遞流民歛不足損月俸以爲不忘碑)

○ 조진상(趙鎭常)(조선) 현종 임인(1842년) 12월에 부임하고 현종 병오(1846년) 12월에 영체(寧遞)하였다. 부임하여 읍의 돈을 갚지 못해 근심 걱정하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성심으로 영문에 알려 천석의 곡식을 감하니 한 고을 주민들이 은혜에 감복하여 송덕비를 세웠다. ‘래읍지전환심위민막성심론보영문감천곡수일향감혜각석이송덕’ (來邑之錢還甚爲民瘼誠心論報營門減千穀數一鄉感惠刻石而頌德)

○ 임오상(任五常)(조선) 철종 을묘(1855년) 부임이래 영남에서 대홍재(大凶災)를 당하여 조정으로부터 구제방책으로 도에 하명하였으므로 도에서는 각군에 하명이 있어 본군에는 대두천석(大豆千石)이 할당되었으나 친히 도에 올라가 간청하여 추곡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또 사직단 국적고 취산루 남문루(社稷壇 國籍庫 醉山樓 南門樓)를 중수한 사실의 보고가 어사 강관형(姜蘭馨)에 접하자 선정하였다하여 말(馬)을 하사 받았다. 오색리 망월사 앞에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 송정희(宋正熙)(조선) 철종 신유(1861년) 6월 부임하고 철종 계해(1863년 7월 나

주목사(羅州牧使)로 승진하였다. 신유년 본군에 와서 일처리가 분명하여 바른 명분과 기강을 세우고 청렴하고 결백하니 이 고을 주민들이 아까워서 탄식하여 이 분을 받들어 모셨다. ‘신유래체사강명정명입강근청백어기행야일경차석개육반원’ (辛酉來遞事剛明正名立綱勤清白於其行也一境嗟惜皆欲攀轅)

○ 이도식(李道植)(조선) 고종 갑술(1874년) 8월에 부임하여 고종 기묘(1879년) 6월 포천군으로 전출하였다. 갑술년 부임하여 궁한 백성을 잘 도와주어 모든 주민을 편안하게 하였다. ‘갑술래선관궁민이안경내’ (甲戌來善販窮民以安境內)

○ 이구영(李龜榮)(조선) 광무 경자(1900년) 12월 부임하고 이듬해 1901년 10월 체귀했다. 경자년에 부임하여 향교와 동해묘를 중수하고 법도있게 백성을 다스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소민들의 근심걱정을 잘 살폈다. ‘경자래향교급동해묘중수치민유도궁자근고찰대소민지고막’ (庚子來鄉校及東海廟重修治民有道躬自勤苦察大小民之苦瘼) 하여 향교에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져 있다.

○ 권용규(權用圭)(조선) 고종 신미(1871년)에 부임하여 부민호상오리(富民好商汚吏)들이 사용하던 도량형기가 공정치 못하여 세민(細民)을 착취함으로 민간의 도량형기를 몰수하고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낙인을 찍어 부정불법을 엄금하였다.

○ 이건응(李建膺)(조선) 고종 을유(1885년)에 부임하여 갑신·을유년의 대흉에 기아자가 유산(流散)함으로 부자로부터 오천금(五千金)을 차입하여 영남에서 양곡을 이입하여 공평염가로 배급하였다.

○ 남궁억(南宮 億)(조선)

고종 병오(1906년) 1월에 양양군수로 도입하였다. 한말의 애국지사로서 조국애와 민주사상에 불타는 개화의 선구자이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불출세(不出世)의 위인이다. 국권회복과민족부강의길은 교육에 있음을 선택하시고 먼저 민의를 들으면서 현

산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한 것이 1906년 7월 20일이다. 선생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각 문중재산을 거둬들이니 그때 화폐로 4만량의 기본금을 세우고 현산(峴山)이라는 관사(冠詞)를 따서 동헌 옆에 현산학교를 세워 한문·국문의 양학(洋學：서양의 학문)을 주로 가르치었다. 반대자와 모략자를 붙잡아 태형(笞刑)까지 가하면서 모집하니 200여 명의 학생이며 거개가 상투를 짰 학생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양양초등학교의 전신인 동시에 선생이 가르치신 민족정신은 맥맥히 흘러 3·1만세운동에 횃불을 올렸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선생의 거룩한 덕을 흠모하고 추모하며 선생의 공적은 영세불망하리다. 선생의 호는 한서(翰西)이며 동상이 양양초등학교 교정에도 세워져있다.

○ 최종낙(崔鍾洛)(조선) 고종 무신(1908년)에 부임하여 동해묘 려제단(厲祭壇)을 철폐하고 신학에 치중하여 현산학교를 확장하고 각면의 서당과 각 마을 야학을 신학으로 교수시켰다. 신학은 남궁 억, 최종낙 양(兩) 군수로부터 시작되었다.

2) 사관질(仕官秩)

(1) 고려 및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교육제도의 기초위에 유능한 인재를 관직에 등용시키고자 시행한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였으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엄격하여 소위 양반계급의 자제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제도의 방법과 시험 종류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식년시(式年試)

과거는 식년시(式年試)라 하여 3년마다 자·묘·오·유년(子·卯·午·酉年)에 시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문과(文科)만 있었으나, 조선 태조 5년(1396년)부터 문과《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 무과(武科), 잡과(雜科)를 병행하였다. 문과에는 사마시(司馬試) 혹은 생원·진사과라고 하는 소과(小科)와 대과(大科)가 있었으며, 문과라 하면 대

과를 가르킨다. 소과는 다시 초시(初試), 복시(覆試)의 2단계가 있고 대과는 다시 초시, 복시, 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으니 이 5단계를 차례로 통과하여야만 문과급제(文科及第)가 되는 것이다.

소과의 첫 단계인 소과초시는 식년전년(式年前年) 8월에 한성부(漢城府)와 8도(道)관찰사(觀察使) 주재 하에 도별로 시행하며 입격자 인원 제한이 있었다. 소과의 두 번째 단계인 소과복시는 소과초시 합격자를 식년 봄 2월에 한성에 모아 예조(禮曹) 주재 하에 시행하며 이를 회시(會試)라 하고 생원, 진사 각 100명씩 선발했다. 합격자에게는 백패《白牌 : 백색지(白色紙)에 묵서(墨書)한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셋째단계인 대과초시(大科初試)는 소과 합격자를 식년전(式年前) 가을에 역시 한성부와 8도에서 지역별로 관찰사 주재 하에 시행하며, 성균관에서 수학한 생원, 진사에게는 별도의 기회를 주었으며 이를 성균관의 과시(科試)로서 관시(館試)라 하였다. 넷째단계인 대과복시(大科覆試)를 동당복시(東堂覆試)라 하며, 대과초시의 합격자를 한성에 모아 예조의 주재 하에 시행하였다. 다섯째단계로 대과전시(大科殿試)는 국왕(國王)의 친임하(親臨下)에 시행하였으며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에게는 홍패《紅牌 : 홍색지(紅色紙)에 묵서(墨書)한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모화(帽花=꽃으로 장식한 두건)를 하사(下賜)하고 축하하였다.

무과는 소과, 대과 구별 없이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뿐이었다.

잡과는 기술관(技術官)을 위한 과거로서 역과(譯科 : 중국어, 몽고어, 일본어, 여진어학),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 천문, 지리, 명과학), 율과(律科)가 있었으며 소과 대과 구별 없이 초시 복시 2단계로 과시하였다. 이밖에 승과(僧科)가 있어 선(禪)·교(敎) 양종(兩宗)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여 승려의 자격을 공인하는 도첩(度牒)을 얻게 한 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양양지방의 우리 선조들은 과거를 보러 험준한 소동라령(所冬羅嶺 : 지금의 북암령)넘어 입경(入京)하였었다.

나. 임시 부정기의 과시(臨時 不定期的 科試)

- 증광시(增廣試) :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알성시(謁聖試) :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할 때 성균관 학생에게 보이던 과거이다.
- 별시(別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였던 과거이다.

- 정시(庭試) : 증광(增廣) 별시(別試) 때 대궐 안마당에서 보이던 과거이다.
- 종친과(宗親科) : 종친의 등용을 위한 과거, 식년시 다음해에 시행하였다.
- 현량과(賢良科) : 조광조(趙光祖)에 의해 실시하였다.
- 황감시(黃柑試) :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밀감을 성균관과 사학학생에게 주면서 실시하였다.
- 춘당대시(春塘臺試) :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창경궁 춘당대(春塘臺)에서 국왕이 친히 실시하였다.

다. 과거실시 방법

가) 입격자 기준

① 시험관 - 8인 독권대신주관(讀卷大臣主管)

② 입격자 - 1등 장원	만점 ○ 표 1인
2등 방안(榜眼) 또는 아안(亞眼)	80점 ◎ 표 100인 내외
3등 탐화(探花)	60점 △ 표 100인 내외
등외	40점 표
	20점 X 표

③ 재능력(才能力)

재국(才局) - 판단력, 응도(應度) - 적응력, 풍도(風度) - 정서력
경륜(經綸) - 창조력, 조치(措施) - 행동력

(2) 과거(科擧)에 급제한 선비

조선시대 각종 과거에 합격한 인사들은 구 문헌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 계방(桂榜) (문과급제 참고문헌 - 구양양읍지(舊襄陽邑誌))

- 이세문(李世門) 자 세종 6년 계묘(1423년) 문학사 관직사헌부 집의(執義) (전주인)
- 이승복(李承福) 자 百順 성종 2년 경인(1470년) (세문의 자) 홍문관 교리(校理)

간성군수겸강릉진병마동첨절제사 (전주인)

- 이춘령(李春齡) 자 大年 중종 29년 갑오(1534년) 시강원 필선, 성절사 서장관 (함평인)
- 노경복(盧景福) 자 綏仲 선조 13년 을묘(1579년) 서흥부사 병조참판 의금부사 (광주인)
- 이승의(李承義) 자 制卿 광해군 9년 병진(1616년) 박사
- 이경화(李景華) 자 子實 숙종 14년 정묘(1687년) 첨지중추부사 (함평인)
- 이경운(李景雲) 자 君郁 숙종 20년 계유(1693년) 주서 (함평인)
- 최수태(崔守泰) 자 會元 숙종 20년 계유(1693년) 정랑안산군수 (강릉인)
- 최상은(崔上殷) 자 陽卿 숙종 23년 병자(1696년) 정랑 (강릉인)
- 이휘진(李彙晉) 자 仲進 숙종 35년 무자(1708년) 승지(이경화의 아들) (함평인)
- 최달태(崔達泰) 자 達道 경종 4년 계묘(1723년) 정언 (강릉인)
- 이휘항(李彙恒) 자 立之 영조 3년 병오(1726년) 헌납, 홍문관직제학 (함평인)
- 이형필(李衡弼) 자 邦平 영조 12년 기묘(1735년) 이조정랑 (함평인)
- 이동식(李東植) 자 春如 정조 8년 계묘(1783년) 승지 (함평인)
- 고응화(高應華) 자 乃瞻 정조 2년 정유(1777년) 주서 (제주인)
- 이광식(李光植) 자 華如 순조 4년 계해(1803년) 헌납, 증이조참판 (함평인)
- 이지병(李之屏) 자 교리, 울진현감 (평창인)
- 노중경(盧重慶) 자 山如 순조 6년 을축(1805년) 전직, 병조좌랑 (광주인)
- 조창교(趙昌敎) 자 祥大 순조 28년 정해(1827년) 장령 (한양인)
- 이순범(李舜範) 자 高忠 2년 갑자(1864년) 승지 (함평인)
- 이기재(李夔在) 자 德五 고종 31년 계사(1893년) 갑술생 경과 장원 관직미득 (전주인)

나. 연방(蓮榜) 사마방(司馬榜) - 소과(小科)에 급제한 자

- 이세문(李世門) 자 ()태종 15년 갑오(1414년) (전주인) 진사
- 이승복(李承福) 자 백순(百順) 세조 5년 기묘(1459년) (세문의 아들) 진사
- 이승희(李承禧) 자 군석(君錫) 성종 25년 계축(1493년) (세문의 아들) 진사
- 노안필(盧安弼) 자 상현(祥鉉) 성종 26년 갑인(1494년) (광주인) 진사

- 어자소(魚子昭) 자 보숙(晋叔) 연산군 2년 을묘(1495년) (함종인) 진사
- 강철지(姜哲智) 자 보명(甫明) 연산군 2년 을묘(1495년) (진주인) 진사
- 박원량(朴元良) 자 백미(白眉) 중종 2년 정묘(1507년) (강릉인) 생원
- 이덕창(李德昌) 자 군선(君宣) 중종 8년 계유(1513년) (전주인) 진사
- 이춘령(李春齡) 자 대년(大年) 중종 14년 기묘(1519년) (함평인) 진사
- 이 웅(李 翥) 자 이고(而固) 중종 17년 임오(1522년) (전주인 李承福의 아들) 진사
- 어건언(魚建彦) 자 미백(美伯) 중종 17년 임오(1522년) (함종인) 진사
- 이익창(李益昌) 자 자몰(子沒) 중종 23년 무자(1528년) (전주인 李承福의 족하) 진사
- 심덕숭(沈德崇) 자 여지(汝志) 중종 32년 정유(1537년) (청송인) 진사
- 박 룬(朴 輪) 자 사행(士行) 중종 38년 계묘(1543년) (강릉인) 진사
- 전공신(全公信) 자 중호(仲乎) 중종 39년 갑진(1544년) (정선인) 진사
- 박문유(朴文裕) 자 의보(毅甫) 중종 39년 갑진(1544년) (강릉인) 진사
- 이수방(李秀芳) 자 여성(汝成) 중종 39년 갑진(1544년) (전주인) 진사
- 김정윤(金景玆) 자 군보(君寶) 중종 39년 갑진(1544년) (강릉인) 진사
- 최기백(崔基鎬) 자 자무(子武) 명종 14년 을미(1558년) (강릉인) 진사
- 이 규(李 葵) 자 향경(向卿) 명종 16년 임술(1561년) (전주인 李益昌의 아들) 진사
- 이승의(李承義) 자 제경(制卿) 선조 39년 병오(1605년) (전주인) 진사
- 정규생(鄭奎生) 자 유문(幼文) 선조 40년 정미(1606년) (연일인) 진사
- 최동즙(崔東楫) 자 상필(商弼) 선조 42년 기유(1608년) (강릉인) 진사
- 우홍적(禹弘績) 자 선조 42년 기유(1608년) (단양인) 진사
- 김도선(金道先) 자 선조 42년 기유(1608년) (경주인) 진사
- 박종문(朴宗文) 자 여도(汝都) 광해군 9년 무오(1617년) (강릉인) 진사
- 정석량(鄭錫良) 자 성필(聖弼) 인조 20년 임오(1642년) (초계인) 진사
- 박 호(朴 灝) 자 성철(聖靑) 효종 2년 경인(1650년) (초계인) 진사
- 최상은(崔相殷) 자 양경(陽卿) 현종 14년 임자(1672년) (강릉인) 진사
- 이휘진(李彙晉) 자 중진(仲進) 숙종 29년 임오(1702년) (함평인) 진사
- 최상오(崔相五) 자 중삼(仲三) 숙종 33년 병술(1706년) (강릉인) 진사

- 최달태(崔達泰) 자 달도(達道) 숙종 40년 계사(1713년) (강릉인) 진사
- 이휘항(李彙恒) 자 문지(文之) 경종 4년 계묘(1723년) (함평인) 진사
- 고익명(高翼明) 자 경휘(景輝) 영조 4년 정미(1727년) (제주인) 진사
- 이형철(李衡喆) 자 보일(保一) 영조 21년 갑자(1744년) (함평인) 진사
- 이휘건(李彙健) 자 사강(士剛) 영조 24년 정묘(1747년) (함평인) 진사
- 이형필(李衡弼) 자 방평(邦平) 영조 30년 계유(1753년) (함평인) 생원
- 이형익(李衡翼) 자 심보(心甫) 영조 33년 병자(1756년) (함평인) 생원
- 이형옥(李衡玉) 자 재중(在仲) 영조 39년 임오(1762년) (함평인) 진사
- 최창저(崔昌迪) 자 혜길(惠吉) 영조 45년 무자(1768년) (강릉인) 진사
- 이현장(李顯章) 자 회숙(晦叔) 영조 48년 신묘(1771년) (경주인) 진사
- 이동식(李東埴) 자 춘화(春和) 영조 51년 갑오(1774년) (함평인) 진사
- 이창식(李昌埴) 자 대여(大如) 정조 2년 정유(1777년) (함평인) 진사
- 이광식(李光埴) 자 회여(華如) 정조 8년 계묘(1783년) (함평인) 진사
- 김진광(金鎭光) 자 여명(如明) 정묘 8년 계묘(1783년) (경주인) 진사
- 최영필(崔英弼) 자 성엽(聖燁) 정조 11년 병오(1786년) (강릉인) 진사
- 최경수(崔慶洙) 자 정조 17년 임자(1792년) (전주인) 진사
- 김한병(金漢秉) 자 민지(民之) 순조 10년 기사(1809년) (경주인) 진사
- 노찬경(盧欒慶) 자 계백(繼伯) 순조 11년 경오(1810년) (광주인) 진사
- 이중희(李鍾禧) 자 중경(重慶) 순조 20년 기묘(1819년) (함평인) 진사
- 이계황(李啓潢) 자 의여(義汝) 순조 23년 임오(1822년) (함평인) 진사
- 이계필(李啓必) 자 청여(淸汝) 순조 26년 을유(1825년) (함평인) 진사
- 최령필(崔齡弼) 자 실로(室路) 순조 26년 을유(1825년) (강릉인) 진사
- 정해우(鄭海宇) 자 대수(大受) 순조 28년 정해(1827년) (연일인) 增廣진사
- 노 효(盧 孝) 자 명거(溟舉) 순조 28년 정해(1827년) (광주인) 증광진사
- 최서하(崔瑞河) 자 군집(君輯) 순조 29년 무자(1828년) (강릉인) 생원
- 이종구(李鍾九) 자 사승(士昇) 순조 34년 계사(1833년) (함평인) 진사
- 이종희(李鍾熹) 자 연즉(淵則) 순조 35년 갑오(1834년) (함평인) 생원

- 괴광손(崔匡遜) 자 양지(讓之) 순조 35년 갑오(1834년) (강릉인) 진사
- 이우달(李右達) 자 계좌(季左) 현종 2년 을미(1835년) (전주인) 증광진사
- 이서범(李叙範) 자 석구(錫九) 현종 11년 갑진(1844년) (함평인) 증광진사
- 노 완(盧 浣) 자 사연(士淵) 현종 15년 무신(1848년) (광주인) 증광진사
- 이계로(李啓路) 자 문수(文叟) 현종 16년 기유(1849년) (함평인) 진사
- 이근범(李根範) 자 회이(晦而) 현종 16년 기유(1849년) (함평인) 진사
- 김의환(金宜煥) 자 명언(明彦) 철종 4년 임자(1852년) (강릉인) 진사
- 이종문(李鍾文) 자 우오(禹五) 고종 3년 을축(1865년) (전주인) 진사
- 이재렬(李載烈) 자 공후(公厚) 고종 17년 기묘(1879년) (함평인) 생원
- 김사만(金思萬) 자 고종 18년 경진(1880년) (경주인) 진사
- 정우용(鄭禹鎔) 자 치성(致成) 고종 20년 임오(1882년) (연일인) 진사
- 김영구(金永龜) 자 고종 20년 임오(1882년) (연안인) 진사
- 노임수(盧恁秀) 자 성신(聖信) 고종 20년 임오(1882년) (광주인) 진사
- 고제달(高濟達) 자 경장(敬章) 고종 20년 임오(1882년) (장흥인) 진사
- 어진창(魚震昌) 자 (함중인) 생원
- 황 북(黃 馥) 자 계용(季庸) 고종 23년 을유(1885년) (평해인) 진사
- 이영규(李榮奎) 자 헤칠(兮七) 고종 29년 신묘(1891년) (평창인) 진사
- 이현덕(李鉉惠) 자 중명(重明) 고종 29년 신묘(1891년) (평창인) 진사
- 김기봉(金基峯) 자 도준(道峻) 고종 30년 임진(1892년) (김해인) 진사
- 이우렬(李佑烈) 자 상보(祥保) 고종 32년 갑오(1894년) (함평인) 진사
- 박우희(朴雨喜) 자 윤생(允生) 고종 32년 갑오(1894년) (밀양인) 진사
- 이명규(李明奎) 자 경목(景目) 고종 32년 갑오(1894년) (평창인) 진사
- 홍재벽(洪在壁) 자 정보(正甫) 고종 32년 갑오(1894년) (남양인) 진사
- 홍종혁(洪鍾赫) 자 익중(翼仲) 고종 32년 갑오(1894년) (남양인) 진사
- 함동수(咸東洙) 자 갑수(甲秀) 고종 32년 갑오(1894년) (강릉인) 진사
- 최윤설(崔允嵩) 자 고종 32년 갑오(1894년) (강릉인) 진사
- 엄석모(嚴錫模) 자 춘경(春卿) 고종 32년 갑오(1894년) (영월인) 진사

- 이석우(李錫宇) 자 고종 32년 갑오(1894년) (전주인) 진사
- 이강범(李康範) 자 고종 32년 갑오(1894년) (전주인) 진사
- 박 정(朴 潐) 자 성상(聖上) (강릉인) 진사
- 문우상(文遇常) 자 (남평인) 진사
- 박계구(朴桂龜) 자 () 진사

다. 호방(虎榜)무과

- 이승조(李承祚) 자 여운(汝胤) 미상(세종조) (전주인李世門의 아들)
경상좌병마절도사(慶尙左兵馬節度使)
- 이 봉(李 菴) 자 수보(秀甫) 미상(명종조) (전주인李承福의 아들)
대포만호(大浦萬戶) 조산리
- 姜운전(姜允專) 자 자헌(子獻) 미상(미상) (진주인)
- 노처량(盧處良) 자 성거(聖居) 미상(미상) (광주인)우이호군(虞俠護軍)
- 노중량(盧重良) 자 진숙(鎭叔) 미상(미상) (광주인) 만호(萬戶)
- 姜 혼(姜 昕) 자 여사(汝思) 미상(미상) (진주인) 내금위(內禁衛)
- 이공추(李公樞) 자 국주(國柱) 미상(미상) (전주인)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이 예(李 芮) 자 성민(聖民) 미상(미상) (안성인)와서별제(瓦署別提)
- 이공즙(李公楫) 자 제중(濟仲) 미상(미상) (전주인)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이공량(李公樑) 자 국간(國幹) 명종 13년 무오(1558년) (전주인)
흥덕현감(興德縣監)
- 이공노(李公櫓) 자 제숙(濟叔) 미상(미상) (전주인) 내금장(內禁將)
- 우수남(禹秀男) 자 미상(미상) (단양인) 만호(萬戶)
- 이수남(李壽男) 자 기숙(耆叔) 미상(미상)
- 윤우순(尹迂訓) 자 여구(汝具) 미상(미상)
- 이원선(李元善) 자 현종 2년 경자(1660년) (경주인) 만호(萬戶)
- 윤경은(尹敬殷) 자 성화(盛華) 미상(미상) (파평인) 판관(判官)

- 김계황(金繼黃) 자 성소(聖紹) 미상(미상) (경주인)철원부사(鐵原府使)
- 김송구(金崇龜) 자 숙중 3년 병진(1676년)
- 김태구(金泰龜) 자 숙중 3년 병진(1676년)
- 김지설(金志說) 자 은로(殷老) 숙중 3년 병진(1676년) (강릉인) 선전관(宣傳官)
- 정시주(鄭時柱) 자 경시(擎時) 숙중 3년 병진(1676년) (초계인) 정시(庭試)
- 노언생(盧彦生) 자 숙중 7년 경신(1680년) (광주인) 첨사증광(僉使增廣)
- 이경훈(李景薰) 자 백형(伯馨) 숙중 13년 병인(1686년) (함평인)
사헌부감찰 별시(司憲府監察 別試)
- 김지웅(金志雄) 자 사준(士俊) 숙중 20년 계유(1693년) (강릉인) 선전관(宣傳官)
- 강효선(姜孝善) 자 숙중 26년 기묘(1699년) (진주인)
- 김 연(金 淵) 자 경중 3년 계묘(1723년) 훈련참군
- 이휘상(李暉祥) 자 영조 13년 병진(1736년) (함평인)
- 김창연(金昌淵) 자 성득(聖得) 순조 18년 정축(1817년) (경주인)
- 남기순(南基順) 자 순조 18년 정축(1817년)
- 이종응(李鍾應) 자 신즉(信則) 순조 21년 경진(1820년) (함평인)
가선대부충추부사 추영(追榮)3대
- 김도제(金道濟) 자 순조 35년 갑오(1834년)
- 이병노(李秉魯) 자 현중 14년 정미(1847년)
- 이계옥(李啓沃) 자 치심(致心) 철종 3년 신해(1851년) (함평인) 첨추(僉樞)
- 김중인(金重仁) 자 철종 7년 을묘(1855년) (경주인) 사과(司果)
- 노대유(盧大愉) 자 철종 7년 을묘(1855년) (광주인) 봉사(奉事)
- 유진풍(劉振豐) 자 철종 7년 을묘(1855년)
- 김경희(金景禧) 자 도철(道喆) (경주인) 선전관
- 김화춘(金華春) 자 고종 5년 정묘(1867년)
- 김상화(金商華) 자 화실(華實) (경주인) 선전관
- 전용하(全容夏) 자 고종 13년 을해(1875년) (정선인)
- 김한오(金漢五) 자 진일(鎭一) (경주인)

라. 음사(蔭仕)

(조상의 덕으로 받은 벼슬)

- 이승정(李承禎) 자 교수 (전주인)
- 이공권(李公權) 자 성보(聖甫) 순릉참봉(順陵參奉) (전주인)
- 강준지(姜俊智) 자 저숙(儲叔) 소촌(召村), 도찰방(道察訪) (진주인)
- 박 견(朴 堅) 자 자상(子桑) 사온서장직장(司醞署長直長) (강릉인)
- 이 葵(李 蔡) 자 향경(向卿) 성균진사 전징봉사(典徵奉事) (전주인)
- 김승업(金承業) 자 술보(述甫) 남부(南部)봉사
- 박 장(朴 樟) 자 성재(聖材) 귀후서 별제(歸厚署 別提)(박 견의 아들) (강릉인)
- 강 영(姜 英) 자 여삼(汝三) 동부(東部)참봉 (진주인)
- 이 순(李 峴) 자 타고(余高) 공조좌랑(工曹佐郎)
- 심 즉(沈 鉉) 자 성용(聖踊) 제릉(齊陵)참봉
- 이석남(李碩男) 자 대이(大而) 선릉직장(宣陵直長)
- 이찬원(李纘元) 자 선장(善長)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함평인)
- 이석림(李碩霖) 자 자용(子用) 사간원봉사(司諫院奉事) (전주인)
- 이 침(李 琛) 자 여헌(汝獻)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전주인)
- 심응익(沈應翼) 자 자원(子源) 전생(典牲)봉사
- 이성길(李成吉) 자 혜보(惠甫) 청암도찰방(靑岩道察訪)
- 박인전(朴仁傳) 자 중수(仲叟) 서부(西部)참봉(박 장의 아들) (강릉인)
- 정석량(鄭錫良) 자 성필(聖弼) 의영고직장(義盈庫直長) (초계인)
- 조 직(趙 潑) 자 찬원(潾源) 고성(高城)군수 증대사헌한천군(增大司憲漢川君) (풍양인)
- 유희일(俞晦一) 자 현숙(顯叔) 의금부, 도사(都事)의암 송시열 선생 사사(師事) (기계인)
- 최정립(崔挺立) 자 신숙(信叔) 군자감(軍資監)봉사 (강릉인)
- 조여경(趙汝耕) 자 자야(子野) 천안(天安)군수 (풍양인)
- 최도명(崔道鳴) 자 백겸(伯謙) 효릉(孝陵)참봉 (가릉인)

- 우영승(禹永承) 자 () 정릉(靖陵)참봉 (단양인)
- 이휘천(李輝千) 자 회소(晦素) 도사(都事)
- 노수공(盧守恭) 자 훈도 (광주인)
- 노수경(盧守敬) 자 덕함(德涵) 사과(司果) (광주인)
- 노팽수(盧彭壽) 자 노팽(老彭) 사복정(司僕正) (광주인)
- 노안의(盧顔懿) 자 봉사(奉事) (광주인)
- 이 욱(李 郁) 자 교관 (전주인)
- 이경림(李景霖) 자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 (전주인)
- 최창직(崔昌迪) 자 혜길(惠吉) 동몽(童蒙)교관, 홍천(洪川)현삼 (강릉인)
- 이종덕(李鍾德) 자 만즉(晩則) 현감 증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贈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함평인)
- 김성원(金誠元) 자 삼척(三陟)부사 (경주인)
- 오응길(吳應吉) 자 시은(時穩) 사복사장(司僕寺正) (해주인)
- 이전복(李傳福) 자 목사 (전주인)
- 이계영(李啓泳) 자 희도(希道) 정산(定山)부사 도사(都正)동돈녕(同敦寧) (함평인)
- 이계온(李啓溫) 자 희실(希實) 종부랑청(宗簿郎廳) (함평인)
- 이극렬(李克烈) 자 성함(聖咸)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함평인)
- 최 유(崔 油) 자 율봉도도사(栗峯道察訪) (강릉인)
- 이사박(李嗣朴) 자 군술(君述)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안성인)
- 김정환(金貞煥) 자 명언(明彦) 호조판서(戶曹判書) 의금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강릉인)
- 전돈혁(全東赫) 자 노리(魯理) 안협(安峽)현감, 영평(永平)군수 (정선인)
- 김규성(金奎聲) 자 기옹(岐翁) 용호위부호군(龍讓衛副護軍), 돈녕도정(敦寧都正)
당직관(當職官) 증공조판서겸동지의금부사(贈工曹判書兼同知義禁府事) (김녕인)
- 김용직(金溶直) 자 준교(峻敎) 통무위부사용(忠武衛副司勇)
증사헌부감찰(贈司憲府監察) (김녕인)
- 박봉해(朴鳳海) 자 장수도찰방(長水道察訪) (연해인)

- 류시문(柳時文) 자 일장(日章)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문화인)
- 김만침(金萬琛) 자 현감 (강릉인)
- 김사기(金思夔) 자 하경(夏卿) 상운승(祥雲丞) (경주인)
- 김명대(金鳴大) 자 군청(君淸) 사과(司果) (경주인)
- 김동한(金棟漢) 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경주인)
- 진용기(陳龍起) 자 용진만호(龍津萬戶) (여주인)
- 최영운(崔永運) 자 순원(順元) 중추원위관(中樞院議官) 옥구(沃溝)현감 (강릉인)
- 이석범(李錫範) 자 사일(士一) 중추원의관관(中樞院議官) 토비군(討匪軍) (함평인)
- 김명제(金明濟) 자
- 송달현(宋達顯) 자 치존(致存) 양덕(陽德)현감 (여산인)
- 이희태(李熙泰) 자 산여(山如) 상운찰방(祥雲察訪) (평창인)
- 박경훈(朴景勳) 자 명언(明彦)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밀양인)
- 김효박(金孝故) 자 자순(子順) 감역(監役) (강릉인)
- 이기석(李基錫) 자 도정(都正)
- 오명선(吳明善) 자 도정(都正) (해주인)
- 김창규(金昌奎) 자 도정(都正)
- 김동만(金東萬) 자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 (경주인)
- 함병덕(咸炳德) 자 문여(文如) 종사랑(從士郎)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강릉인)
- 홍종희(洪鐘熙) 자 신흥(新興)군수 (남양인)
- 이동식(李東植) 자 평리원(平理院)판사
동로향도검참모관(東路嚮道兼參謀官) (경주인)
- 이종엽(李鍾曄) 자 동몽교관(童蒙敎官) (전주인)
- 김동원(金東元) 자 육군정위(陸軍正尉)
- 고덕주(高德柱) 자 도(道)이사관
- 전재우(全在禹) 자 인제, 양양군수 (정선인)
- 김학수(金學洙) 자 인제, 울진군수 (경주인)
- 김주혁(金周赫) 자 인제군수 (경주인)

○ 김덕기(金德基) 자 도이사관

마. 수직(壽職 : 매년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과 90세 이상의 백성에게 은전으로 주는 벼슬)

- 이천규(李天主) 자 여중(汝鍾) 용양위장군(龍驤衛護軍) (함평인)
- 노순규(盧舜奎) 자 준수(俊叟)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광주인)
- 윤도남(尹道男) 자 군일(君一)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파평인)
- 이대림(李大霖) 자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行僉知中樞府事) (전주인)
- 이형덕(李衡德) 자 여일(汝一) 첨추(僉樞) (함평인)
- 최광구(崔匡九) 자 서범(叙範) 가선오위장(嘉善五衛將) (강릉인)
- 박 관(朴 貫) 자 치의(致義) 용양호군(龍驤護軍) (밀양인)
- 이회식(李會埴) 자 제경(濟卿) 첨추(僉樞) (함평인)
- 고제겸(高濟謙) 자 사익(士益) 통정(通政) (제주인)
- 노진겸(盧進謙) 자 백익(伯益) 첨추(僉樞) (광주인)
- 이계겸(李啓謙) 자 상주(祥周) 첨추(僉樞) (함평인)
- 이 빈(李 檣) 자 윤성(允成) 통정대부행용양위부후군(通政大夫行龍驤衛副護軍) (전주인)
- 이극해(李克諧) 자 백화(伯和)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전주인)
- 이정택(李貞澤) 자 천일(天一) 용양호군(龍驤護軍) (전주인)
- 추삼책(秋三柵) 자 태문(台文)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초계인)
- 추성몽(秋聖夢) 자 희림(喜림) 동추(同樞) (초계인)
- 정만인(鄭晩寅) 자 상교(祥敎) 동추(同樞) (연일인)
- 강공동(姜恭東) 자 석구(錫九) 부호군(副護軍)

※ 고종 40년 임인광무 6년(1902년) 사서(士庶) 80세 이상으로 관직에 등용 된지 40년 이상 된 자들에게 보령(寶齡 : 임금의 나이) 육경(六慶 : 60세)을 바라보고 노인

경지에 들어가는 이때 은혜를 베풀어 가자정(加資廷), 정삼품통정대부(正三品通政大夫) 벼슬을 내렸다. 그때 관직하명을 받은 인사들이다.

○ 박돈삼(朴敦三)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강릉인)
○ 최윤성(崔允星)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강릉인)
○ 이용준(李容峻) 자 자직(子直)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이 우(李 樞) 자 간여(刊如)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최윤중(崔允鍾)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강릉인)
○ 이 도(李 櫓) 자 윤여(允汝)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이서연(李瑞淵) 자 치욱(棼郁)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이용범(李容範) 자 순보(順甫)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최윤장(崔允章)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강릉인)
○ 이용진(李容震) 자 한 장(漢章)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고제익(高濟益)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제주인)
○ 이 계(李 楷) 자 기옹(耆翁)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장현구(張鉉九)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인동인)
○ 이용선(李容善) 자 경산(景山)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인)
○ 박시성(朴時聲) 자	용양위호군(龍驤衛護軍)	(영해인)
○ 장태승(張泰崇) 자	동추(同樞)	(인동인)
○ 이진범(李震範) 자	통정대부(通政大夫)	(함평인)

5. 역대부사·현감·군수(歷代府使·縣監·郡守)

1) 조선조(朝鮮朝)

부사	1. 류자한(柳自漢) 문과	성종 17년	병오(1486년)
"	2. 민 반(閔 泮) 문과	성종 25년	갑인(1494년)도임
"	3. 문 걸(文 傑) 문과	연산 5년	기미 3월(1499년)도임. 경신 1월 졸
"	4. 류인호(柳仁豪) 문과	연산 6년	경신 5월(1500년)도임
"	5. 어맹순(魚孟淳) 남당상	연산 11년	을축 3월(1505년)도임
"	6. 이중현(李仲賢) 문과	중종 3년	무진 3월(1508년)도임. 7월 졸
"	7. 홍 찬(洪 瓚) 문과	중종 3년	무진 10월(1508년)도임
"	8. 양계벽(梁季碧) 문과	중종 4년	기사 2월(1509년)도임
"	9. 김 류(金 鏐) 문과	중종 8년	계유 10월(1513년)도임. 과만(瓜滿)
"	10. 송인줄(宋仁樸) 문과	중종 13년	무인 2월(1518년)도임
"	11. 김 선(金 璇) 문과	중종 14년	기묘 4월(1519년)도임
"	12. 김사결(金士結) 문과	중종 19년	갑신 2월(1524년)도임 헌부계과(憲府啓罷)
"	13. 우인손(禹仁孫) 무과	중종 19년	갑신 7월(1524년)도임 병술 12월 폄하(貶下)
"	14. 김 협(金 協) 문당상	중종 22년	정해 2월(1527년)도임. 과만
"	15. 이맹우(李孟友) 남당상	중종 25년	경인 9월(1530년)도임, 통원루경색 처원조시인윤성사결촌상계과(通遠樓傾色處院造時人尹聖死決寸上啓罷)
"	16. 이윤영(李允榮) 무과	중종 26년	신묘 5월(1531년)도임, 람형헌부계과(濫刑憲府啓罷)
"	17. 이 운(李 耘) 문당상	중종 27년	임진 7월(1532년)도임. 과만(한산인)
"	18. 윤사임(尹思任) 무과	중종 30년	을미 2월(1535년)도임, 천사시별정물선미급감사계과(天使時別程物膳未及監司啓罷)

- ” 19. 정광정(鄭光廷) 남당상 중종 30년 을미 4월(1535년)도임, 재장파(災腸罷)
- ” 20. 허 관(許 寬) 문당상 중종 35년 경자 12월(1540년)고임, 계묘 6월 줄
- ” 21. 이안충(李安忠) 문과 중종 38년 계묘 8월(1543년)도임,
을사천사시진상유경(乙巳天使時進上有傾) 6월 폼하
- ” 22. 이춘령(李春齡) 문과 인종 원년 을사 8월(1545년)도임, 기유 12월 폼하
- ” 23. 임천손(林千孫) 무가선 명종 5년 경술 2월(1550년)도임
전임절도사지사 7월 파
- ” 24. 김 미(金 璽) 문당상 명종 5년 경술 12월(1550년)도임, 신해 6월 폼하
- ” 25. 남슬년(南風年) 문과 명종 6년 신해 8월(1551년)도임
을묘 12월 폼하재관졸(在官卒)
- ” 26. 김세헌(金世憲) 문과 명종 11년 병진 정월(1556년)도임,
정사 정월 자제불금헌부계파(子弟不禁憲府啓罷)
- ” 27. 김 익(金 翼) 문과 명종 12년 정사 2월(1557년)도임, 신유 12월 과만
- ” 28. 임덕신(任鼎臣) 문당상 명종 17년 임술 2월(1562년)도임, 갑자 8월 과만
- ” 29. 경 혼(慶 渾) 문가선 명종 19년 갑자 9월(1564년)도임, 병인 12월 과만
- ” 30. 이희문(李希文) 남당상 명종 22년 정묘 정월(1567년)도임,
무진 8월 불법어사건파(不法御使見罷) (우봉인)
- ” 31. 이지신(李之信) 문당상 선조 원년 무진 10월(1568년)도임
신미 3월 불법어사건파
- ” 32. 허 벽(許 璧) 남당상 선조 4년 신미 5월(1571년)도임
계유 7월 연로헌부계파
- ” 33. 서극일(徐克一) 문과 선조 6년 계유 8월(1573년)도임, 12월 폼하
- ” 34. 문익성(文益成) 문과 선조 7년 갑술 2월(1574년)도임, 무인 12월 과만
- ” 35. 이 창(李 昌) 문과 선조 12년 기묘 2월(1579년)도임,
동년 8월 조운가포사감사계파(漕運價布事監司啓罷)
- ” 36. 이주국(李柱國) 남당상 선조 12년 기묘 9월(1579년)도임,
신사 3월 문폐어사건파(問弊御使見罷)

- " 37. 배삼익(裴三益) 문과 선조 14년 신사 5월(1581년)도임
계미 장령제수거(掌令除授去)
- " 38. 류몽학(柳夢鶴) 남당상 선조 17년 갑신 정월(1584년)도임
동년 12월 정면(呈免)
- " 39. 류 정(柳 挺) 남당상 선조 17년 갑신 12월(1584년)도임 을유 7월 파
- " 40. 이 관(李 攽) 문당상 선조 18년 을유 8월(1585년)도임
정해 3월 어사견과
- " 41. 이장영(李長榮) 문당상 선조 20년 정해 4월(1587년)도임, 기축 4월줄
- " 42. 윤경희(尹景禧) 문과 선조 22년 을축 6월(1589년)도임
신묘 3월 연중삼체(三遞)
- " 43. 장운익(張雲翼) 문과 선조 24년 신묘 윤3월(1591년)도임, 동년 7월과
- " 44. 김수연(金秀淵) 무과 선조 24년 신묘 9월(1591년)도임

임진단병충만사방시부지자행박동인민불능보지방임진십월과
(壬辰斷兵充滿四方時府地恣行博棟人民不能補之放壬辰十月罷)

- 假守 45. 정사신(鄭思信) 문과 선조 25년 임진 11월(1592년), 12월체
- 부사 46. 황 규(黃 奎) 무과 선조 25년 임진 12월(1592년)도임
- " 47. 홍기상(洪麒麟) 문과 선조 26년 계사 (1593년)도임
- " 48. 권용중(權用中) 남당상 선조 27년 갑오 (1594년)도임, 을미인본도순안
창곡반고무면지고장계장추(乙未因本道巡按倉穀反庫無面之古狀啓掌推)
- " 49. 이홍노(李弘老) 문과 선조 28년 을미 7월(1595년)도임, 위통정(爲通政),
무술 12월 감사기○○매상피체 유선정비(監司 奇○○妹相避遞 有善政碑)
- " 50. 황우철(黃迂喆) 문당상 선조 32년 기해 2월(1599년)도임
동년 12월 간원론박(諫院論駁)
- " 51. 이 철(李 鐵) 문당상 선조 33년 경자 정월(1600년)도임, 임인 8월 과만
- " 52. 홍여성(洪汝誠) 남당상 선조 35년 임인 8월(1602년)도임
이간성군수승천(以杆城郡守 陞遷) 병오승통정(丙午陞通政) 정미 7월 과만
- " 53. 김시헌(金時獻) 문당상 선조 40년 정미 7월(1607년)

			예조참의래(禮曹參議來). 경술 정월 과만
"	54. 권 진(權 縉) 문당상	광해 2년	경술 2월(1610년)도입, 신해 5월 헌부계과, 유선정비
"	55. 윤안성(尹安性) 문가의	광해 3년	신해 6월(1611년)도입, 임오 2월거
"	56. 조 즘(趙 濊) 문가의	광해 4년	임자 4월(1612년)도입 갑인 11월 재표거(在表去)
"	57. 박승조(朴承祖) 남당상	광해 7년	을묘 정월(1615년)도입 병진 12월 사체(辭遞)
"	58. 심종도(沈宗道) 남당상	광해 9년	정사 정월(1617년)도입, 동년 9월체
"	59. 정 엽(鄭 曄) 문자현	광해 9년	정사 11월(1617년)도입, 무오 9월 국역란강호위현체(國逆亂降號爲峴遞)
현감	60. 신경우(申景遇) 남당상	광해 10년	무오 11월(1618년)도입 신유 3월 실정계과
부사	61. 이민수(李敏樹) 문과	광해 14년	임술 3월(1622년)도입 계해 3월 반정체(反正遞)
"	62. 이호의(李好義) 가선	인조 원년	계해 3월(1623년)도입, 반정 승위 부사 동년 10월 간성군회의시관사대론계과(杆城都會議試官事臺論啓罷)
"	63. 조위한(趙緯韓) 문과	인조 월년	계해 윤10월(1623년)도입, 무진 8월 양구도의회관미참계과설동명서원(楊口都議會官未參啓罷設東溟書院)
"	64. 이충양(李忠養) 문당상	인조 6년	무진 10월(1628년)도입, 경오 7월줄
"	65. 이경용(李景容) 문당상	인조 8년	경오 9월(1630년)도입, 임신 11월 전라감사 제수거 인정비
"	66. 민 기(閔 機) 문당상	인조 10년	임신 12월(1632년)도입 계유 3월 사체, 청백비
"	67. 류 향(柳 恒) 문당상	인조 11년	계유 5월(1633년)도입 을해 과만 선정비
"	68. 박홍의(朴弘義) 문당상	인조 14년	병자 정월(1636년)도입 정축 2월 병체
"	69. 신응재(申應材) 무당상	인조 15년	정축 3월(1637년)도입

동년 윤4월 승가선, 동년 6월 편중(貶中) 선정비

70. 목서흠(睦叙欽) 문가선 인조 15년 정축 7월(1637년)도입.

심양선기구절사(瀋陽選妓仇節事) 무인 10월 장추(掌推)

71. 한우원(韓又遠) 문가선 인조 16년 무인 11월(1638년)도임, 신사 5월 과만

72. 이시해(李時楷) 문과 인조 19년 신사 6월(1641년)도입 계미 6월 재표거

73. 레이징(呂爾徵) 문가선 인조 21년 계미 8월(1643년)도입

갑신 5월 기귀(棄歸)

74. 이상일(李尙逸) 문과 인조 22년 갑신 7월(1644년)도입

갑자 10월 기귀 선정비

75. 이 혼(李 恂) 가선 인조 27년 기축 정월(1649년)도임 친년(親年)70

경인 정월 사체

76. 송국준(宋國準) 문과 효종 원년 경인 3월(1650년)도임, 신묘 7월 졸

77. 정기풍(鄭基豐) 문과 효종 2년 신묘 9월(1651년)도입,

7월 정죄인배진불발송파귀(定罪人配所趣不發送罷歸) 선정비

78. 김덕승(金德承) 문과 효종 3년 임진 8월(1652년)도임.

기미진상어물품조감사계파(己未進上魚物品俎監司啓罷)

79. 윤형각(尹衡覺) 문당상 효종 6년 을미 12월(1655년)도입.

정유 8월 진상어물색오감사계파(進上魚物色色惡監査啓罷)

80. 신 상(申 恂) 문과 효종 8년 정유 10월(1657년)도임.

4월 간성도회시무학시취공(杆城都會試武學試取公)감사제과

81. 이 연(李 演) 문과 효종 9년 무술 6월(1658년)도임.

동년 11월 이배안동(移拜安東)부사

82. 한 진(韓 縝) 문과 효종 10년 기해 정월(1559년)도임.

동년 5월 감사 혼가잔차재관졸(婚家進差在官卒)

83. 이준구(李俊耆) 문과 효종 10년 기해 7월(1659년)도임, 경자평하

84. 강 호(姜 鎬) 문과 현종 원년 경자 8월(1660년)도임.

갑진 정월 장령제수거(掌令除授去) 선정비

- ” 85. 이운재(李雲栽) 문과 현종 5년 갑진 4월(1664년)도임
병오 10월 어사견과
- ” 86. 이명전(李明傳) 문과 현종 7년 병오 11월(1666년)도임, 정미 6월 폼하
- ” 87. 권 설(權 說) 문통정 현종 8년 정미 8월(1667년)도임, 무신 6월 폼하
- ” 88. 이 철(李 哲) 문통정 현종 9년 무신 7월(1668년)도임, 을유 정월 사귀
- ” 89. 이 정(李 鼎) 문통정 현종 10년 기유 2월(1669년)도임,
신해 7월 과만이이판홀사인임(瓜滿而以販恤事因任)
임자 6월 삼척봉고불진(三陟封庫不進)감사계과
- ” 90. 이 구(李 球) 문과 현종 13년 임자 윤7월(1672년)도임, 계축 6월 사귀
- ” 91. 정세보(鄭世輔) 문당상 (현종 14년 계축 8월1673년)도임, 동년 12월 폼하
- ” 92. 안명노(安命老) 문과 현종 15년 갑인 2월(1674년)도임, 을묘 폼하
- ” 93. 조종저(趙宗著) 문과 숙종 원년 을묘 8월(1675년)도임,
병진 12월 수찬, 제수(修撰, 除授) 선정비
- ” 94. 이인환(李寅煥) 문과 숙종 3년 정사 정월(1677년)도임
무자 12월 어사견과
- ” 95. 류 거(柳 樞) 문당상 숙종 5년 기미 2월(1679년)도임
동년 8월 간원계과
- ” 96. 박천영(朴千榮) 문과 숙종 5년 기미 10월(1679년)도임, 경신 7월 줄
- ” 97. 이만봉(李萬封) 문과 숙종 6년 경신 8월(1680년)도임
11월 신인행용(新印行用) 동월 승통정, 임술 6월 기귀인(棄歸因)폼하
- ” 98. 최상익(崔商翼) 문과 숙종 8년 임술 9월(1682년)도임
계해 7월 선진(善賑)승통정 을축 12월 과만
- ” 99. 안 후(安 垆) 문통정 숙종 12년 병인 2월(1686년)도임, 무진 6월 과만
- ” 100. 임 당(任 堂) 문과 숙종 14년 무진 9월(1688년)도임,
동년 11월 인역적태생강호체귀(因逆賊胎生降號遞歸)
- 현감 101. 이정겸(李廷謙) 문과 숙종 14년 무진 12월(1688년)도임,
경오 4월 병열병폐군사진불상송장체(兵閱病廢軍士趁不上送掌遞)

- " 102. 이동표(李東標) 문과 숙종 16년 경오 4월(1690년)
이교리결군(以敎理乞郡) 5월도임 신미 2월 헌납제수거
- " 103. 채성윤(蔡成胤) 문관 숙종 17년 신미 4월(1691년)도임
예지영분치책기귀(禮遲營門致責棄歸)
- " 104. 한명상(韓命相) 문당상 숙종 17년 신미 5월(1691년)도임,
임신 공주(公州)목사제수거, 선정비
- " 105. 민진형(閔震炯) 문과 숙종 18년 임신 8월(1692년)도임,
을해 2월 승통정부수찬(陞通政副修撰)제수거
- " 106. 원성유(元聖俞) 문과 숙종 21년 을해 2월(1695년)도임,
관지참의(官至參議)
- " 107. 남정중(南正重) 문과 숙종 22년 병자(1696년)도임,
정축 정월 헌납제수거
- 부사 108. 김 연(金 演) 문통정 숙종 23년 정축 2월(1697년)도임, 전승지
무인 5월 기귀선진 경진청백 선정불망비(棄歸善賑 庚辰清白, 善政不忘碑)
- " 109. 류중무(柳重茂) 문과 숙종 24년 무인(1698년)도임, 경진 4월 헌납제수체
- " 110. 남치훈(南致熏) 문통정 숙종 26년 경진 6월(1700년)전승지래(前承旨來)
신사 3월 사체본도방백관지참판(辭遞本道方伯官至參判)
- " 111. 임 당(任 堂) 문과 숙종 27년 신사 6월(1701년)도임, 임오 4월 사체
- " 112. 양중하(梁重夏) 문과 숙종 28년 임오 6월(1702년)도임
을유 3월 사체, 선정비
- " 113. 이 준(李 浚) 문과 숙종 31년 을유 4월(1705년)도임
병술 3월 이병체(以病遞)
- " 114. 정필동(鄭必東) 문과 숙종 32년 병술 3월(1706년)도임
정해 7월 사체, 선정비
- " 115. 성석기(成碩夔) 문과 숙종 33년 정해 8월(1707년)도임,
무자 6월 어사계과
- " 116. 이우겸(李宇謙) 문과 숙종 34년 무자 8월(1708년)도임, 11월 기귀

- “ 117. 이해조(이해조) 문과 숙종 35년 기축 2월(1709년)도임,
경인 3월 헌납 응교제수체(獻納 應敎除授遞)
- “ 118. 김두남(金斗南) 문과 숙종 36년 경인 5월(1710년)도임
임진 정월 헌납승소체(獻納承召遞)
- “ 119. 이규년(李奎年) 문과 숙종 38년 임진 3월(1712년)도임, 동년 11월 폼하
- “ 120. 심수현(沈壽賢) 문통정 숙종 39년 계사 3월(1713년)도임,
갑오 4월 충청감사재수체
- “ 121. 최계옹(崔啓翁) 문통정 숙종 40년 갑오 6월(1714년)도임, 을미 6월 폼하
- “ 122. 이세근(李世瑾) 문과 숙종 41년 을미 9월(1715년)도임
병신 3월 교리제수
- “ 123. 윤취하(尹就廈) 문과 숙종 42년 병신 4월(1716년)도임,
무술 정월 조대부인표체귀(遭大夫人表遞歸)
- “ 124. 송택상(宋宅相) 문과 숙종 44년 무술 2월(1718년)도임
기해 5월 조대평체귀(遭臺評遞歸)
- “ 125. 박희진(朴熙晉) 문과 숙종 45년 기해 7월 29일(1719년)도임,
임신 정월 집의승소(執義承召)
- “ 126. 채팽윤(蔡彭胤) 문통정 경종 2년 임인 2월(1722년)도임,
갑진 11월 승지소 선정비, 평강인
- “ 127. 박내정(朴乃貞) 문통정 영조 1년 을사 2월 18일(1725년)도임, 5월 기귀
- “ 128. 정동후(鄭東後) 문통정 영조 1년 을사 10월(1725년)도임,
병오 9월 진상 궐봉(闕封)계과 동래인
- “ 129. 서명연(徐命淵) 문통정 영조 2년 병오 9월(1726년)도임
정미 7월 병조참의승소
- “ 130. 류경시(柳敬時) 문과 영조 3년 정미 8월(1727년)도임 기유 10월
역적록좌위노죄인도체사본도계파장
(逆賊錄坐爲奴罪人逃體事本道啓罷拿) 선정비 전주인
- “ 131. 권 부(權 孚) 문통정 영조 6년 경술 2월(1730년)도임

- 신해 3월 어사봉고파(御使封庫罷)
- “ 132. 임주국(林柱國) 문통정 영조 7년 신해 6월(1731년)도임, 12월 폄하
- “ 133. 정우주(鄭宇柱) 문통정 영조 8년 임자 2월(1732년)도임, 갑인 8월 과만
- “ 134. 이선행(李善行) 문과 영조 10년 갑인 11월(1734년)도임,
을유 6월 위노죄도타사파나(爲奴罪逃躲事罷拿) 연안인
- “ 135. 김중희(金重熙) 문과 영조 11년 을묘 8월(1735년)도임
정사 12월 이사간소(以司諫召)
- “ 136. 남태제(南泰齊) 문과 영조 14년 무오 정월(1738년)도임,
경신 4월 이소감사 생협계파(以所監司 生嫌啓罷) 의령인
- “ 137. 송징계(宋徵啓) 문통정 영조 16년 경신 2월(1740년)도임,
신유 9월 사체, 중건부창광북창(重建府倉廣北倉) 여산인
- “ 138. 이정작(李庭綽) 문통정 영조 17년 신유 10월(1741년)도임,
임술 2월 이조반불즉검근사나추(以曹般不卽檢筋事拿推)
- “ 139. 박사창(朴師昌) 문통정 영조 18년 임술 2월(1742년)도임, 동10월 기귀
반남인
- “ 140. 민택수(閔宅洙) 문과 영조 18년 임술 11월(1742년)도임,
계해 4월 조친상거(遭親喪去) 여흥인
- “ 141. 강일규(姜一珪) 문통정 영조 19년 계해 5월(1743년)도임, 갑자 12월 기귀
- “ 142. 안경운(安慶運) 문통정 영조 21년 을축 정월(1745년)도임,
정묘 4월 기귀, 홍학비, 순흥인
- “ 143. 박필정(朴弼正) 문통정 영조 23년 정묘 7월(1747년)도임 기사 5월
이신병사귀(以身病辭歸), 중창현산정(重創峴山亭), 애련정(愛蓮亭)
- “ 144. 심익성(沈益聖) 문과 영조 25년 기사 7월(1749년)도임, 경오 정월 체
- “ 145. 최성대(崔成大) 문과 영조 26년 경오 3월(1750년)도임
동7월 친환사귀(親患辭歸)
- “ 146. 이성억(李聖億) 문과 영조 26년 경오 12월(1750년)도임,
을해 7월 고체취산루(瓜遞醉山樓) 전의인

- “ 147. 임희교(任希敎) 문과 영조 31년 을해 8월(1755년)도임,
정축 7월 이집의승소(以執義承召) 흥학비
- “ 148. 오봉원(吳奉源) 문과 영조 33년 정축 8월(1757년)도임
무인 7월 이허경계파(以虛警啓罷)
- “ 149. 김영섭(金永燮) 문과 영조 34년 무인 7월(1758년)도임
기묘 3월 이허자계파(以虛杖啓罷)
- “ 150. 이헌경(李獻慶) 문과 영조 35년 기묘 4월(1759년)도임,
경진 7월 조모상거(遭母喪去) 중수태평루, 성산인
- “ 151. 홍중일(洪重一) 문통정 영조 36년 경진 8월(1760년)도임
임오 정월 체, 풍산인
- “ 152. 황 합(黃 桺) 문통정 영조 38년 임오 3월(1762년)도임 갑신 7월 과체
- “ 153. 이정오(李正吾) 문과 영조 40년 갑신 7월(1764년)도임
정해 11월 집의승소
- “ 154. 황취언(黃取彦) 문과 영조 44년 무자 3월(1768년)도임
을축 5월 의주부윤체거(義州府尹遞去)
- “ 155. 심 기(沈 鎬) 무가선 영조 45년 기축 5월 5일(1769년)도임
경인 6월 체, 청송인
- “ 156. 이잔복(李鎭復) 문과 영조 46년 경인 7월(1770년)도임, 임진 8월
이문신파입체귀후위강릉부사(以文臣罷入遞歸後爲江陵府使)
- “ 157. 김도환(金道煥) 문과 영조 48년 임진 8월(1772년)도임,
계사 정월 이시관변통체(以試官變通遞)
- “ 158. 이의필(李義弼) 문과 영조 49년 계사 2월(1773년)도임
갑오 10월 부수찬승소(副修撰承召)
- “ 159. 박시철(朴著喆) 문과 영조 50년 갑오 11월(1774년)도임
병신 12월 응교승소(應敎承召)
- “ 160. 송 영(송 영) 문통정 정조 원년 정유 정월(1777년)도임,
무술 6월 以강릉부사체거

- “ 161. 정범조(丁範祖) 문통정 정조 2년 무술 8월(1778년)도입,
경자 6월 강릉겸임시 죄인도사파나(江陵兼任時 罪人逃事罷拿)
- “ 162. 윤동만(尹東晩) 문과 정조 4년 경자 8월(1780년)도입
신축 7월 교리승소(校理承召)
- “ 163. 이진항(李鎭恒) 문과 정조 5년 신축 8월(1781년)도입,
임인 11월 이좌부승지 승소(以左副承旨 承召)
- 현감 164. 구세적(具世勣) 문통정 정조 6년 임인 11월(1782년)도입,
계묘 2월 이역적경래이부강현 갑진 5월 이배길주목사
(癸卯 二月 以逆賊京來以府降縣 甲辰 五月 移拜吉州牧使) 능성인
- “ 165. 신대관(申大觀) 무가의 정조 8년 갑진 6월(1784년)도입, 병오 19월 고체
- “ 166. 김몽화(金夢華) 문통정 정조 10년 병오 10월(1786년)도입,
무신 이강릉복시상시관상과(以江陵覆試上試官狀罷)
- “ 167. 홍구서(洪九瑞) 문통정 정조 12년 무신 11월(1788년)도입, 경술 2월 폼하
- 부사 168. 신대년(申大年) 문통정 정조 14년 경술 3월(1790년)도입,
임자 11월 이배강계방어사(以拜江界防禦使) 평산인
- “ 169. 김효진(金孝眞) 문과 정조 16년 임자 11월(1792년)도입, 갑인 12월 체
- “ 170. 이겸빈(李謙彬) 문통정 정조 18년 갑인 12월(1794년)도입,
병진 12월 과체, 덕수인
- “ 171. 류헌주(柳憲周) 문통정 정조 21년 정사 정월(1797년)도입, 기미 6월 과체
- “ 172. 정택동(鄭宅東) 문과 정조 23년 기미 7월(1799년)도입, 경진 8월 체귀
- “ 173. 박지원(朴趾源) 남당상 정조 24년 경신 9월(1800년)도입,
신유 5월 자동체귀, 반남인
- “ 174. 한시유(韓始裕) 문과 순조 원년 신유 6월(1801년)도입
계해 6월 폼하, 청주인
- “ 175. 이현도(李顯道) 문과 순조 3년 계해 7월(1803년)도입,
을축 4월 재상거(在喪去) 전주인
- “ 176. 신 수(申 叟) 문과 순조 5년 을축 4월(1805년)도입

병인 정월 이살옥죄인보사경체(以殺獄罪人捕事經遞)

- “ 177. 조항존(趙恒存) 문과 순조 6년 병인 2월(1806년)도임, 정묘 6월 체
- “ 178. 권행언(權行彦) 문통정 순조 7년 정묘 7월(1807년)도임, 무진 6월 폼하
- “ 179. 이영식(李英植) 문인 순조 8년 무진 7월(1808년)도임

경오 2월 이헌납승소(以獻納承召) 선정비, 함평인

- “ 180. 강시환(姜時煥) 문과 순조 11년 신미 정월(1811년)도임
갑술 정월 나령승소(拿令承召)

- “ 181. 한익진(韓翼鎭) 문통정 순조 14년 갑술 2월(1814년)도임
6월 폼중중체(貶中中遞)

- “ 182. 윤지현(尹之鉉) 문통정 순조 14년 갑술 6월(1814년)도임
병자 11월 과체, 파평인

- “ 183. 홍백순(洪百淳) 음관 순조 16년 병자 11월(1816년)

이익산(以益山)군수 도임 신사 9월 과체, 불망비, 남양인

- “ 184. 신의학(愼宜學) 문통정 순조 21년 신사 10월(1821년)도임
임오 윤3월사체, 거창인

- “ 185. 심동윤(沈東潤) 문과 순조 22년 임오 윤3월(1822년)도임
계미 11월 사체, 청송인

- “ 186. 권중민(權中敏) 남당상 순조 23년 계미 정월(1823년)도임
을유 6월 폼체, 선정비

- “ 187. 정성우(鄭性愚) 남당상 순조 25년 을유 8월(1825년) 자금산(自錦山) 도임,
병술 4월 상경사체(上京辭遞) 온양인

- “ 188. 현진상(玄鎭商) 문과 순조 26년 병술 4월(1826년)도임
12월 이지평승소(以持平承召)

- “ 189. 박영재(朴英載) 문통정 순조 27년 정해 12월(1827년)이형조참의래
무자 5월 체

- “ 190. 이형주(李衡柱) 문통정 (순조 28년 무자 5월1828년)도임, 동12월 폼하

- “ 191. 김리의(金履禕) 음관 순조 28년 무자 12월(1828년)전주판관래(全州判官來)

- 기축 11월 진주목사거(晉州牧使去)
- “ 192. 홍 엄(洪 儼) 문통정 순조 29년 기축 11월(1829년)도임, 경인 7월 체
- “ 193. 박초수(朴楚壽) 남당상 순조 30년 경인 7월(1830년) 이정선래(以旌善來)
계사 8월 이배원주판관(以拜原州判官) 반남인
- “ 194. 이윤식(李允植) 남당상 순조 33년 계사 8월(1833년) 이보은래(以報恩來)
병신 6월 폼하
- “ 195. 심의진(沈宜晉) 남당상 현종 2년 병신 6월(1836년)도임
기해 7월사체, 청송인
- “ 196. 정현박(鄭顯璞) 문통정 현종 5년 기해 8월(1839년)도임, 경자 6월 폼하
- “ 197. 윤수인(尹秀寅) 남당상 현종 6년 경자 8월(1840년)도임,
신축 12월 폼하, 파평인
- “ 198. 임서상(任序常) 음관 현종 7년 신축 12월(1841년) 자통천래(自通川來)
임인 8월 인용 계과, 풍천인
- “ 199. 유장환(俞章煥) 문통정 현종 8년 임인 8월(1842년)도임,
동12월 부승소(副承召) 불망비, 기계인
- “ 200. 조진상(趙鎭常) 음관 현종 8년 임인 12월(1842년) 이익산군수래,
병오 12월 이배영변(以拜寧邊) 불망비, 양주인
- “ 201. 오궁묵(吳肯默) 음관 현종 12년 병오 12월(1846년) 이전주판관래,
정미 2월 전직시사수파나(前職時事繡罷拿) 해주인
- “ 202. 윤치성(尹致誠) 음관 현종 14년 무신 2월(1849년)
이홍주목사래(以洪州牧使來) 동 4월 이배
- “ 203. 류기풍(柳基豐) 문통정 현종 14년 무신 5월(1848년)도임
경술 이병조승차(以兵曹陞差)
- “ 204. 홍운모(洪運謨) 남당상 철종 원년 경술 6월(1850년) 이문천래(以文川來)
신해 6월 폼하, 동해묘중수(東海廟重修)
- “ 205. 임오상(任五常) 남당상 철종 2년 신해 7월(1851년)통천군수래,
을묘 12월 移拜 맹산, 불망비, 오색리 선정비

- “ 206. 김상일(金商一) 남당상 철종 7년 병진 정월(1856년) 자교가래(自交柯來)
정사 6월 은율(殷栗)체거
- “ 207. 이중신(李衆愼) 남당상 철종 8년 정사 6월(1857년) 서천래(敍川來)
동12월 이배, 무안인
- “ 208. 윤자승(尹滋承) 남당상 철종 8년 정사 12월(1857년) 서산래(瑞山來)
기미 3월 증광(增廣)급제승진
- “ 209. 박윤흠(朴胤欽) 문통정 철종 10년 기미 4월(1859년)도임, 동12월 폼하
- “ 210. 서경순(徐敬淳) 남당상 철종 11년 경신 정월(1860년)도임
신유 4월 상경졸, 달성인
- “ 211. 송정희(宋正熙) 음관 철종 12년 신유 6월(1861년)도임,
계해 7월 이배, 나주(羅州)목사, 불망비
- “ 212. 김경근(金傾根) 남당상 철종 14년 계해 8월(1863년)도임
병진 5월 이배남원(以拜南原)부사
- “ 213. 조진호(趙縉鎬) 음관 고종 3년 병인 6월(1866년)도임, 정묘 3월 사체
- “ 214. 조병화(趙秉和) 음관 고종 4년 정묘 6월(1867년)도임, 동12월 폼하
- “ 215. 김병기(金炳基) 은관 고종 5년 무진 2월(1868년)沃川래,
신미 6월 폼하, (김옥균의 부)안동인
- “ 216. 권용규(權用圭) 음관 고종 8년 신미 8월(1871년) 금산(錦山)래
계유 정월 이배평창(移拜平昌)
- “ 217. 윤 완(尹 琬) 음관 고종 10년 계유 2월(1873년) 고성(高城)래,
갑술 7월 이배경성판관(移拜鏡城判官) 파평인
- “ 218. 이도식(李道植) 음관 고종 11년 갑술 8월(1874년) 금산(錦山)래,
기묘 6월 이배포천(移拜抱川) 선정비, 전주인
- “ 219. 오장묵(吳章默) 남당상 고종 16년 기묘 8월(1879년) 한산(韓山)래
경진 10월 이배밀양(移拜密陽)
- “ 220. 정필현(鄭必鉉) 남당상 (고종 경진 11월1880년) 통천(通川)래
신사 7월 이배결성(移拜結城) 연일인

- " 221. 이만수(李晩綏) 남당상 고종 18년 신사 윤7월(1881년) 하양(河陽)래
계미 7월 이배상주(移拜尙州) 진보인
- " 222. 홍응주(洪膺周) 남당상 고종 20년 계미 8월(1883년) 옥천(沃川)래
동10월 상경잉불래((仍不來) 풍산인
- " 223. 이휘재(李徽宰) 남당상 고종 21년 갑신 4월(1884년) 영주(榮川)래
을유 3월 金浦로
- " 224. 기건응(李建膺) 남당상 고종 22년 을유(1885년) 김포(金浦)래
병술 12월 밀양(密陽)으로 전주인
- " 225. 이수영(李秀永) 음관 고종 23년 병술 12월(1886년)도임
기축 3월 영덕(盈德)으로
- " 226. 정기분(鄭基賁) 음관 고종 26년 기축 4월(1889년)도임
9월 은율(殷栗)로, 동래인
- " 227. 홍중한(洪鍾漢) 남당상 고종 26년 기축 9월(1889년) 은율(殷栗)래
신묘 9월 이배진보(移拜眞寶) 남양인
- " 228. 이주의(李周儀) 음관 고종 28년 신묘 11월(1891년) 진보(眞寶)래
계사 6월 시흥(始興)으로
- " 229. 윤필구(尹必求) 남당상 고종 30년 계사 7월(1893년)도임
갑오 6월 이배서흥불부(移拜瑞興不赴) 파평인
- " 230. 김갑수(金甲秀) 남통정 고종 30년(1893년) 배명받고 오지 않음
- " 231. 박제진(朴齊晉) 남당상 고종 31년 갑오(1894년) 청송(靑松)래
동7월 이도정승소(移都正承召)
- 군수 232. 김정진(金靖鎭) 남당상 고종 31년 갑오 8월(1894년)도임, 을미 11월 기귀
안동인
- " 233. 정병기(鄭炳岐) 오지 않음
- " 234. 송기옥(宋岐玉) 오지 않음
- " 235. 양명학(梁命學) 남당상 고종 32년(1895년) 불래
거고성위성익현소살(居高城爲成益顯所殺) 남원인

- ” 236. 조관현(趙觀顯) 무가의 건양 원년 병신 6월(1896년) 이토비중대장래잉배
(以討匪中隊長來仍拜) 경자 3월상경불래, 討境內義兵, 풍양인
- ” 237. 이구영(李龜榮) 음통정 광무 4년 경자 12월(1900년) 삼척(三陟)래,
신축 10월 체귀, 향교급동해묘중수, 선정비 경주인
- ” 238. 김흥기(金興基) 음관 광무 5년 신축 11월(1901년)도입
병오 정월 성주(星州)로 연안인
- ” 239. 남궁 억(南宮 億) 무통정 광무 10년 병오 정월(1906년) 도입,
정미조약(1907년 7월) 체결 이후 사임, 현산학교 창설, 함열인
- ” 240. 이여덕(李汝惠) 융희 2년(1908년) 난리 크게 일어 앓옴(守亂大起不來)
- ” 241. 최중낙(崔鍾洛) 융희 2년 무신 9월(1908년)도입, 경술년(1910년) 12월 졸,
동해묘(東海廟)와 여단(厲壇)을 폐지함,
학교와 면에 서당, 야학을 다시 설치. 강릉인

2) 일제강점기

- ” 242. 오테환(吳台煥) 1911년 3월 14일 부임, 1913년 1월 평양(平壤)전임
- ” 243. 신태영(申澤永) 1913년 7월 1일 부임, 1914년 2월 28일 면관
- ” 244. 이동혁(李東赫) 1914년 3월 부임, 1919년 기미 7월 체
- ” 245. 이문하(李文夏) 1919년 8월 부임, 1922년 9월 거
- ” 246. 이규진(李揆眞) 1922년 9월 부임, 1924년 12월 金化전임
- ” 247. 황의만(黃義民) 1924년 12월 부임, 1926년 6월 면관
- ” 248. 채 린(蔡 麟) 1926년 8월 평창(平昌)래임, 1928년 1월 양구(楊口)전임
- ” 249. 김극일(金極一) 1928년 1월 김화(金化)래임, 1930년 인제(麟蹄)전임
- ” 250. 박재수(朴在洙) 1930년 5월 평창(平昌)래임, 1934년 12월 이천(伊川)전임
남대천제방수축
- ” 251. 장영한(張永翰) 1934년 9년 1월 회양(淮陽)래임, 동년 10월 김포(金浦)전임
- ” 252. 정하형(鄭河亨) 1934년 10월 인제(麟蹄)래임, 1937년 12월 11일 면관

1936년 병자 9월 경내 대수재 사망자 600여명,
 노력동원 군청사개축, 취산루(醉山樓)를 통원루지(通遠樓址)로 옮김
 " 253. 전재우(全在禹) 1937년 11월 인제(麟蹄)래임, 남대천제방개축,
 읍지편수유도, 서면 장승리 철광개발, 동해북부선 양양역 개통

3) 이외 조선왕조실록에 양양부사로 거론 되어 있는 부사

변처후(邊處厚)	세종실록	2년 경자(1420년)	11월 5일 기사
임 목(林 穆)	세종실록	15년 계축(1433년)	윤8월 2일 기사
송 목(宋 翬)	세종실록	17년 을묘(1435년)	9월 25일 기사
신윤보(申允甫)	세조실록	10년 갑신(1464년)	8월 2일 기사
황윤원(黃允元)	예종실록	원년 무자(1468년)	11월 2일 기사
이시보(李時瑠)	성종실록	2년 신묘(1471년)	4월 2일 기사
민영견(閔永肩)	성종실록	8년 정유(1477년)	2월 6일 기사
김중형(金仲衡)	성종실록	15년 갑진(1484년)	4월 19일 기사
이 균(李 鈞)	중종실록	8년 계유(1513년)	8월 8일 기사
진 담(秦 澹)	중종실록	13년 무인(1518년)	7월 3일 기사
공서린(孔瑞麟)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년)	1월 3일 기사
홍석견(洪石堅)	중종실록	23년 무자(1528년)	11월 3일 기사
유희저(柳希渚)	중종실록	29년 갑오(1534년)	12월 17일 기사
이 명(李 冀)	중종실록	38년 계묘(1543년)	6월 22일 기사
신 보(申 葆)	선조실록	31년 무술(1598년)	6월 3일 기사
장운익(張雲翼)	선조수정실록	24년 신묘(1591년)	3월 1일 기사

4) 8·15광복 후 복위 38선 이북치하

5) 6·25한국전쟁 후(군정)

대한민국육군

제1군단장 김백일(金白一), 백선엽(白善燁), 김종오(金鍾五), 이형근(李亨根)장군이
군정을 포시

郡민정관 박중승(朴鍾勝) 1951년 7월 4일~1954년 11월 17일(3년 4개월)

6) 군정에서 민정이양(1954년 11월 17일)이후

- (1) 군수 제3편 「행정」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 (2) 부군수 제3편 「행정」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6. 초 · 중등학교 교장 교감(행정수복이후)

1) 교장

김동각(金東珏) 김남섭(金南攝) 이영모(李永模) 장두순(張斗淳) 정정일(鄭正一)
최정규(崔正圭) 최경추(崔瓊秋) 이철우(李喆雨) 김영록(金永綠) 김종극(金鍾極)
김준열(金俊烈) 고연재(高淵在) 최명수(崔明洙) 김태환(金台煥) 김형열(金滢列)
오제정(吳濟政) 김인영(金仁泳) 김규린(金圭麟) 최동근(崔東根) 민태식(閔泰軾)
이규홍(李圭洪) 이종우(李鍾寓) 이재풍(李在豐) 이장수(李長洙) 김성영(金盛泳)
김영채(金榮案) 최종덕(崔鍾德) 이철수(李哲洙) 이정식(李廷植) 이병율(李炳律)
전상범(全相範) 함준호(咸俊鎬) 양의석(梁義錫) 김충길(金忠吉)

2) 교감

한용한(韓龍澣) 이홍우(李洪雨) 김기정(金基正) 이기억(李基億)

7. 명사(名士)

1) 명사(名士)

- 장 영(張 泳) 관향은 인동이며 강원도 순찰사(巡察使)로 재직할 때 산자수려한 본도의 경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순찰사직을 사직한 후 만년에는 유유자적할 곳으로 생각하고 양양으로 이거하였다. 고려 공민왕(1351~1374년)때 여조(麗朝)의 국운이 기우려져 감을 통감하고 조정의 간신들을 몰아내고 조정을 바로 잡으려고 많은 동조자들과 함께 의거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참사 당했다. 손양면 고송고개에 공이 축조한 고송정(古松亭)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 이세문(李世門)(1400~?) 관향은 전주이며 완풍대군(完豐大君) 원계(元桂)의 손자인 보승장군(保勝將軍) 군실(君實)의 아들로 태종 14년 갑오(1414년)사마에 급제하여 생원이 되고, 세종 5년 계묘(1423년)에 문과 장원급제하여 조정의 춘추관기주관, 의정부검상, 사인을 거쳐 사헌부집의를 역임 중 함길도도진무사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단종 원년 계유(1453년) 7월 임기를 마치고 사헌부집의로 복귀하였는데 동년 10월 11일 단종 폐위의 계유정란시(癸酉靖亂時) 경성부사(鏡城府使) 이경유(李耕暉)의 모함(함길도도진무사로 근무하면서 병기유출을 단속 못한 직무유기 죄명)에 의하여 삼척(三陟)에 유배되었다가 4년이 지난 세조 2년 병자(1456년) 봄에 양이(量移 : 귀향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 양양(襄陽)으로 오니 전주이씨(全州李氏)가 양양에 뿌리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가선대부진릉군검중정경(嘉善大夫晉陵君兼宗正卿)으로 추봉되었다. 국조인물지(國朝人物誌)에 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문학대명조우행의금식향당”(文學大鳴朝右行誼矜式鄉黨 : 문학으로 크게 명성을 드날린 조정의 고관으로서 올바른 행위를 시골 고향 사람들에게 삼가 본보기로 삼았다.
 당시 회자하던 공의 시문 중시시(重試詩) : 오야중명서색분 구중가기정인운 천임봉궐조
 다사 성공용지배성군 정료광응서령월 어로향야북산운 위안지척도유절 조세승평지재근
 (五夜鍾鳴曙色分 九重佳氣正氤氲 天臨鳳闕朝多士 星拱龍墀拜聖君 庭燎光凝西嶺月
 御爐香惹北山雲 威顏咫尺都兪切 措世界平只在勤)

- 이승복(李承福)(조선 세종~성종년간) 관향은 전주이며 공의 자는 백순(百順)이다. 세문의 아들로 세조 5년 기묘(1459년)사마에 급제하고 성종 원년 경인(1470년) 문과 별시 을과 제4인으로 급제하여 전교서박사, 성균관전직, 사간원정언, 이천현감, 전라도도사, 홍문관교리, 성균관직강, 간성군수겸 강릉진병마동첨절제사 역임하였다. 아버지 세문(世門)이 계유정란시(癸酉靖亂時) 누명에 의하여 삼척에 유배당한 죄과가 억울함을 성종 17년 병오(1486년) 정월 10일 상계하니 조정에서 죄명실록을 상세히 상고한즉 죄과에 관계되지 않았음이 확증되어 성종의 완전 사면 전지를 동년 2월 26일자 받음으로써 가문과 향리를 떳떳하게 하신 인사이다. 공은 효성이 지극하여 관직에 연련하지 않고 노부께서 은거 중인 양양으로 가서 효도하고자 하니 간성군수겸 강릉진병마동첨절제사에 전임시켰다. 공은 간성군수 시 선정으로 4년 재임하고 임기 전 성종 24년 계축(1493년)에 퇴임하니 군민 노소가 가는 길에 눈물을 뿌렸으니 현관이셨다.(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17년 1월10일 정사(丁巳)에 기록이 상세하다.)
- 이원종(李源從)(1470~1541) 관향은 경주이며 참판 연손(延孫)의 증손이다. 중종조(中宗朝) 생원진사로서 불구명리(不求名利 : 세상에 명리를 구하려 하지 않음)하고 본군 양양읍 내곡리에서 은거하였다.
- 김세준(金世準) 관향은 김해이며 자는 정숙(正淑)이다. 가락국수로왕 후손으로 사마방에 입격하고 연산 7년 신유(1501년)에 생원에 중종 원년 병인(1506년)에 금오랑(金吾郎)에 통정대부 승정원승지, 중종 2년 정묘(1507년)에 정난공신(靖難功臣)에 봉하였으나 그 후 대계(臺啓 : 사헌부 · 사간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논죄한 문서를 임금에게 올림)로 인하여 삭훈(削勳)되었다. 지극히 효도를 다하여 부병에 단지급몰에 3년간 시묘하였으며 묘막에 대호(大虎)가 와서 가호하였다.
- 이춘령(李春齡)(1499~?)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대년(大年)이고 호는 초제(草齊)이다. 공은 박학다식하여 시문서예가 탁월한 유학의 대가로 중종 14년 기묘(1519년)에 진사하고 중종 29년 갑오(1534년)에 문과 급제하였다. 인종 원년 을사(1545년)에 양양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양부사가 되어 선정하였으며 시객으로 명산대찰을 탐승하여 작시작명하고 임천리 벽옥담(碧玉潭)에 유주선유(流舟船遊)하면서 옛 송나라

소동과격으로 세월을 보냈다. 청빈한 생활로 덕행치민(德行治民)하고 예의겸양지도(禮儀謙讓之道)로 교화하니 그 치적이 상문(上聞)되어 이조좌랑으로 승진하여 명성을 날렸다.

- 김복수(金福壽) 관향은 김해이며 세준(世準)의 아들로 어모장군용양위부호군(禦侮將軍龍驤衛副護軍)의 관헌이 되었다. 1545년 인종을사사화에 아버지의 삭훈(削勳)에 한을 씻고 옛 공적을 회복코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때는 명종 13년 무오(1558년)이다.
- 김기종(金起宗)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청하(聽荷)이다. 동원군(東原君) 철(哲)의 아들로 광해 7년 을묘(1615년)에 진사가 된 후 광해 10년 무오(1618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 인조 2년 갑자(1624년) 이괄의 난(李适의 亂)에 2등공신으로 영해부원군(瀛海府院君)에 봉하였다. 호조판서를 지나 좌참찬겸도례찰사(左參贊兼都禮察使)가 되어 군무에 번(煩)과 중군의 수응(酬應)을 독자당지하고 무진(1628년)에 재임 관백이 되어 경내병화기항민(境內兵火飢荒民)을 구휼하여 송덕비와 향사(享祀) 석벽에 영상까지 새겨 영세침모하였다. 신미(1631년)에 로유맹(虜諭盟)을 축계척지(逐啓斥之)하니 급담(及談)에 인조대왕이 유례로 제사하고 영상 이핵(領相 李翮)으로 찬전(撰傳)한 문집이 있다. 시호는 충정공(忠正公)이다.
- 김천종(金天宗)(1651~1974년) 관향은 강릉이며 충정공 김기종의 아우로서 생원으로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 김만심(金萬深)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루한제(樓閑齋)이다. 판윤 천종(判尹 天宗)의 아들로 성품이 온후하고 단엄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문학으로 자적하다. 백부 충정공 기종이 재상들에 추천하였으나 종래 듣지 않았다. 인조 때 전화 속에서 남한산성의 함락소식을 듣고 바다에 나가 몸을 씻고 자결하였다.
- 최정립(崔挺立)(1547~1654년)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신숙(信淑)이고 호는 둔제(遜齋)이다. 1599년 조산리에 입주한 강릉최씨 선조로서 세종(世宗) 때의 문관 조은 최치운(鈞隱 崔致雲)의 후인(後人)이다. 군자감봉사(軍資監奉事)직을 마다하고 선조조(宣祖朝)에 절충부호군(折衝副護軍)이 되었으나 금서(琴書 : 거문고와 책)로 자오교류명유(自娛交流名儒 : 이름 있는 선비들과 교류하면서 스스로 즐겁게 지냄)하다 80

상수하였다. 사천리 웅이동(熊耳洞)에 있었다는 요신(妖神)의 사당인 도적음사(道積淫祠)를 헐어버림으로써 미신의 허구를 일깨운 위인이었다. 도적음사를 헐어버린 일화가 전한다. 《이곳은 감히 말을 타고 지나지 못하는 곳인데, 공께서는 뜻이 크고 기개(氣概)가 있어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날 때 홀연히 말이 거꾸러지니 공은 화를 내며 차고 있던 칼로 말의 한쪽 다리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신사를 격파하니, 잠깐 사이에 다리가 세 개밖에 없는 말이 능히 스스로 일어나 걸었다. 이로써 사당은 드디어 폐허가 되었고 미신의 허구를 입증했다고 한다.》

- 정 규(鄭 珪) 관향은 연일이며 호는 퇴성제(退省齋)이다. 사마 희조(希祖)의 아들이다. 유년기부터 학업에 힘쓰고 별당을 고성군 삼일포 남쪽에 짓고 독파만권서적(讀破萬卷書籍)하였다. 율곡 이이가 거유(巨儒)로 추천하니 선조 원년 무진(1568년)에 참봉각(參奉閣)을 내렸다.
- 우홍적(禹弘績) 관향은 단양이며, 호는 춘곡(春谷)이다. 만호수민(萬戶秀民)의 아들로 선조 14년 신사(1581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정언이 되고 기우가 현활하며 문사에 탁월하다. 29세 때인 임진왜란에 창의순절명선(倡義殉節名旋) 함평이형백찬장(咸平李衡白撰狀)이다.(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우다 순절하여 이름을 날렸으니 함평후인 이형백이 글을 지어 조정에 장계를 올려 임금께 아뢰었다.)
- 우영승(禹永承) 관향은 단양이며 정언 홍적의 아들로 승릉참봉(崇陵參奉)을 지냈다.
- 정 청(鄭 淸) 관향은 연일이며 호는 유희(游湖)이다. 포은정몽주(圃隱鄭夢周)의 현손으로 병자란에 제자 홍소원(洪沼源)과 더불어 춘천에 피하였다. 참봉으로 추천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고 산수(山水)에 유력(遊歷)하면서 어계 조려(漁溪 趙旅)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과 교의가 깊고 단종 상에 매양 두자시(杜子詩)를 읊으며 세월을 탄하였다. 그 후 이조판서를 증하고 시호를 충순공(忠順公)이라 하였다.
- 오응길(吳應吉)(1560~1594년) 관향은 해주이며 호는 시은(時隱)이다. 고려 때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휘 인유(仁裕)가 시조이고 그로부터 16세에 조부 경은공(耕隱公)에게 수업하여 학업이 성취됨에 따라 음직으로 사복사정(司僕寺正)에 보직되었다. 임진왜란시 양양군 면록치(眠鹿峙) : 현 면옥치]에서 은거하면서 충군우국(忠君憂國)의 성의가 넘쳐 서울을 향해 체읍(涕泣)하였다. 면옥치의 원래 면록치였는데 시은공의 용

모가 옥과 같이 담백하였으므로 이런 한세(罕世)의 인물의 면면영생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개칭한 것이다. 여기서 그 옛날 양양군지 본문을 그대로 기록하여 둔다.

『襄陽郡誌玄 綿玉峙古名眠鹿峙 宣祖壬辰 吳公應吉 自京來居 其德容如玉故 後人綿思其 玉容因以綿玉峙稱焉』 (양양군지현 면옥치고명면록치 선조임진 오공응길 자경래거 기 덕용여옥고 후인면사기옥용인이면옥치칭언)

- **최기박(崔基鎬)** 관향은 미상이며 자는 자무(子武)이고 호는 동명(東溟)이다. 선조 32년 기해(1599년)에 문과에 급제. 명종 13년 무오(1558년)에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가 되었다. 광해조에 폐모반대상소를 올렸으나 저지당하여 향리에 돌아갔다. 인조 때에 다시 소징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이원선(李元善)** 관향은 미상이며 현종 원년 경자(1660년) 무과 만호에 이르렀다.
- **최응우(崔應耦)** 관향은 강릉이며 중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수사를 지냈다.
- **최봉년(崔鳳年)** 관향은 미상이며 광해 2년 경술(1610년)에 무과급제하였다.
- **고덕함(高德誠)(1599~1689년)** 관향은 제주이며 강릉 초당 태생이다. 자는 자협(子協)이고 호는 대관정(大觀亭)이다. 중시조 성주공 휘 미로(未老)의 21세손이요 문충공 휘 경(慶)의 11세손이며 첨지중추공 휘 대인(大仁)의 아들로서 인조 7년(1629년)에 무과에 등과 선전훈련첨정(宣傳訓練僉正)을 역임하였다.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 청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니 국가의 위급을 구증하려는 충의심을 발휘하여 강릉에서 의병 3천명을 창모인솔(倡募引率)하고 서울로 향하여 진군할 때 양양수 김창녕(金昌寧)을 전조관(轉漕官 : 양곡운반을 책임진 관리)으로 삼고 강릉수 김숙상(金淑相)을 본읍을 지키게 하고 권환(權桓)으로 하여금 군사(軍師)를 총독케 하여 금단산하(金丹山下)에 이르렀다. 남한산성에서 체결된 강화조약의 굴욕적인 정보를 듣자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머금고 퇴병하고 말았다. 그 후 이조판서 김수희(金壽希)의 주달(奏達)로 임금께서 그 절의가 가상하여 후상을 하사하시고 충무위좌부장(忠武衛左部將)의 작을 제수하였다.
- **오 준(吳 遵)(1589~1653년)** 관향은 해주이며 시은공 오응길의 장자이다. 자 윤성(允成)이고 호는 술제(述齊)이다. 인조조에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으나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을 만나 정축(1637년) 강화 때에 통곡하고 성에서 나와 고향

에 돌아와 선영아래 거처하면서 절의를 지키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왕실을 생각 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원에 도명대(禱明臺)의 단을 모으고 분향하며 명천의 회복을 빌었다.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있다. 후대 사람들이 공의 유덕을 찬양하여 우국지성 을 칭송하였다. “공이 능히 선대를 이어 충군애국의 뜻을 두다. 단상의 맑은 바람과 향기는 아직도 전하는데, 그 터를 일컬어 도명(禱明)이라하여 사람들이 지금껏 이어 온다. 누가 예천(醴泉)과 지초(芝草)가 근원이 없다하던가 불례(不禮)가 셋이 있으니 덕과 인과 공이로다.”

- 박 장(朴 樟)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성재(聖材)이다. 선무랑이 되었다가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에 오르다.
- 박종문(朴鍾文)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의숙(懿叔)이다. 인조 17년 기묘(1639년)에 사마가 되었다가 장락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 김동만(金東萬)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사헌(思軒)이다. 통정원백(通政元伯)의 후손 으로 은계도찰방(銀溪道察訪)이 되었다.
- 박경훈(朴景勳) 관향은 밀양이며 교관수린(敎官受麟) 자개당기위(子個儼奇偉) 효우 독학(孝友篤學) 의금부 도사(都事)를 지냈다.
- 장의수(張誼翰) 관향은 인동이다. 충정공 안세(安世)의 후인으로 엄한 가훈을 이어 받아 학문이 첨부(瞻富)하며 향시에 합격하였다. 행도(行道)가 고상하였으며 선인에 게는 온 정성을 바쳤다.
- 박 호(朴 灝)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리조(梨粗)이다. 효종 원년 경인(1650년)에 사 마진사 명문이 높고 누차 천거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 김계황(金繼黃) 관향은 경주이며 자는 성소(聖紹)이다. 상촌자수(桑村自粹) 후손으 로 무과에 급제하여 현종조 철원부사를 지냈다.
- 김학성(金學聲) 관향은 경주이며 자는 순팔(順八)이다.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지냈다.
- 최상은(崔相殷)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탕향(湯鄉)이고 호는 동애(東崖)이다. 제문정 립(齊遜挺立)의 손으로 영조조에 사마, 숙종 22년 병자(1696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은 정랑 해남현감(海南縣監)을 지냈고 문장이 탁월하여 문시에 특수하다.
- 이계원(李繼元) 관향은 미산이며 자는 선량(善良)이다. 숙종 2년 병진(1676년) 이수

질가자제침지중추부사(以壽秩加資除僉知中樞府事)

- 이공량(李公樑)(1519~선조년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국간(國幹)이다. 손양면 수여리에서 태어난 전주이씨 중흥조(中興祖)로 명종 13년 무오(1558년)에 중정시(中庭試)에 급제하고 시문에 능하여 경학에 통효(通曉) : 깨달아서 환히 앎.)한 유학자로서 통훈대부를 지내고 흥덕(興德)현감이 되었다. 택호(宅號)를 흥덕택이라 하고 집터가 양양에서 제일의 명당이라 한다. 특기할 것은 공량(公樑)이후 14대 손까지 그 재산이 현재까지 계승함으로서 장재택(長財宅)이라고도 호칭한다. 이것은 가도(家道)의 규모와 질서가 바르고 근검절약하였으며 자손들이 공의 유훈을 엄수하여 14대 420여 년 간 시종여일한 가풍이었다. 또 생활방식이 질서 있어 14대 동안 화로의 불씨를 끄지 않았다고 한다. 놀라운 생활규모이며 자자손손 공의 수신제가의 유훈을 엄수한 모범가통(模範家統)이다.
- 최우태(崔宇泰)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회원(會元)이다. 상은(相殷)의 아들로 숙종때 문과에 급제하고 만경안산(萬頃安山)현감을 지냈다. 수재이고 기품이 훌륭하며 풍류를 즐겼다.
- 최달태(崔達泰)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달도(達道)이고 호는 도제(道濟)이다. 상오(相五)의 아들로 계사에 진사 계묘문과정원지제교를 거쳐 현감에 이르렀다. 문장에 경학이 최저(最著)하고 더욱 역학에 정통하였다.(문사청려우정역리 : 文詞清麗尤精易理)
- 이경운(李景雲)(1666~1695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군욱(君郁)이다. 숙종 19년 계유(1693년)에 문과에 급제, 성균관학록을 제수하였으나 조졸하였다.
- 이휘진(李彙晉)(1680~1752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중진(仲進)이고 호는 현수(峴叟)이다. 숙종 28년 임오(1702년)진사, 무자에 문과에 입격하고 태안 회양 길주 홍천 초산의 부사를 지냈고 영조 2년 병오(1726년)에 동부승지 의주문안사(義州問安使)를 역임했고 관직 퇴임 후 영조 26년 경오(1750년)에 경낙회(鏡洛會)중흥에 일역하고 경낙회첩 서문을 찬한바 그 원본은 강릉문화원 자료대장 제65호로 등재되었고 1998년 강릉시립박물관 제15호로 전시 소장되어 있다.
- 최도명(崔道鳴)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백겸(伯謙)이고 호는 쌍호(雙湖)이다. 사예기백(司藝基伯)의 증손 참봉 숙종 21년 을해(1695년) 조정에서 경학이 높다하여 효릉참봉(孝陵參奉)에 별천하였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쌍호정(雙湖亭)을 짓고 증구봉·

구봉(重九峰·龜峰)에서 영풍영시(咏風咏詩)하면서 이름을 떨쳤다. 서울 적성동(赤城洞) 김정암(金淨岩)은 선생을 평하여 방수관동해 방산관설악 방인관도명(放水觀東海 放山觀雪岳 放人觀道鳴)이라 하며 경향에 명성이 높았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수사박씨왈헌계 저서손와집 주역보주오 복편람(繡使朴氏曰獻啓 著書巽窩集 周易補注五 服便覽)이 있다.

- 최상오(崔相五)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중삼(仲三)이다. 현감 상은(相殷)의 제로서 숙종 22년 병자(1696년)에 진사 유덕(儒德)으로 명성이 높고 박호(朴灝)의 거안록(居按錄)을 중보하였다.
- 이현장(李顯章)(1834~1899) 관향은 경주이며 자는 회숙(晦淑)이고 호는 묵계(墨溪)이다. 원종(源從)후 어렸을 때 가세가 빈궁하여 현 향교 앞에 있는 소천(小川)가에 하나의 반석을 베풀삼고 칩잎을 종이삼아 시종 시서작법을 위하여 몰두하니 글을 써서 씻은 물이 소천을 흐를 때 냇물이 먹물로 변하였으므로 후일 이 소천을 묵계천(墨溪川)이라 칭하였다. 임천을 녹림(鹿林)이라하고 글방을 녹림서당이라 하였다. 선생은 경종 원년 신축(1721년)등과 진사하고 일생을 육영사업에 바쳤다. 공이 쓴 병풍은 특출하여 명필이라 하나 현재에는 그 잔적이 없다.
- 이창식(李昌植)(1744~1787년) 관향은 함평이며 문과급제하여 진사에 이르렀다.
- 이 엽(李 曄)(1735~1799년) 관향은 홍주이며 호는 죽계(竹溪)·금옹(琴翁)이다. 양양읍 임천리 태생으로 통덕랑(通德郎)에 이르렀다. 도암(陶菴) 이재(李宰)선생(우봉인)의 문하생으로 상복 3년상도 치르고 향리 임천에서 금서(琴書)로 여생을 지내고 문집 6권을 남겼다.
- 권 구(權 絀) 관향은 안동이며 호는 탄림(灘林)이다. 참의 응기의 증손 명제윤증문(明齊尹拯門)에 수업하였다. 예와 학행이 높아 경종조에 감역을 지냈고 오복편람(五服便覽)을 저술하니 공의 유집이다.
- 이휘항(李彙恒)(1695~1745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입지(立之)이다. 경예의 아들로 호는 상류헌(桑柳軒), 경종 3년 계묘(1723년)에 진사, 영조 병오에 문과 장원하였다. 예조좌랑 호조정랑 충청함경남도사를 지내고 정언헌납이 되었다.
- 이 연(李 淵) 관향은 미산이며 숙종 계묘에 정시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훈련참봉

에 이르렀고 경종 때에 무과에 입격했다.

- 고익명(高翼明)(1684~1743년) 관향은 제주이며 자는 경휘(景輝)이고 호는 읍호당(挾湖堂)이다. 송헌공휘처후(松軒公諱處厚)의 자로 손양면 송전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타고난 특이한 재예로서 학문에 힘써 1727년에 사마(진사)에 등과, 청운에 뜻이 없어 송호풍월(松湖風月)의 주인으로서 일안서(一案書)와 삼척금(三尺琴)으로 칭찬한 일생을 마쳤는데 그 시집이 건협(巾篋)에 보장되었다.
- 김태경(金泰慶)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남계(南溪)이다. 기종(起宗)의 증손으로 영조 15년 기미(1739년)에 진사, 경오에 문과 급제로 한원(翰苑)이 되고 거창현감으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부(賦)하여 당세에 회자가 되었다.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 閔氏) 대학생상소로 극간사 심직절절(極諫辭 甚直切切)하여 복위하고 상룡(上龍)이 융왕(隆旺)하여 한림(翰林)에 이르렀다.
- 김한준(金漢俊) 관향은 경주이며 영조조에 군자감을 지냈다.
- 김기주(金紀柱) 관향은 경주이며 영조조에 호조참의를 지냈다.
- 김노원(金魯元) 관향은 경주이며 자는 시원(詩元)이고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냈다.
- 이형필(李衡弼)(1714~1775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방평(邦平)이고 호는 지산(芝山)이다. 영조 29년 계유(1753년)에 생원진사, 영조 35년 기묘(1759년)에 문과장원 급제하여 병조좌랑과 함경도사정언헌납이 되었다. 청금록(靑襟錄)을 만들었다. 이형익(李衡翼)이 지은 보안(補案)과 청금(靑襟)은 임공 희수(任公 希數)의 글씨다.
- 최창직(崔昌迪)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혜길(惠吉)이고 호는 취송(翠松)이다. 영조 44년 무자(1768년) 진사(음사)천관으로 돈녕도정 영동분교관(敦寧都正 嶺東分敎官)이 되었다. 정조계묘이십삼경의대옥의특제동몽교관(正祖癸卯以十三經義對縛意特除童蒙敎官)과 홍천현감을 역임 돈녕도정(敦寧都正)에 이르렀다.
- 최영필(崔英弼)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성엽(聖燁)이고 호는 절헌(節軒)이다. 창직(昌迪)의 아들로 정조 10년 병오(1786년)에 사마진사였다.
- 이 침(李 琛)(1560~1626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여헌(汝獻)이다. 관(官)은 선무랑군자감주부(宣務郎軍資監主簿)를 지냈으며 공량(公樑)공의 맏아들이다.
- 이동식(李東植)(1745~1807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춘화(春和)이다. 영조 50년

갑오(1774년)에 진사, 계묘에 문과 장원하였다. 병조좌랑 영일현감 순천부사와 안주 목사를 역임한 후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 이현도(李顯道)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장암(莊庵)이다. 정조 원년 정유(1777년)에 생원진사, 무술에 문과 교리 사간을 지나 사읍(四邑)을 역전하며 많은 공적을 남겼다.
- 김대희(金大喜) 관향은 경주이며 정조 때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 김광진(金光珍)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둔제(遯齋)이고 초명은 만중(萬重)이다. 계례(繼禮)의 아들로 우애심이 지극하고 일찍 학업에 힘써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본도 순찰사를 지냈으며 청백리로 이름이 높다.
- 고응화(高應華)(1733~1778년) 관향은 제주이며 자는 내담(乃膽)이고 호는 직제(直齋)이다. 통덕랑 윤명(允明)의 아들로 정조 원년 정유(1777년)에 별시양과(別試兩科) 17인에 등제하여 벼슬은 주서(注書)를 지냈으며 환향하여 46세를 1기로 경륜과 포부를 펴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니 아는 자 어느 누가 애석치 않으랴. 후손은 홍천에 화수향(花樹鄉)을 이루고 있다.
- 이종태(李鍾泰)(1764~1828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백교(伯喬)이다. 순조 때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敎官)의 벼슬을 받았다.
- 이헌규(李憲奎) 관향은 미상이며 호는 두산(斗山)이다. 은후(垠后) 성질이 온후하고 문장이 출중하여 당세에 명성이 높았다.
- 이광식(李光植)(1749~1812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화여(華如)이고 호는 청리(淸里)이다. 정조 7년 계묘(1783년)에 진사 순조 3년 계해(1803년)에 문과 병조좌랑 사헌부지평 이조좌랑을 거쳐 무진(1808년)에 양양부사를 지내고 또 사간원헌납을 지냈다. 사후에 이조참판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증수하였다.
- 이순범(李舜範)(1841~1920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중명(仲明)이고 호는 혜산(惠山)이다. 고종 1년 갑자(1864년)에 문과 주서사간정언(注書司諫正言) 홍문관부교리 헌납을 거쳐 승지에 이르렀다.
- 이종덕(李鍾惠)(1768~1841년) 관향은 함평이며 호는 이즉(彝則)이다. 순조 21년 신사(1821년)에 청양현감(靑陽縣監)을 지냈고 이조참판이 증수되었다.
- 이승의(李承義) 관향은 미상이며 사마진사 후 문과에 급제 박사가 되었다.

- 노중경(盧重慶) 관향은 광주이며 자는 산여(山如)이다. 안정(安鼎)후예로 순조 5년 을축(1805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을 지냈다.
- 이이중(李頤重)(1723~1819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양중(養仲)이고 호는 행헌(杏軒)이다. 흥덕공(興德公)7세손으로 공은 경학(經學)과 시률(詩律)에 통달하였으며 체격이 크고 훌륭한 기상과 올바른 행위를 삼가 본보기로 삼고 친족 간 향리 간 정애가 두텁고 화목하며 가법(家法)은 순박하고 온화하고 몸소 관대히 접객하며 충(忠)으로서 과업을 게을리 않으며 말을 고쳐 하는 바 없으니 영조대왕(英祖大王)때에 행의도신(行義道臣)으로 조정에서 추천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다가 90세에 이르러 순조 12년 임신(1812년)에 노직으로 통정대부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를 내리니 그제야 “이 천작을 어찌 감히 사양 하리” 하면서 두건과 옥이 주렁주렁한 관복을 입으셨다. 그 후 맏아들 효자 필용(弼鏞)(사헌부지평)의 상(喪)을 당해 곡성이 울리니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가묘에 알묘하고 나서 이튿날 아침 자식들을 불러 앉히고 나서 “내 장차 죽을 것이다.”하고나서 조용히 고종명하시니 연침에 드신 것 같지 않았다 한다. 영조조(英祖朝) 행검우향천사재학부(行檢于鄉薦事載學府)에 수록되어 있다.
- 노기경(盧起慶)(1755~1805년) 관향은 광주이며 호는 무제(茂齊)이다. 안정(安鼎)의 후손으로 천문지리에 밝고 경학에 박섭(博涉)하여 이학에 정통하고 문집이 많이 남아있다.
- 전계학(全啓學) 관향은 정선이며 동면연창원(東面連昌院=지금의 손양면 송현리) 앞 평야에 한해가 심하여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농사는 흉년이 들었다. 이에 순조 20년 경진(1820년)에 자기가 소유한 재물과 곡식을 모두 내놓아 3개소에 저수지를 만들고 영농을 뒷받침하였다. 재차 사재를 내놓아 농민들의 호구지책을 세워 인보상조의 공을 세웠다. 그 후에는 재해가 없고 농업생활이 많이 늘고 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에 감동한 주민들이 손양면 하왕도리에 공적을 각명하여 영구히 기념하였다.
- 조창교(趙昌敎) 관향은 한양이며 양렬공인벽(襄烈公仁璧) 후손으로 순조 27년 정해(1827년)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입격 찰방도사장령(察訪都事掌令)과 교리를 지내고 통훈대부 사간원정언에 이르렀다.

- 이증희(李鍾熹)(1784~1860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연즉(淵則)이다. 순조 34년 갑오(1834년) 무과부사 가의동추(嘉義同樞)를 지냈다.
- 최광모(崔光模)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송암(松菴)이다. 제정공용소(齊貞公龍蘇)의 손으로 문학이 탁월하고 박학하며 특히 주서(注書)에 익숙하다. 현종 때 참봉에 봉하였으나 받지 않고 향상(鄕庠)에서 람전향약례(籃田鄕約例)를 지어 그 유고를 남겼다.
- 정우용(鄭禹鎔) 관향은 연일이며 자는 치성(致成)이다. 포은정몽주(圃隱鄭夢周)의 18대손 원기(元基)의 아들이다. 문장이 뛰어나고 성품이 온후하고 현종 5년 기해(1839년)에 문과에 급제 진사가 되었다. 철종 12년 신유(1861년) 대화재시에 부친 원기(元基)와 상의하여 금곡(金穀) 천석과 천량을 희사하여 이재민을 구휼하니 그 덕적이 온 고을에 떨쳤다.
- 노 완, 효(盧 玩, 孝)(1795~1865년), 임수(佺秀)(1841~1920년) 관향은 광주이며 완(玩)의 자는 사연(士淵)이고 호는 운곡(雲谷)이다. 효(孝)의 자는 명거(溟舉)이고 호는 석암(石庵)이다. 임수(佺秀)의 자는 성신(聖信)이고 호는 석초(石樵)이다. 완공은 현종 14년 무신(1848년)에 사마진사, 효(孝)공은 1827년(순조 27년 정해)사마진사하고 조습훈육 문예숙취 부탁락근신근엄(早襲訓育 文藝夙就 孚卓攄謹身謹嚴)하며 서울 명문가와 교제가 깊었다. 임수(佺秀)공은 고종 19년 임오(1882년)에 사마진사에 효겸천(孝兼薦)받았다. 삼부자 3세 진사한 명문가이다. 모두 근직하여 세도를 행사함이 없이 오히려 부정한 향반(鄕班)을 타기(唾棄)하고 또 훈도(薰陶)하고 교도하였으며 시문 경서에 정통하고 3부자 사마성균관 진사였다. 명거공은 전국 방방곡곡을 편답(遍踏)하면서 음풍영시 경학을 토론하고 일평생 유랑하면서문장의 명성을 떨쳤다.
- 김희환(金熙煥)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가옹(可翁)으로 철종조에 호판(戶判)을 지냈다. 영언부원군(永彦府院君)의 스승으로서 학문과 시문이 일세를 풍미(風靡)하였다. 90상수를 장담하고 다음과 같은 시문을 영언부원군에게 보냈다.

영언전어기기에 종차수년실혹가 여만공명일판서 성명은질관문려
(永彦前語豈欺餘 從此數年失或假 餘望功名一判書 聖朝恩秩燿門閭)

- 박수린(朴受麟) 관향은 밀양이며 낙봉근원(駱峰謹元)의 후손으로 가훈을 잘 이어받아 문예가 탁월하였으나 조사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 철종 때 동

몽교관에 증하다.

- 박정규(朴廷圭)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시산(詩山)이다. 처사문학(處士文學)으로 유명하다. 행의가 두터웠으니 당시 문인들이 이의 비를 세웠으며 직각주규(直閣朱奎)의 비문이다.
- 김한환(金漢煥)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명언(明彦)이고 호는 가옹(可翁)이다. 철종 3년 임자(1852년)에 사마시에 입격, 호조판서겸의정부좌찬성(戶曹判書兼議政府左贊成)을 역임한 명사다.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승서하고 강릉김씨의 증흥조가 된다.
- 최영운(崔永運)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순원(順元)이고 호는 경사(鏡史)이다. 철종 11년 경신(1860년)에 종정원주사(宗正院主事) 무술에 증추원의관이 되고 계묘에 용담군수 옥구군수를 지냈다. 덕행이 높고 시문 경서에 정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의를 다하였다.
- 정원기(鄭元基)(1802~?) 관향은 연일이며 자는 여경(汝經)이다. 강현면 석교리에 서 생활하였으며 시문에 남달리 재능이 있고 풍류를 즐기었다. 철종 10년 기미 10월(1859년) 설악산 동쪽 동해안 일대에 불의의 대화재가 발생하여 양양부(襄陽府)에 551호, 통천군(通川郡) 472호, 간성군(杆城郡) 486호가 전소하니 수천 명의 이재민이 집을 잃고 거리에서 혹한에 떨고 있을 때 아들 우용(禹鎔)진사와 상의 곡식 천석과 거금 천량을 내놓아 불쌍한 이재민을 구휼하였다. 이에 이재민들은 용기를 내어 농경을 시작했고 은혜를 입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조정에 상소하니 철종께서 ‘많은 재물을 거둬 베풀어 백성을 구휼하고 화재로 인한 나라의 재난을 극복하게 한 공로를 가상히 여겨 가선대부중추부사겸오위장(嘉善大夫中樞府事兼五衛將)의 관직을 특수(特授)하고 철종 11년 경신 12월(1860년)에 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不忘碑)라 양각(陽刻) 주조(鑄造)한 철비(鐵碑)를 하사(下賜)하니’ 주민이 자진 동원하여 강현면 석교리에 비각을 건립하고 철비를 설치하여 기려왔다. 세월 따라 비각도 낡아 허물어지니, 1972년 8월 1일 공의 증손 정주화(鄭周和)가 양양읍 조산리 마을 안 아늑한 곳에 비각을 새로 짓고 공의 불망비(철비)를 옮겨 설치하였다. 공의 부인은 정부인안성이씨(貞夫人安城李氏)다. 당시 강원감사(江原監司) 김시연(金始淵)의 상소에 의하여 위유사(慰諭使)로 이천부사(伊川府使) 남중순(南鍾

順)을 임명하니 얼른 달려와서 이재민을 어루만져 위로했다. 한다.《철종실록：哲宗 11年 閏3月 17日(辛亥)》

- 이기재(李夔在)(1868~1934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수여리 태생으로 호는 황곤(黃崑)이다. 사서삼경과 문장에 능하였으며 서울에 교우가 많았다. 고종 30년 계사 2월 12일(1893년)세자궁 갑술생 경과 장원급제하였으나 적령(適齡)관계로 교지를 받지 못했다.
- 최영화(崔永華)哲宗(1854~1870년)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경은(耕隱)이다. 천자(天姿)가 영오(穎悟)하고 역행효재(力行孝悌)하여 향인(鄉人)의 양시(仰視)를 받았다. 농토 없는 실경자들에게 주전승답(斗田升畓)을 저렴하게 수력분배(隨力分配)하여 자력(自力)을 배양하였고 흠덕(欽德)이 지대하여 만인의 존대를 받았다. 고종 말년에 직강직(直講職)으로 취임하여 자선사업을 많이 하였다.
- 최예집(崔霓集)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융은(隆隱)이다. 고종 18년 신사(1881년)나아가우현앙(氣宇軒昂)하고 수예초군(手藝超群)하였으나 조세불숙(遭世不淑)으로 은거하면서 시주로 자위하며 세월을 보냈다. 면평의원으로 행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 고제달(高濟達) 관향은 장흥이며 호는 만송(晩松)이다. 재봉(霽峰), 경명(敬命)의 후손으로 고종 19년 임오(1882년)에 진사가 되고 시문에 능하여 세칭 고진사로 명성이 높았다.
- 김용직(金鎔直) 관향은 김녕이며 호는 우정(禺亭)이다. 규성의 아들로 고종 19년 임오(1882년)에 부사용(副司勇) 군란에 부자동시피회(父子同時被禍)하니 조정에서 승전사헌부감찰(承傳司憲府監察)을 추증하였다.
- 이석우(李錫宇) 관향은 전주이며 효령대군 손으로 고종조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 이계영(李啓泳)(1805~1886년) 관향은 함평이며 호는 청현(淸軒)이다. 철종 3년 임자(1852년)에 정산현감(定山縣監) 고종 21년 갑신(1884년)에 종2품을 받았다.
- 장현복(張鉉復)(1855~?) 관향은 인동이며 양양읍 사천리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한시문에 능했고 어린학동들을 모아 서당을 설치하고 한시문과 유학을 가르쳐 많은 학자를 배출했다. 고종 22년 을유(1885년)에 양양부사 이건옹(李建膺)과 같이 좌수(坐首：현 부군수격)로서 부업무를 충실히 보아 부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만년에는

정3품 통정대부로서 의정부에서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다. 후손은 손양면 상운리에서 거주한다.

- 황석만(黃錫萬)(1837~1885) 관향은 평해이며 자는 계용(季庸)이고 호는 창수(滄叟)이다. 풍채가 늠름하고 한학에 풍장하여 고종 22년 을유(1885년)에 성균관생원진사로서 명성이 높았다. 한말에 매관매직하는 부패한 사회에도 자성진사한 시부에 능숙한 양양이 낳은 명사로서 양양읍 거마리에 살았다. 다음은 그가 남긴 시의 한 구절이다.

양양사마문수수 노유무문총불기 백마청삼황지복 사십문장득의시
(襄陽司馬問誰誰 老幼無文總不奇 白馬青衫黃之福 四十文章得意詩)

- 전영평(全永平) 관향은 정선으로 고종 15년 무인(1878년)에 고종의 어의로 궁내에서 3년여 봉직하였으며 영평현감을 시작으로 3개 군수를 역임한 후 철원에 낙향하니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 이영규(李榮奎) 관향은 평창으로 명규(明奎)의 실제로서 고종 28년 신묘(1891년)에 진사생원이 되었다.
- 이명규(李明奎) 관향은 평창으로 호는 창석(漲石), 고종 31년 갑오(1894년)에 진사가 되었으며 정릉참봉을 지냈다.
- 이현우(李鉉愚) 관향은 평창으로 명규의 아들로 고종 28년 신묘(1891년)에 진사가 되었다.
- 함동수(咸東洙) 관향은 강릉으로 정평공 전림의 후손으로 고종 30년 계사(1893년)에 진사가 되었다.
- 정학시(鄭學時)(1898~1962년) 관향은 초계이며 호는 성습(聖習)이다. 광무 2년 무술(1898년)에 출생하여 한학을 공부하여 시부에 능하고 근검력행하여 가업을 이룩하고 자제교육에 열중하여 향리에 귀감이 되었다.
- 김 항(金 恒) 관향은 미상으로 노경륜(盧景倫)을 반항하다가 양양부사로 강등하였다.
- 김규성(金奎聲) 관향은 김녕이며 호는 지산(芝山)이다. 문기(文起)후손 고종 12년 을해(1875년)에 부사용(副司勇)이 되고 돈녕도정(敦寧都正)을 승임(陞任)하다. 임오군란에 피화(被禍)하니 승전공참(承傳工參)에 추수되었다.
- 조유벽(趙裕壁) 관향은 풍양으로 현남면 사람으로 심지가 강직하고 성품이 온후하

여 면민들이 흠양하였다. 조선말기에 원전결(元田結 : 완전한 밭)과 화속결(火粟結 : 새로 개간한 밭)을 구분 세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런데 수세관리가 현지답사하여 세액을 정하는데 친불친(親不親)과 부민과 천민에 의하여 세액이 불균형하였다. 당시 현북 현남 양면의 주민이 화속결의 세금이 과중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고초가 심하여 부영(군청)에 재소한즉 도리어 태형(笞刑)의 중벌을 받았다. 이에 공은 한사코 굴복하지 않고 항쟁하였다. 관가에서 다시 조사원을 보내 재조사한 결과 세금을 감축하고 균형을 맞춰 공평정대하게 되니 면민들이 공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인구리에 관란정(觀瀾亭)을 짓고 칭송비를 건립하여 영구히 기념하였다.

- 김성제(金聖濟) 관향은 경주이며 현산학교 교사로서 한문과 수학을 전담하여 한말 인재양성에 힘을 다하였다. 천품이 쾌활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산학통편(算學通編)에 능숙하고 만년에는 한의로서 사회사업에 공헌하였다.
- 이 쉬(李 睟) 관향은 홍주이며 호는 죽계(竹溪)이다. 참보변(參奉璠)의 후손으로 도암효재(陶岩孝緯)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3년 탈상 후 만년에는 임천(林泉)에서 금서(琴書)를 즐기며 여생을 보냈으며 많은 유집이 있다.
- 이 순(李 峴) 관향은 미상이며 자는 모고(慕高)이다. 이조좌랑에 이르렀다.
- 박창희(朴彰喜) 관향은 밀양으로 문장에 명성이 높고 그의 형 우희(雨喜)와 더불어 출중한 인물로 참봉직을 받고 시문으로 여생을 보냈다.
- 이지번(李之璠) 관향은 홍주이며 문간공서(文簡公舒)의 후예로 승릉참봉(崇陵參奉)이 되었다.
- 이희태(李熙泰) 관향은 평창이며 동추은(同樞垠)의 후예로 감역과 찰방을 지냈다.
- 이동섭(李東燮) 관향은 미상이며 익평공수남(翼平公秀男)의 후손으로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역임하고 돈녕도정(敦寧都正)에 오르다.
- 조 소(趙 樓) 관향은 미상으로 자는 심원(深源)이고 호는 북제(北齊)이다. 고성군수를 지내고 대헌한천군(大憲漢川君)에 증수되었다.
- 조여경(趙汝耕) 관향은 미상이며 자는 자야(子野)이고 천안군수를 지냈다.
- 정현동(鄭顯東)(1854~?) 관향은 초계이며 자는 경희(景晦)이고 호는 회산(晦山)이다. 한학에 능통했으며 의술에도 장하여 향리에서 존경을 받았다.

- 김명제(金明濟) 관향은 경주이며 풍모가 준수하고 거구에 거세(舉世)의 인기를 끌던 인물이다. 구한시대에 정위(正尉)로서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시종무관(侍從武官)을 지냈다. 근면하여 사회에 본보기가 되었다.
- 송달현(宋達顯) 관향은 미상이며 양덕(陽德)과 흙곡(歙谷)의 군수를 지냈기에 세칭 호인 양덕(陽德)으로 통한다. 인격이 고매하고 덕행이 출중하여 화목을 생활지침으로 삼고 시서문학에 정통하며 명문 김병기(金炳起)의 총애를 받았다.
- 이현규(李顯奎) 관향은 평창이며 호는 백우(白羽)이다. 문장으로 이름이 사해에 떨쳤다. 또한 양양의 대시호(大詩豪)로 추앙을 받았다.
- 이동식(李東植)(1865~1943년) 관향은 경주이며 자는 치일(致一)이고 호는 취정(翠亭)이다. 관명은 이상학(李相學). 이판사(李判事)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유명한 분이다. 인물이 잘나고 풍채가 좋으며 6척 장신에 가히 이르기를 천계일학(千鷄一鶴)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찍이 한말에 법부(法部) 판사(判事)로 순회하였고 고종(高宗) 신축 1901년 재판소 판사에 정3품의 위계까지 올라 명판사의 직책을 다하였다. 지사金玉均(金玉均)과 친숙한 개화의 인물로서 서울에서 태어났다면 고관대작은 틀림없이 될 인물이다. 지혜와 모략(謀略) 그리고 담대하고 과단성 있는 인물로서 3개 군(郡)의 가(假) 암행어사 출도를 하다가 맨 나중에 협곡현(歙谷縣)에서 발각되었으나 기지로 미연에 상경하여 죄과를 모면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 당시 3개 군현의 출도만 완전히 수행하면 진짜 어사가 된다고 하였다. 글 잘하고 인격과 풍채가 늠름하여 양양사회를 주름잡고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이름을 빛냈음은 물론 가히 양양 1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던 한 인물로 꼽아도 손색없다 할 수 있으며 그 후 귀향하여 79세로 일기(一期)를 장식하였다.
- 최영택(崔永宅) 관향은 강릉으로 호는 취정(翠亭)이다. 시서문장에 능하였다.
- 박증노(朴曾魯) 관향은 강릉으로 호는 근암(近庵)이다. 시문에 능하였다.
- 안승희(安承禧) 관향은 순흥이며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일본경찰에 종사하였으나 배일사상이 강함으로 사직하고 현산로(峴山麓)에서 평의원 학무위원 등의 사회사업을 하면서 유유자적 일생을 마쳤다.
- 윤규병(尹奎炳) 관향은 파평이며 양양의 갑부로 3천석의 추수를 하였으며 시문에

능하고 감역벼슬을 지냈으므로 윤감역으로 호칭되었다.

- 윤두재(尹斗在)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성사(星史)이다. 시문물에 능하였다.
- 이종만(李鍾萬)(1869~1949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대유(大綏)이고 호는 련우(蓮友)이다. 손양면 송현리에서 태어나 순종 3년 기유(1909년)에 종사랑(從士郎)에 문묘직원(文廟直員)을 역임하고 경학과 시물에 능하였으며 성품이 강직 명민하고 정직하였으며 직무에 임하여서는 매우 민첩하였다. 향당의 사림에서 대우하고 벗들도 존경하였다.
- 장호돈(張虎塾) 관향은 인동이며 경찰에 종사하다가 사법대서를 하였다. 올진태생으로 그 후손들이 이 지방에 살고 있다.
- 전정렬(全丁烈) 관향은 정선이며 강원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각지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일종시험에 합격하고 1943년에 현성국민학교장을 역임하다가 불치의 병마로 50미만에 조사하고 그 후예들은 외국에 거주한다.
- 장봉환(張鳳煥) 관향은 인동이며 한학이 풍부하고 시문에 능하였으며 강현면 서기로 시발하여 면장직으로 누년을 지냈으며 온후관대한 인물이었다.
- 김홍제(金洪濟) 관향은 경주이며 한학에 능하고 시물에 능하다.
- 김진우(金振瑀)(1872~1961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산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관을 지냈고 일찍 실업하여 치산(治産)하였다. 인후한 인격자로서 자제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전 김인기(金寅起) 국회의원의 부친으로 입지인이다.
- 어명근(魚命根) 관향은 함종이며 한문 공부를 하다가 농사에 전업하여 자수성가하였다. 근면히 일하여 유족한 생활을 하고 이장직을 맡아 10여년간 모범적으로 마을일을 불고가사하고 돌봐주었다. 교육에 힘써 자제를 성균관대학을 마치게 한 독농가였다.
- 김지하(金知河)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석담(石潭)이다. 한학이 심오하며 사서삼경을 통독하였고 시문에 능하였다. 용천리에 거주하면서 85의 고령으로 상수종신하였다.
- 이도행(李度行)(1891~1972년) 관향은 함평이며 호는 취흥(醉屹)이다. 손양면 주리에서 태어나 한학에 장하며 효심이 지극하여 조상의 치산에 전재를 투입하여 비석 상석 등을 세워 그 명성이 높았다.
- 김광룡(金光龍) 관향은 경주이며 여러 대(代)에 거쳐 서면 용천리에서 거주한 김씨 가문에 태어나 한문과 보통학교를 수업하고 가사에 종사하는 한편 목상을 하였다.

성격이 쾌활하고 사교성이 원만하고 친구 좋아하고 대인감정이 부드럽고 호감의 평이 높은 남아였었다.

- **김남호(金南湖)** 관향은 강릉이며 한문과 시률이 넉넉하고 짓고 읊을 수 있다. 관후한 인물로서 사교가 넓고 빈객의 접촉이 많아 향리에서 모를 사람이 없이 호호야(好好爺 : 인품이 아주 훌륭한 늙은이)이다.
- **김동옥(金東玉)** 관향은 경주이며 한학에 능하고 특히 서도에 명필로 이름이 높다. 서면장을 지냈다.
- **김중호(金鍾浩)** 관향은 김해이며 서면 상평리에서 태어나 양양보통학교 졸업하고 만주 건국대학에서 수학하였다. 대한시보(大韓時報) 부사장으로 언론에 투신하여 민주언론 창달에 일익을 담당한 혁혁한 공적을 세우는가 하면 고대의과대학 사무처장 겸 상무이사를 역임하며 육영사업에도 뉘 못지않은 공로를 세웠다. 그 후 북한지하에서 고생을 하는 혈벗은 향민을 구하려는 일념에서 6대 국회에서 용약, 불의에 굴하지 않는 투철한 이지와 드높은 지조의 소유자로 정평이 높다. 향토를 사랑하고 향민을 내 몸같이 섬기는 향토애와 애향심은 못 선량의 귀감이 되어 그의 용의주도한 수완과 대기의 용력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은 주위의 촉망을 한 몸에 받았고, 너그러운 인품은 ‘용장위의 지장’ ‘지장위에 덕장’ 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8대에까지 연이어 양양·속초·고성지구의 선량으로서 국회에서는 문공분과위원장으로 역대 정권에서 버림받다시피 하던 수복지구 개발사업과 특히 초·중학교 신설 등 교육정책에 남긴 업적은 지대하다. 국회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여 유유자적하였다.
- **김동한(金東翰)** 관향은 경주이며 한학의 소질도 있고 풍류호쾌(風流豪快)의 기상을 가졌으며 사교성이 좋고 친우관계가 깊었다. 음풍영시(吟風詠詩)도 잘하고 바둑에도 능숙하였다. 만년에는 임천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80상수로 천명을 다하였다.
- **김세환(金世煥)** 관향은 강릉이며 구명은 김석준(金錫俊)이다. 강현면 금풍리에서 태어나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강원도사범학교 입학하여 졸업 후 속초 영랑 유천 안변 각 학교를 거쳐 광복 후 서울시장학사를 지내고 부평국민학교 등 몇 학교교장을 역임, 5척단구로 담대하고 점착력성격(粘着力性格)으로 사교술에 능하고 초지일관의 강력한 교육자였다.

- **고광렬(高光烈)** 관향은 장흥이며 양양보통학교 졸업하고 다년간 경찰에 종사하고 생활근거를 춘천에 두고 행정대서소를 개업하면서 유유자적했다.
- **김재수(金在洙)** 관향은 김해이며 반공사상이 투철 월남하여 서북청년으로 맹활동하다가 호림부대에 편입 고성의 국사봉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전멸 해산하여 요행으로 생존 귀환한 용사였다.
- **강영제(姜永齊)** 관향은 진주이며 현북면 대치리에서 태어나 춘천농업학교 졸업하고 양양 강릉 속초 등지에서 착실하게 교편생활을 하였다. 독특한 재질을 가져 미술 교육에 힘써 명성이 높았으며 교감직위까지 승진했었다. 한때 철원지방에서 개간사업을 단행하기도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 **권오명(權五明)** 관향은 안동이며 풍채 늠름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가히 호걸형이었다. 시문도 능하고 현북면장으로 치적도 높다.
- **김성서(金聖瑞)** 관향은 경주이며 현북면 태어나 한일합병의 치욕에 양양사람으로 맨 먼저 의병에 가담하여 한국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였다. 항일의식과 애국충렬이 강열한 공은 모병장 이강년(李康年)과 더불어 각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사력을 다하여 항쟁하니 일병도 손을 쓰지 못하고 패주했다. 명주군 연곡면지구 전투가 가장 치열하여 많은 일군과 싸우다 적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다. 사경을 헤매고 있던 중 연곡 홍진사 부자의 도움으로 홍진사 집에 업혀갔다. 홍진사의 극진한 간호에도 공은 그 곳에서 종신했다. 영웅호걸도 시대를 못 만나 의지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명목(瞑目)하였다. 후문한 자제들이 몰래 시신을 운구하여 현북면 명지리 묘지에 안치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신위와 충령은 현산공원 충혼탑에 진좌(鎮座)하여 호국의 신으로 모셔져 있다.
- **김재기(金在起)**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대려(大呂)이고 호는 소소(笑笑)이다. 항상세소아아세소(恒常世笑我我世笑)라 하며 궁내부 주사를 지냈으며 한말의 정세를 개탄하고 주유천하(周遊天下)하며 문장과 해학재담으로 명성을 떨치니 소소선생하면 경향각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호아소인인소아세인상시도시소 차소년생다소사장욕무소환유소

(號我笑人人笑我世人常是都是笑 且少年生多笑事張欲無笑還有笑)

- 김익제(金翼濟) 관향은 경주이며 인격이 고매하고 견식이 풍부하며 문학이 탁월하여 사판(士判)벼슬과 양양면장을 지냈었다.
- 김진택(金振澤)(1876~1943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적은리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시문과 바둑에 능하였고, 자녀 신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강현면장을 지냈고 호를 몽팔(夢八)이라 하였다.
- 김문배(金文培) 관향은 김해이며 글을 잘하고 강현면장을 역임하였고 배일사상이 투철하였다. 일본 북해도 등지를 방랑하면서 반일로 종신하였다. 야외한정계일성(野外閑情鷄一聲)이라고 윤기병이 읊으니 정중호의어천년(井中好意魚千年)이라고 즉답하는 시문에 능통하였다.
- 이증한(李鍾漢)(1881~1937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수여리 태생이다. 자는 수선(秀善)이고 호는 매빈(梅濱)이다. 한학에 뛰어나고 시문에 장하였다. 손양면장을 지냈고 금융조합 평의원과 도의원까지 역임한 명성이 쟁쟁한 인물이었다. 1908년 고광두의 사건 등 일제의 만행에 억울하게 고통 받는 향민을 보호 구원하는데 일조하였다.
- 김중협(金重協)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금산(錦山)으로 사서삼경과 시문에 전념하였다. 박학다문하고 고직한 성격으로 후예와 향리 청년에 성의를 다해 교육하였다.
- 고종화(高鍾華) 관향은 제주이며 한학이 풍부하고 승려로서 명주사주지를 역임했다.
- 김동식(金東軾)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매은(梅隱)이다. 경서시문에 능통하여 매은시집도 간행하였다. 구한국시대에 궁내부주사를 지냈고 그 후 향리에 은퇴하여 유유자적 시서에 한일월하였다.
- 이제원(李濟元) 관향은 경주이며 덕행이 출중하고 근엄한 인물이다.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면서기로 다년 봉사하였고 신구학문에도 능달하였다.
- 김동순(金東洵) 관향은 경주이며 시인으로 명망이 높았고 군용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서도에 능하여 명필이라 칭한다.
- 최인식(崔寅植) 관향은 경주이며 형은 병식(丙植)이다. 형제가 시조명필로 이름이 높다. 양양의 재사로서 첫손 꼽으며, 5척 단구나 대담하고 경세에 능하였다. 기미만세 때는 선도적 역할을 하여 옥고를 치른 투사로서 토목공사와 건축업으로 양강에

추종할 자가 없이 독무대에서 활약하였고 독립투사 사업가로 명성이 높았다.

- 김우제(金宇濟) 관향은 경주이며 30세 전후 한학훈장으로 각지에서 교편을 잡았고 서면장을 8년간 역임하였고 명망이 높았다.
- 이두형(李斗炯)(1834~1919) 관향은 경주이며 청년시절 일시 경찰에 투신하였으나 항상 배일의 뜻을 품고 공념을 느끼고 독립을 기원하였다. 기미년 독립만세가 일어나자 선두에서 만세를 절규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태형을 받아 그 여독으로 조사하니 그 충혼을 현산공원 충혼탑에 안치, 호국지신으로 모시었다.
- 김학수(金學洙)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내곡리에서 태어나 양양보통학교를 거쳐 서울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양양이 낳은 수재였다. 군속을 거쳐 인제, 울진, 고성군수를 지냈고 회양군수로 전임 중 득병하여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다. 장신의 체구로서 위풍이 당당한 거물인사로서 말 잘하고 글씨 잘 쓰는 미남의 풍모를 갖고 인기를 독점하였으며 일제가 공의 소유지에 신사를 건립하려함에 극구 불허하니 일인과는 빙탄(氷炭)의 사이였다.
- 김영경(金永卿)(1869~1965년)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취암(翠庵)이다. 시문에 능하고 한학이 풍부하며 손양면장과 평의원 등 경제계에 봉사하여 명성이 높았다.
- 김동형(金東瀾)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내곡리에 우거한 김주사로 통하며 인격이 높고 언행이 고결하며 과묵한 인물로서 시문필에 능한 명망 높은 인물이다.
- 신세묵(辛世默) 관향은 영월이며 시문도 잘하며 성격이 고매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사교적이고, 배일사상이 강하며 삼일운동 만세를 함흥기 의사 등과 선두에서 지휘하였으며 만세 후 1년의 옥고로 불행히 50세로 조사했다.
- 김성렬(金聖烈) 관향은 경주이며 현산학교를 마치고 다년간 양양면장을 지냈다. 그 치적은 훌륭하였었다.
- 김창렬(金昌烈)(?~1978년)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내곡리에서 태어나 양양보통학교와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이어 군속이 되어 춘천, 철원, 강릉, 철원군에 근무하다가 1944년 3월 영월군수가 되었다. 광복 후 삼척과 춘천경찰서장을 지내면서 억울하게 체포된 시민들을 돕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미군정당시에는 서울중앙소방위원장과 1949

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치안국 초대소방과장이 되었으나 신병으로 퇴임하고 서울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한때는 국회의원에도 출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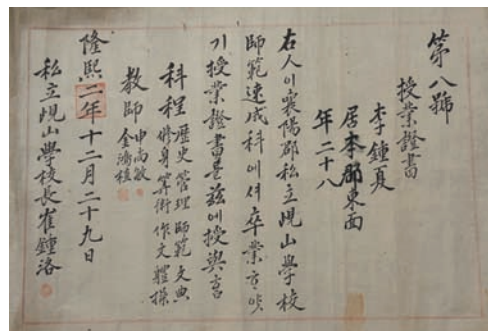
- **김종경(金鍾卿)(?~1982년)** 관향은 김해이며 양양읍 율리 김백수(金伯洙)의 장남이다. 부친이 국민학교 교사인 관계로 도내 각지를 전전하면서 생활하였다. 춘천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보성전문학교 법정과를 졸업하고 춘천사범학교 교사로 근무 중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대검찰청장이 되었다. 이어 11대 국회의원(전국구)에 피선되어 정치무대에서 활약하는 한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로서 영세한 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남달리 심혈을 기울였었다.
- **김성기(金聖基)(1881~1944년)** 관향은 연안이며 호는 의현(毅軒)이다. 손양면 우암리 태생으로 한학자이다. 사서삼경을 천독하고 흑한과 흑서에도 화로와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다. 언약을 중히 여기고 배일사상이 농후하여 일제품을 외면하였다. 서당을 개설하여 한학에 힘쓰고 영농기술에도 뛰어났다. 부친 운명 시 단지주혈하여 3년을 연장케 하고 3년상에 조석시묘하고 어육을 금하였다. 광복의 남북분단을 예언하여 전원에 삶을 약으로 여기라고 교훈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시문과 서예에도 능숙하였다.
- **김선배(金善培)** 관향은 김해이며 성품이 너그럽고 예의겸양의 덕을 구비하였으며 상하간에 친근화목하여 남을 존대하는 대인감이 좋고 호변의 재간과 능담을 좋아하며 시를에도 장하고 팔도강산을 편답하며 교우와 시문을 논하였다.
- **김현학(金顯學)** 관향은 김해이며 강현면 상북리 태생이다. 중년에 태을교를 신봉하고 강원도참정원장에 올라 교세확장에 정력을 다하다가 정세불리함을 깨닫고 이탈했다. 신간회(新幹會) 부회장으로 활약한바 있다.
- **장세환(張世煥)**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장 수십 년에 치적이 높았고, 독립사상과 배일투쟁에 힘쓰고 3·1운동과 농민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3·1운동에 앞장서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
- **장병환(張秉煥)** 관향은 미상으로 서면 서선리 재산가에서 출생하여 서면장을 지내고 자녀교육에 힘썼다.

- 남태희(南泰熙) 관향은 미상으로 시서에 능하고 인격 고매, 불언묵묵 실천 위주의 생활로 물치산장에 우거했다.
- 고덕주(高德柱) 관향은 장흥이며 손양면 하양혈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한학을 공부하고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군고원으로 발탁되어 경리에 밝고 성의껏 복무하였다. 부인 경주김씨와 결혼 10년 만에 자수성가 토지 13만평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으며 '노력하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일약 군속이 되어 판임관의 지위에 올랐다. 공은 점차 승진하여 권업과장을 지냈고 1940년에 이사관으로 퇴직하고 남문리에서 생활하다가 8·15광복이 되자 그해 겨울 월남하여 서울에 안착했었다.
- 전재우(全在禹) 관향은 정선이며 현남면 북분리에서 태어나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하여 경시를 거쳐 회양군수 양양군수까지 승진한 노력가로서 행운의 인물이었다.
- 김정순(金定淳) 관향은 경주이며 한성사범학교 출신으로 안동 양양학교 교사 역임하였다. 일약 한국인 최초로 여자 교장이 되어 창춘 매화 지식학교를 전임하고 불후의 공적비가 창춘학교교정에 세워졌다. 8·15광복 후 양양면 인민위원장이 되어 허수아비노릇을 한바 있다.
- 김음배(金蔭培) 관향은 김해이며 강릉보통학교 졸업하고 복천서당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일제 때에는 경찰, 강현면장을 지내다가 광복 후 월남하여 행방불명되었다.
- 김남영(金南榮)(1889~1960년) 관향은 강릉이며 자는 종오(鍾五)이고 호는 우(愚)이다. 한시문에 능하였으며 강현면 침교리(站橋里)에서 치산(治産)에 힘쓰고 일문에 교육가를 많이 배출시키게 한 언행일치의 모범인이었다.
- 장명식(張明植) 관향은 인동이며 경찰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현남면장을 지낸 성실한 인물이었다.
- 추흥엽(秋興燁)(1901~1945년) 관향은 추계이며 강현면 둔전리에서 태어나 춘천농업학교 졸업하고 군 산림계, 금융조합에 근무하며 식산산림에 종사하였다.
- 이규남(李圭南) 관향은 경주이며 반일의식이 투철하였다. 부친 이흥영을 잘 봉양하였으며 반공정신이 강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반공투사였다. 6·25한국전쟁 때 피난 도중 병사하니 부친보다 10여 년 전에 사망했다.

- 장봉환(張鳳煥) 관향은 인동이며 한학이 풍부하고 시문에 능하며 강현면 서기로 시작하여 강현면장으로 승진하고 온후관대하였다.
- 정관시(鄭寬時)(1883~1945년) 관향은 초계이며 현남면 전포매리 태생이다. 시문에 능하였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며 제4대 현남면장을 지냈다.
- 고봉래(高鳳來) 관향은 제주이며 손양면 송전리 태생이다. 사서삼경을 무불통지하고 시문에 능하고 열변가이며 서도에도 능한 양양 삼재중의 한사람이다. 만년에 서울서 한약국을 경영하였다.
- 김봉수(金鳳洙) 관향은 김해이며 강원도사범학교 졸업하고 15년간 교편생활을 하였다.
- 김주백(金周百)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보통학교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하여 산림주사로 국경지대에서 종사하였다. 광복 후 축협외 간사로 활약하였다.
- 박승호(朴升浩) 관향은 밀양이며 양양읍 사천리 명문가에서 태어나 서울 제일고보를 나와 강릉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다가 학교 서무를 거쳐 광복과 더불어 교사, 교장을 지냈고 양양교육구청 서무과장을 지냈다.
- 노병중(盧炳宗) 관향은 광주이며 한문과 시문에 능하고 서면장을 지냈다.
- 전익수(全益守) 관향은 정선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의 기수로 각군에 전임하여 지성으로 산업개발에 힘썼다.
- 이연호(李然浩) 관향은 평창이며 사서삼경에 능통하고 시부에 뛰어난 한학자다. 동리 자제들에게 한학과 도의를 훈도하였다.
- 김남제(金南濟)(1883~1949년) 관향은 강릉이며 한학이 풍부하고 시문도 잘했다. 현산학교를 졸업한 후 용호리에서 우거하며 인격이 고상하고 분명하여 향리의 존경을 받았다.
- 이찬우(李燦雨) 관향은 경주이며 한학이 풍부하고 면서기를 거쳐 강현면장을 역임했다.
- 고광수(高光秀)(1879~1930년) 관향은 제주이며 자는 공무(公武)이고 호는 호헌(湖軒)이다. 한학에 능하고 한의학을 전공하였는데 청산유수의 언변과 능소능대하는 재간이 있어 그 명성이 경향각지 호남까지 널리 알려졌다.
- 고광현(高光顯)(1887~1954년) 관향은 제주이며 자는 문달(文達)이고 호는 운창(雲滄)이다. 서당훈장으로 교육사업에 생을 바쳤다.

- 김중순(金鍾淳) 관향은 김해이며 다재다능하며 면서기를 지냈고 강현면, 손양면 부면장을 지냈다.
- 신명철(辛明喆) 관향은 영월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 강습과를 수료 후 철원국민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발탁되어 강현농잠학교 양양실천여학교의 교유(敎諭)가 되었고 광복 후 양양 인제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양양명륜중학교 교감을 지냈다.
- 김인순(金寅淳) 관향은 경주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조합에 다년간 복무하며 광복 후 적은국민학교 교장을 지냈다.
- 이교태(李敎台)(1892~1968년) 관향은 함평이며 본명은 태행(台行)이다.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군고원으로 보문(普文)에 합격하여 군속(군주사)을 지냈다.
- 김동원(金東元) 관향은 경주이며 일찍이 상경하여 구청장을 지냈다.
- 김동억(金東億) 관향은 경주이며 한학에 명필의 대가로서 기재를 발하여 명성이 높았다.
- 김정엽(金鼎燁)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내곡리 태생이다. 김주사의 맏아들로 군에서 성장한 사무가이다. 성격이 잔잔한 호수 같고 아량이 넓으며 포용력이 많은 인격자였다.
- 김경엽(金璟燁) 관향은 경주이며 강원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장까지 역임한 순수한 교육자이다.
- 김영제(金暎濟) 관향은 경주이며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실업에 종사하다 귀국하여 치산(治産)에 힘쓰고 광복 후 치안대(자위대)를 조직 군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양양변영회장으로 업적을 쌓았고 낙산사 재건에 많은 협조와 육영사업에 뜻을 품어 향교재산을 투입하여 명륜중학교를 세우는데 힘썼다.
- 박세환(朴世煥)(1888~1971년)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무계(武溪)이다.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치산경제가이며 10여 년간 손양면장을 역임하였고 자제교육에 힘써 대학에 진학시켰고 유학에 조예가 깊고 시를도 잘했다.
- 장연시(張續時) 관향은 인동이며 호를 성산(惺山)이다. 한학가로 시문에 능하고 풍수지학으로 특재를 발휘한 대가였다.
- 장원식(張元植) 관향은 인동이며 일제치하에 경찰관을 지내다가 양양면장을 역임하고 광복 후 자제교육에 힘썼다.

- 이경섭(李京燮) 관향은 안성이며 호는 하산(霞山)이다. 시서에 능하고 수복 후 향교 재건과 명륜중학교 건립에 큰 공을 세웠다.
- 박광언(朴光彦)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매은(梅隱)이다. 시문과 경학에 능하고 가돈훈학(家塾訓學)하였으며 식산(殖産)의 재(才)에 장(長)하고 자수성가한 경학의 대가이다.
- 전인수(全仁守)(1902~1962년) 관향은 정선이며 한학도 풍부하며 양양읍내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한방의로서 인술을 베풀어 명성을 떨쳤다.
- 추홍엽(秋洪燁)(1887~1970년) 관향은 추계이며 온순한 인품에 경서시률에 능통하고 강현면 서기를 거쳐 면장을 역임하고 추씨일족(秋氏一族)의 개화에 눈을 돌려 중중재(宗中財)를 투입하여 육영에 앞장선 인물이다.
- 김주학(金柱學)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초등학교, 강릉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금융조합에서 종사하다 광복 후 교육계에 투신하여 양양학교에서 근무하다 현서국민학교에서 봉사하였다.
- 이영모(李永模) 관향은 평창이며 강현면 회룡리에서 태어나 대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교원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각지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인구국민학교에서 교감을 역임하고 수복후 인흥·현서·송포·회룡국민학교장을 지냈다.
- 이종해(李鍾夏)(1881~1962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성중(聖中)이고 호는 설강(雪崗)이다. 손양면 태생으로 1906년 남궁 역(南宮 億) 군수가 설립한 현산학교(峴山學校)에 입학하여 1907년 5월 30일 현산학교 보통과 제1학년을 수료하고, 1908년 12월 29일 현산학교 사범과를 졸업(제1회)과 동시 당시 위산면(位山面) 위천서당(渭川書堂 : 지금의 양양읍 사천리) 교사(教師)로 임명되었다. 이어 위산면 이산서당(二山書堂)에서 교수하였고, 일제 강점 후 1912년 2월 3일 양양군에서 시행한 제1회 서당교사 강습을 수료하였으며 1914년 2월 17일 동면(東面) 한동서당(漢東書堂) 교사로 임명되어 수많은 학동을 교육하였으며, 1919년 기미 3·1운동 때는 공의 제자들이 만세운동의 선두에 나



현산학교 사범과 졸업증서

셨었다. 관동(關東)의 거유(巨儒)로서 사서삼경에 통달하고 시문의 문장가였다. 교육에 지엄하여 문하(門下)에 많은 명사(名士)를 배출하고, 명문거족으로 명성을 떨치고, 문묘직원(文廟直員)으로 경인병화(6·25한국전쟁)에 회로(灰爐)한 양양향교의 중건 복원에 공적을 남겼다. 명륜중학교 건립에 심혈을 바쳐 후일 지대한 공적을 찬양하여 1964년 6월 10일 성균관장(成均館長)의 감사장이 증정되었다. 시부(詩賦)에 능하여 많은 문집을 남겼으며 양양향교 교정에 찬(撰)하신 향교중건비문과 교정비문이 각명 수립되어 있어 그 업적을 영원불망(永遠不忘)하는 침비(沈碑)라 하겠다.

- 김주학(金周學) 관향은 미상이며 현북면 말곡리 태생으로 농촌의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호화관 유학 생활로 서울제일고보를 졸업한 수재로 만주에서 한인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 심한준(沈漢俊) 관향은 청송이며 한학이 풍부하고 성품 유순하고 고매하여 동민의 존경 속에 서당훈장을 지냈고 기미년만세 때 90도(度)의 태형을 받았다.
- 황낙주(黃洛周) 관향은 평해이며 황진사의 장자로 양양읍 거마리에서 출생하였다. 신학을 공부하고 경찰에 투신하였다가 산림주사로 전직하여 다년간 산림행정에 종사하였다.
- 함중태(咸鍾台)(?~1947년)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건암(健岩)이다. 재골[瓦里] 함학자(咸學者)라면 이 지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서삼경에 통달한 고명의(高名醫) 대유(大儒)로서 시문에도 장능, 양양·강릉에서 사경에 처한 많은 환자를 구제하였으며 역학에도 조예가 깊고 풍수지리학에도 박학다식하였다.
- 김원식(金元植)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서기로 출발하여 면장을 다년간 지냈다. 유도에 열중하고 명륜중학교 건립에 협력하고 국가재건운동에 헌신하여 3·1운동 당시 만세의 선도자로서 옥고를 받았다.
- 이정우(李鼎雨)(1889~1965년) 관향은 경주이며 개화에 뜻한 바 있어 신학만을 닦고 산림주사로부터 서면 면서기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용천리에 우거하였다.
- 김철기(金鐵起)(1882~1949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사교리에서 태어나 3·1운동 때 선두에서 동민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가, 일경에 체포되어 3년여 옥고를 당하고 1947년 호림부대가 이 고장에 들어왔을 때 앞장서서 모든 조직과 연락하여

부대를 도왔다. 이로 인하여 체포 투옥되었다.

- 김현주(金顯周) 관향은 김해이며 호는 해주(海周)이다. 강현면 상북리에서 출생한 세칭 식목할아버지이다. 6·25한국전쟁 전에 춘천지역에서 농사와 식수사업을 하다 동란에 남하 중 가족과 이산하고 남한일대를 탐문유랑하다가 산림녹화에 뜻을 품고 배낭 속에 전정가위, 화초씨앗, 묘목을 가득 넣고 전국의 학교, 관청, 연구기관을 방문하면서 녹화운동을 전개한 상록수였다.
- 김홍식(金鴻植)(?~1947년) 관향은 김해이며 손양면 여운포리 태생이다. 고종 때 광무 7년 계묘(1903년) 군에 입대 조선육군참령(朝鮮陸軍參領)이 된 양양이 낳은 군출신 인물이다. 일제침략에 항거하다 일제강점의 비운으로 한국군의 강제해산으로 비분을 품고 하향하였다. 현산학교에 출사하여 일어와 체육을 담당 교수하면서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심혈을 다하였다. 현산학교의 폐교로 은둔생활을 하다가 8·15광복이 되자 학교에 초빙되어 체육과 교련을 담당하면서 애국정신을 불어넣어준 한말의 영관(領官)출신 인물이었다.
- 김환배(金桓培) 관향은 김해이며 한문에 소양이 있고 호변가로서 김삿갓과 같은 해학가로서 8도를 역방하면서 영시와 친교로 낙을 삼고 방랑한 재사였다.
- 김재호(金在鎬) 관향은 김해이며 호는 죽헌이다. 한학이 풍부하고 해사로 치부, 현북면 대치리 구택에서 일기를 마쳤다.
- 추종엽(秋宗燁)(1896~1953년) 관향은 추계이며 강현면 둔전리 태생으로 경성의 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양양, 삼척, 속초에서 공의를 거쳐 개업하여 지방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 박도환(朴道煥) 관향은 강릉이며 강원도교원양성소를 수료한 후 정선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으며 2중훈도시험에 합격하였다.
- 이영달(李永達) 관향은 전주이며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전매서에서 근무하였다.
- 이양수(李陽洙)(1905~1927년) 관향은 전주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계통에서 근무하였다. 손양이 낳은 인재의 한사람이다.
- 고광두(高光斗)(1884~1963년) 관향은 제주이며 자는 군칠(君七)이고 호는 일오(一悟)이다. 조실부모하고 효제지도(孝悌之道)와 겸양지덕으로 교회(教悔)하고 가훈이

지엄한 가문에서 조모 장씨(張氏)의 애무를 받아 성장하면서 사서삼경을 독파하였다. 1908년에 일본헌병 포수의 불경멸지액(不敬蔑之厄)으로 가문에서 참화를 당하니 가히 왜구(倭仇)의 잔학상을 현장에서 목격케 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장씨의 자부가 베틀(織造機)에 앉아서 베를 짜는데 일병 포수가 다가와서 부인을 보고 별빈(別嬪)이라고 농담하는 것을 자제들이 듣고 크게 질책하니 포수가 붙잡고 무인지경에 가서 무조건 총살하였다. 세 자제가 뒤쫓아가 대성책망하니 3인 모두 총살당했다. 불구대천의 원수 일본 놈의 잔학상이 천하에서 광란하지 않았던가. 그 후 10년이 지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니 고씨일문 일체봉기하고 공은 선두에서 나아가니 체포되어 끌려갔다. 다행히 참사 이종한(李鍾漢)의 주선으로 옥고는 면하였으나 고씨일문과 전동민은 모진 태형을 받았다. 지엄한 공이 운명할 때 자제들을 불러 놓고 ‘항상 우애하고 효제하는 귀감이 되라’ 유언하였다.

- 이홍영(李鴻榮)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춘강(春岡)이다. 호탕한 성격에 내유외강하며 대담무쌍한 용기와 활달한 기품은 타인을 경탄케했다. 한말(韓末) 약관에 뛰어난 기지와 달변으로 일본헌병대장을 설득하여 사지에 빠진 애국동포들을 구출하였다. 사실인즉 항일투사 수많은 체포되어 헌병대장 앞에 끌려갔다. 공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렵니까?” 헌병대장 “불순분자들이니 죽이려한다.” 공 “여보 대장님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 대장님의 오명은 천추에 남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장은 “그도 그렇구나”하고 모두 석방하였다. 현산학교를 세우는데 남궁억 군수를 도와 큰 공을 세웠고 동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국문과 한문을 담당하였다. 일제 때 양양면장을 지냈으며 물산운동(物産運動)을 전개하고 8·15광복과 동시 건국청년회를 조직하고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 김춘기(金春起)(1882~1970년)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창사(蒼史)이다. 양양읍 포월리에 터전을 잡고 누대를 이어 유족한 천복을 받았다. 시부에 능하며 문장대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과객을 잘 대우하여 명예를 올렸다. 기우정(耆友亭) 비문은 공의 수작이며 만년에는 불문에 뜻을 두고 예불하면서 요산요수의 낙(樂)을 누렸다.

- 홍중희(洪鍾熙) 관향은 남원이며 자는 중호(仲鎬)이며 손양면 여운포리 태생이다. 일제 때 함남주사(咸南主事：郡屬)를 지내고 신흥 문천군수를 역임한 양양의 인재였다.

- 최 정(崔 晶) 관향은 경주이며 손양면 여운포리 출신이다. 호걸형으로 양양 속초경찰서장을 지냈고 퇴직 후 상경하여 실업을 개척, 여유있는 생활을 한 입지인(立志人)이다. 인정이 두터워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 박중순(朴鍾舜) 관향은 밀양이며 성내리 태생으로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북경대학을 중퇴하고 귀경하여 실업계에 투신하였다. 광복 후 재산을 정리하고 조선일보를 경영하기도 했다.
- 김세환(金世煥)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금풍리 태생으로 구명은 김석준이다. 강원도사범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 중 속초에서 해사를 하기도 하다가 광복 후 서울시 장학사로 행정수완을 발휘하고 인천국민학교장을 지냈다.
- 김주황(金周璜) 관향은 경주이며 호는 반계(潘溪)이다. 손양면 남양리에서 누대를 거주하였으며 유학으로 이름이 높아 시문물에 능하고 수신제가의 도를 다하였다.
- 오병근(吳炳根) 관향은 해주이며 현북면 광정리 태생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고원으로 봉사하였으며 광복 후 현북면장을 지냈다.
- 장문환(張文煥) 관향은 인동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조합에 다년간 근무하다 광복 후 강현면장을 지냈다. 시문과 서예에 능하였다.
- 김종섭(金鍾燮)(1888~1975년) 관향은 김해이며 호는 성암(醒岩)이다. 복천서당의 훈장과 장기간 면서기로 근무하였으며 학무위원 평의원의 명예직에도 여러 번 지냈다. 독농가로 표창도 많이 받고 시문과 서도에도 능하여 문호로 이름이 높았다.
- 최훈집(崔勳集)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석제(石齊)이고 양양읍 조산리 태생이다. 60세가 넘어 한약방을 개업하니 명의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88상수하였다.
- 최응주(崔應周) 관향은 강릉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보문(普文)에 합격한 천재다. 삼척군 등 각군의 속관(屬官)을 역임한 후 양양에서 사법대서를 개업하고 노부에 효성을 다했다.
- 김필진(金弼振) 관향은 강릉이며 강릉에서 입주하여 공익사업에 헌신했다. 양양변영회를 육성하여 시가발전에 힘썼고 전기가설유치에 크게 공헌했다. 읍내 학교 육성회원으로 불고가사(不顧家事)하면서 인쇄업을 경영했다.
- 김민해(金敏河) 관향은 경주이며 손양면 상운리 태생이다. 다년간 경찰에 종사하였

으며 6·25한국전쟁 후 양양군 치안대장으로 질서 회복에 힘썼으며 향리의 전원에
서 유유자적하였다.

- 오국현(吳國鉉) 관향은 해주이며 현북면장을 역임하였다. 능변가로 기억력이 비상
하여 육법전서를 암기한 재능가였다. 의지력이 강하고 저항력이 투철하여 불굴의 정
신으로 반공투쟁을 하다가 피체되어 체형을 받고 수감생활 중 국군의 진격으로 총살
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귀환한 반공투사였다.
- 송학봉(宋學奉) 관향은 여산이며 반공투사로서 적구에 대항하다가 체포되어 반동
죄목으로 4년형을 받고 복역 중 국군 진격 시 탈출 귀환한 용사이며 자유수호를 위
하여 헌신 투쟁하였다.
- 함규영(咸圭榮) 관향은 강릉이며 시와 한학에 능하고 의서도 많이 공부하여 한의사
로서 80 고령으로 손양면 하왕도리에서 개업하였다.
- 김 강(金 樞) 관향은 경주이며 구명은 민수(敏守)이고 양양읍 성내리 태생이다. 강
원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해·이천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석왕사(釋王寺)에 들어가
독학하여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만주국에서 개업하였다. 광복 후 귀국 강릉지청 검
사가 되었다가 다시 춘천에서 개업한 법조계의 중진이었다.
- 이병두(李炳斗) 관향은 평창이며 한학과 시문에 능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았다. 현
남면장을 지냈고 향리에 식수를 권장하여 백년대개를 도모한 조림사업가였다.
- 김종현(金鍾鉉) 관향은 경주이며 의원을 개업하여 인술로서 환자를 치료하니 그 명
성이 높았다. 특히 빈곤한 자에게는 무료치료의 자비를 베풀었다.
- 이교학(李敎學)(1902~1970년) 관향은 함평이며 호는 서석(西石)이고 본명은 원행
(瑗行)이다. 한학이 풍부하고 시문일수(詩文一首)도 잘했다. 예절바르고 인격이 고상
하여 친구친교(新舊親交)를 좋아하고 목상을 하면서 양양읍 서문리에서 살았다.
- 김봉학(金鳳鶴)(?~1974)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서문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
졸업하고 영림서에 입서 후 산림보호에 힘썼다. 광복 후 주야불변 영농으로 치가에
힘을 다하고 겸손한 예의인 이었다.
- 윤시중(尹時重) 관향은 파평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교원으로 다년간 종사
하다가 군산업기수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귀향하여 감농 자적하였다. 광복 후 청우

당에 가입하였다가 곧 탈퇴하고 월남하여 민주당원으로 강릉지구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였으나 뜻은 이루지 못하였다.

- 노재흥(盧在興)(1907~1962년) 관향은 광주이며 한문을 수학하고 양양보통학교를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한 관후한 인물이었다. 1950년 수복 후 양양면장을 역임하였으나 모함과 오해로 많은 고초를 받았다.
- 김종명(金鍾鳴) 관향은 미상이며 양양보통학교를 졸업 후 서울제일보고에 입학하였으나 가세 빈곤으로 중퇴하고 경기도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경기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강원도에 전입하여 평창도암국민학교장 근무시 광복을 맞고 인구국민학교장도 지냈다. 6·25한국전쟁 전에 회룡국민학교장과 양양군교육과장을 지냈다.
- 김창건(金昌建)(1911~1973년)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만주에서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통역 및 운전기사로 종사하다가 광복 후 귀국하여 수복 후에는 양양치안대 경비주임으로 치안유지와 반공투쟁에 앞장섰다. 공직생활과 이장직도 맡아보았다.
- 고성재(高聖在)(1910~1974년) 관향은 제주이며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하여 경감까지 진급하여 고성·횡성·철원경찰서장을 역임하였다.
- 탁상호(卓相湖) 관향은 광산이며 양양읍 성내리에서 태어났다. 양양보통학교 졸업하고 도속관으로 강원도립 종축장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광복 후 어업조합 부이사로 수산계에서 능력을 날렸다.
- 김동각(金東珪)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사교리에 거주하였다. 한학이 풍부하고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수복 후 적은국민학교장을 지냈다.
- 엄주석(嚴柱石) 관향은 영월이며 호는 황헌(篁軒)이다. 현남면 태생으로 공은 복사광(僕射光)의 후예이다. 성품이 온후하고 무실근검(務實勤儉)하여 요부성가(饒富成家)하였다. 빈한한 사람을 구휼하는데 앞장섰다. 많은 재산을 내놓아 홀민하니 관부에서 포상하고 1935년(을해) 12월 2일 공적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비원문 : 惟公厚德 先期惠民 捐金充稅 咸有服慈(유공후덕 선기혜민 연금충세 감유복자)
 원문 해석 : 공의 성품이 후덕하고 먼저 굶주린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사재를 털어 빈민의 세금을 납부하여 주니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자한 마음씨에 탄복하였다.
 이 비는 광진고개 남쪽 언덕에 세워져 있다.

- 김경배(金景培) 관향은 김해이며 자는 군명(君明)이다. 서면 영덕리 태생으로 43세에 3·1만세운동 선봉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왜병의 총에 맞아 상투가 떨어지고 체포되어 투옥, 고문에 항거하니 사살하라는 왜경의 고함에 가족들이 용서를 비니 금전 상납을 요구함으로 그 즉시 강현면 석교리 답 10두락 장산리 답 8두락을 매각하여 상납하고 석방되었으나 그 여독으로 36년간 고생하였다.
- 김달규(金達圭) 관향은 경주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양양군청에 근무하다가 광복 후 불출문하고 농사에 종사하였다.
- 김윤배(金允培) 관향은 김해이며 강현면 상북리 태생이다. 한학을 배우고 농사로서 성공증농으로 부유하게 살다가 장자 김종우(金鍾禹)가 반공투사로 북한에 체포되어 생사불명을 노심조사하다 생을 마쳤다.
- 김영근(金英根) 관향은 경주이며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재직하여 고등계형사를 지냈으므로 오해도 많이 받았다.
- 김환기(金桓起)(1888~1949년) 관향은 강릉이며 한문에 박학하며 시문에 능하였다. 3·1운동 때 동민의 선두에서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반공활동을 전개 호림부대 추격 시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것이 발각되어 무기형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 중 국군진격 시에 피살되었다. 영령은 충혼탑에 호국신으로 진좌되어 있다.
- 김복래(金福來)(1916~1983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침교리에서 태어나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 집달리로서 대인을 부드럽게 하였으므로 평이 좋았다. 수복 후 양양에서 사법사서로 종사하였다.
- 김명기(金明基)(1888~1948년) 관향은 김해이며 강현면 전진리에서 해사에 성공하고 어민의 대표로 해업진흥(海業振興)에 힘썼다.
- 김동윤(金東潤) 관향은 경주이며 서면 공수전리에서 태어나 안동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홍천에서 갑자부동산회사(甲子不動産會社)에서 근무하였다. 자녀교육에 힘썼고 북방면장(北方面長)을 지냈고 도의원까지 진출하였다.
- 김학배(金學培) 관향은 김해이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호림부대 입양시(入襄時)에 부식을 운반 제공한 사건으로 인공시 체포되어 투옥된 후 생사불명된 반공투사였다. 호림부대사건으로 상북리의 반공인물은 일망타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국립묘지

반공호국비에 각명되어 있다.

- 김병제(金炳濟) 관향은 광산이며 현북면 어성전리에서 대대세거하면서 동리사업에 봉사하였다.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학도 뛰어났으며 인리상보(隣里相保)하면서 동리장에 봉사하여 명망이 높았다.
- 김동빈(金東斌) 관향은 경주이며 한학도 깊고 서예도 능하였다. 다년간 군공직에 종사하다 한의를 개업하니 경로당 같이 노인친구가 운집하고 회혼례까지 올린 다복한 인물로 호평을 받았다.
- 김용배(金龍培) 관향은 김해이며 한학이 뛰어나고 공예에도 기능이 있어 백담사 영시암 오세암의 재건을 주관하였다.
- 김지각(金知珏)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보통학교, 춘천고등보통학교 제1회 졸업하였으며 양양면 부면장과 양양명륜중학교의 간사로 있었다.
- 김남섭(金南攝)(1919~1980년) 관향은 강릉이며 교원검정시험에 합격하여 교육계에 종사하였다. 광복 후 20여년 교장직을 하였으며 회룡국민학교 교장을 지냈다.
- 김두영(金斗榮) 관향은 김해이며 강현면 물치리 태생이다. 물치시장 번영에 헌신하여 기미년 독립만세 때 옥고를 치렀고 신간회에 관여하였고 수복 후 강현면장을 지냈다.
- 김종성(金鍾聲)(1906~1976년) 관향은 연안이며 양양읍 거마리 태생으로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해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여 일제 때에는 주문진국민학교 교두로 재직하다가 양양국민학교 교감, 회룡국민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광복 후에는 양양교육청과장, 초급중학교 교장, 1·4후퇴 때 남하하고 정선·일산·태장국민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 김성래(金聲來)(1900~1979년) 관향은 김해이며 현남면 북분리 태생으로 한학을 배우다가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관이 되어 호평을 받았다.
- 김주철(金周哲) 관향은 경주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현북면장·현남면장을 역임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2대 대의원으로 활약하였다.
- 김종태(金鍾台)(1898~1981년) 관향은 연안이며 양양읍 거마리 태생이다. 한문을 수학하고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고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루고 석방 후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 전개하

였으며 광복 후 귀향하였다.

- 김용각(金龍珪)(1902~1984년) 관향은 광주이며 한문을 공부하고 한의원을 개업하여 평생 활인적덕하였다.
- 김익종(金翼鍾)(1908~1982년) 관향은 경주이며 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에 종사하다가 현북면장으로 전직하고 군정 이후 여러 해 동안 양양면장으로 봉직하였다.
- 김병기(金炳基)(1898~1978년) 관향은 연안이며 서면 내현리 태생이다. 한학을 수학 사서삼경을 송독하고 시문에도 능하였다. 22세에 초학 훈장을 지냈고 유림의 중견으로 활약하고 광복 후 서면장으로 추대되어 과오 없이 난세를 무난히 돌파한 인물로서 항상 덕화를 목표로 행동하고 만년에는 양양읍 조산리에서 전원에 낙을 두고 유유자적하였다.
- 김증권(金鍾權)(1917~1987년) 관향은 김해이며 호는 설악산인(雪嶽山人)으로 강현면 중북리(북골)에서 태어났다. 배움 없음이 한이 된 부모의 자식에 대한 향학열에 힘입어 6세 때 2년간 인제의 한학자 정기빈 선생의 서당 훈도아래 북골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12세 때 가세가 빈곤하여 대포공립보통학교 5학년을 중퇴하였고 1931년 15세 때 부친의 급서로 모친이 짠 삼베와 누에비단 옷감을 등짐지고 모친 따라 양양 인제 고성 등지로 옷감 장사 일을 도왔다. 1933년 생업이 어려워 17세 가을에 용단을 내려 모친을 모시고 원산으로 이사하여 양조장에 취직, 낮에는 양조장 직공, 밤에는 독학, 이렇게 6년간의 주경야독으로 당시 일제강점 치하의 제도 하에서 법학, 행정학을 공부, 1942년 보통문관(판인관)시험에 합격되어 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1944년 봄에 웅기면 부면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1945년 8·15광복을 만나 귀향하여 신흥사에 들어가 사학을 연구하여 중등교원시험에 합격되어 1946년 죽왕면 오호중학교에 배속되었으나 공산치하에서 보통문관(판인관)시험 합격과 부면장 근무 사실이 원인이 되어 공산치하의 공직에서 축출되었다. 공산치하의 학정에 견디지 못하고 1950년 음력으로 1월 북골에 모친과 외아들을 남겨두고 부인과 두 딸만 데리고 원산으로 다시 이사하였다. 1951년 1·4후퇴 때 원산에서 거제도로 피난, 1951년 3월 35세 나이로 중부전선 지역 고향의 모친과 아들을 구하고자 장승포에서 제2국민병에 자진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득병하여 6·25한국전쟁

에 참전하지 못하고 입원 후 병가 제대하였다. 1951년 가을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거제군 연초면 오비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다. 1952년 9월부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미군 소속 정훈관이 되어 인민군 포로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시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에 일조하였다. 함경남북도 등 각처에서 모인 피난민과 함께 건립한 경남 거제군 하청중학교 연초분교장에 추대되고, 1954년부터 부산 청구중고등학교 교사, 혜화여자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1961년부터 1984년까지 서울 보성고등학교 교사, 문교부 한문교과서 편찬위원, 43년간 교직에 봉직하면서 특히 국학 한학 사학분야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57년 국난사개관(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대한민국 국난극복사의 효시), 1960년 우리나라 최초로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의 완역본, 1963년 정인지 김종서의 고려사 완역본, 다산 정약용의 아언각비[(雅言覺非) : 조선 정조 때에 정약용이 지은 어원 연구서]를 번역, 명가의 가훈 편저, 고등학교 검인정 한문교과서 저서, 한문해석 입문 등 38책(권수로 64권)의 많은 저서와 역서를 편찬하여 열악한 우리나라 고전번역계에 일조를 하고 후학의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민속학 분야에도 우리 뿌리의 풍속도 다수의 편저를 남겼다. 특히 1995년부터 1980년까지 경향각지의 유력 일간지에 34편의 향토사학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설악산 일대의 문화유적 등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삼육대학, 육군사관학교에 초청 국사 강의를 하였다. 교육부장관의 교육공로상, 경향사도상, 상록수상을 수상하였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였다.

- 김인기(金寅起)(1924~?) 관향은 강릉이며 양양읍 구교리에서 출생하였다. 일본 동경중앙대학교 3년재학 중 8·15광복을 맞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법학대를 졸업하고 1949년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어 서울지방법원 및 각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우리 고장(양양, 속초, 고성, 인제)의 국회의원(변호사겸업)을 지냈다. 법관 및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대에 빈민과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
- 노병태(盧炳泰)(1862~1933년) 관향은 광주이며 서면 북평리 태생으로 한학과 시문에 이름이 높았고 일제강점 후 10년간 서면장을 지냈다.
- 노병원(盧炳源) 관향은 광주이며 서면 용천리 거주하였다. 한학과 시문에 이름을

날렸으며 신망이 높아 서면장을 10년간 역임했다.

- 노용수(盧龍秀)(1802~1852년) 관향은 광이며 3·1운동 때에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극심한 옥형으로 조사하였다.
- 노병렬(盧炳烈)(1889~1978년) 관향은 광주이며 한학에 열중하여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고, 풍채는 두목지(杜牧之)와 같으며 선풍도골(仙風道骨)다웠다. 음풍영시(吟風詠詩)하면서 무산십이봉하도원(巫山十二峰下桃源)에 사는 듯했다.
- 노재철(盧在澈)(1906~1976년) 관향은 광주이며 호는 만오(晩梧)이다. 한학이 풍부하여 시문에 능하고 극진히 효도하며 유교의 대가로 전교를 지성으로 집행하여 이름이 높았다.
- 노병목(盧炳穆)(1879~1962년) 관향은 광주이며 호는 석천(石泉)으로 별명은 땡뻐이다. 유시부터 한학을 닦아 조예가 깊었으며 보천교에 입도강산(入道江山)을 누بت고 일제 때에도 단발하지 않고 강인하게 반일했으며, 인공 때는 반동분자로서 공민증과 선거권도 박탈당했었다. 자유당시절 전북대학교에서 한문강의를 청하였으나 단발관계로 거절하고, 공화당 때는 박정희 대통령께 정책의 직언도 하였으며 도미시(渡美時)에는 고전을 피력하여 외교에 참고하게 하였으며 환국하여 탁견에 찬사를 받았다. 3차에 걸쳐 정책비판을 하여 청와대의 비서가 와서 깊이 인사하였다. 성격은 강직하고 풍채는 선풍도골이며 포용력도 크고 농촌에서 부귀를 부운(浮雲)같이 여기며 유유자적하였다.
- 박제도(朴濟道) 관향은 밀양이며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되었으나 선심으로 지도하여 여론이 좋았다.
- 박경하(朴敬夏) 관향은 밀양이며 한학에 열중하였으며 한의원을 개업하여 인술을 베풀어 빈한자를 포시했다. 강현면 일대에서 호감을 얻었다.
- 박종승(朴鍾勝)(1894~1973년) 관향은 밀양이며 자는 화응(和應)이고 초명은 태자(泰字), 호는 기재(杞齋)이다. 한문에 조예가 깊고 1912년 현산학교 3년을 졸업하고, 1914년 경성의과전문학교 3년을 중퇴한 후 6년간 양양군청 용원으로 근무 중 1920년 동해상사주식회사 사원으로 경력을 쌓고 있다. 그리고 1930년 양양군농회위원(襄陽郡農會委員)으로 활약하면서 1933년 양양보통학교 학부형회장으로 육영사업

에 힘썼다. 또한 1935년 양양읍협의회원으로 활약하면서 향토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50년 양양군민회장, 1951년 양양군자치회장·양양군민정관, 1953년 양양군유도회장, 1954년 양양명륜중학교장을 역임하고, 1955년 양양군축산업협동조합장에 취임하여 향토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6·25한국전쟁 직후의 변천기 양양행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헌신하였다.

- 박증길(朴曾吉)(1919~1982)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학봉(鶴峰)이고 손양면 학포리 태생이다. 성균관학원에서 한학을 수학 시문에 능하였다. 군교화주사(郡敎化主事)로 활약하다 광복 후 민주당을 조직하고 반공에 선봉하였으며 군정(軍政) 때는 부군수와 행정이양 후 양양군 내무과장을 역임하고 유도회장과 전교로서 유도정신 선양에 힘썼다.
- 서성용(徐聖鎔) 관향은 달성이며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교육에 종사하다가 군속으로 전직 다년간 관계(官界)에 봉사한 부유한 재산가이다. 퇴직 후 국민회장을 역임하고 휴전반대에 선봉이 되어 결사투쟁하였다.
- 양익환(梁益煥)(1893~1949년) 관향은 남원이며 강현면 장산리 태생으로 3·1독립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장산리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물치장날 만세운동을 선두 지휘하고 그 해 6일 손양면 군중에 합세하여 양양경찰서로 몰려가 시위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며 수렵가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 오윤환(吳潤煥) 관향은 해주이며 자는 성빈(聖彬)이고 호는 매곡(梅谷)이다. 속초시 상도문리에서 태어났다. 경학과 시문의 대가이며 3·1운동만세에 참가하여 태형을 받은 애국자이다.
- 윤하병(尹夏炳) 관향은 파평이며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문과 사서삼경수학, 삼개면에 취업하여 면행정에 능숙하여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윤대중(尹大重) 관향은 파평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학을 수학하였으며 양양 굴지의 목상으로 성공하였다.
- 이석범(李錫範)(1859~1932년) 관향은 함평이며 자는 사일(士一)이고 호는 설초(雪樵)이다. 임천리에서 출생하고 도천면 도문리에 이거하였다. 동학란 때에 반동학군(反東學軍)을 조직하여 갑오의병(甲午義兵)으로 활약한 유학인이다. 한학의 대가로서 장년에 군부주사(軍部主事)를 거쳐 고종 때에 중추방의관(中樞防議官)에 임명되

어 토비평정(土匪平定)하고 신흥사를 파산에서 복구하였다. 개화문물에 눈을 돌려 대포항을 물물교역의 경제항으로 개발하는 선견지명을 보인다. 망국의 한을 품은 체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도천면장을 잠시 지냈다. 1927년 이상재(李商在) 선생 등과 신간회를 조직하여 강원도지부장으로 활약하고 조직을 확대 반일정신을 고취시켰고 현산학교와 쌍천학교를 항일독립운동의 도화지로 삼았으며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무지한 농민을 계몽하여 반일사상을 선무하니 일촉즉발의 처지가 됨에 일제는 공산주의운동이라 지적하고 500여명을 검거하였다. 투옥하니 이것이 유명한 농민조합사건이다. 그리하여 이 고장을 불온사상지역이라하여 요감시(要監視) 감찰하였다. 고종황제의 인산에 공은 친히 참배하고 서울의 만세운동에 직접 가담하고 3월하순경 하향할 때 ‘독립선언문’을 버선 속에 숨겨가지고 와서 도내에서는 가장 치열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계획 추진 전개한 민족의 영웅이다.

〈일화 한 토막〉

이공(李公)이 국상에 참석한 것을 안 양양경찰서장은 암암리에 이공을 초대하고 환대하면서 서장 문“양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미연에 방지하여 주겠는가?” 이공 답“나로서는 방지 할 힘이 없다.” 서장“그러면 귀하의 문중에서 일어난다면?” 이공“그것은 내가 방지 할 수 있다.” 서장“그러면 잘 부탁한다.” 그 후 만세운동을 주동한 인물 중에는 이공의 자질(子姪)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분개한 서장은 이공을 초치하여 서장 왈“그 때 귀문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 선도방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공 왈“나는 그런 약속을 한 일 없다.” 서장은 다시 통역하던 형사를 불러 대질하니 이공이 노하여 형사를 책하여 말하기를 “너 일본말도 잘 못하는 놈이 내가 언제 방지하겠다고 말하였느냐?”고 크게 꾸짖으니 통역형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퇴장하였다. 통역형사는 그 후 이석범은 과연 영웅이다. 통역한 사람을 서장 앞에서 대갈하니 나는 유규무언이었다. 참으로 영웅이라고 하더라는 일화가 남아 있다.

- 이성윤(李聖允) 관향은 전주이며 한학이 풍부하여 시문을 잘하며 서면 도리 등지에서 서당훈장을 지냈다. 전재한(全在漢), 전재필(全在弼)과 같이 3·1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극형을 받았다.
- 이홍근(李弘根) 관향은 미상이며 현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의 전신인 헌병보조원

으로 치안행정을 맡아 보았다. 악의 없는 원만한 인격으로 대민사업을 하여 호평을 받고 추호도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다. 기미년 만세 때 퇴임한 신앙인이다.

- 이건석(李建哲)(1914~1979년) 관향은 함평이며 손양면 금강리 태생이다. 강릉도립병원장을 10여년 지냈으며 강릉에서 개업 명의로 이름을 떨쳤으며 다시 서울에서 개업하고 인술을 베풀었다.
- 이규하(李奎河)(1902~1978년)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성서(星樓)이고 손양면 송현리 태생이다. 한학의 대가로서 한시에 능하며 유림의 거성으로 군림하면서도 향민의 존경이 두터웠다. 일제시대 한때 군청 주사로 근무한 바 있다.
- 이기낙(李冀洛)(1900~1981년)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국사(菊史)이고 손양면 학포리 태생이다. 유시부터 한학을 전공하여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시률(詩律)의 대가로서 만년에는 십일시회(十逸詩會)회장으로서 한시 계승발전에 심혈을 바쳤다. 청년시절 10여 년간 도일(渡日)하여 신문물을 학습하고 돌아와 다시 엄부(嚴父:李鍾夏)의 슬하에서 한학과 경학 시률을 전수하고 나서 유림의 거두로서 양양향교의 전교와 유도회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 이달형(李達炯)(1903~1981년) 관향은 경주이고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계에 투신하였다가 퇴직하고 감농하면서 사법서사로 활약했다.
- 이현규(李顯奎) 관향은 홍주이며 호는 백문(白文)이다. 문장으로 명성이 사해에 떨쳤으며 양양의 대시호로 추앙을 받았고 누차 향시에 올랐다.

계조천년유시궁 비선일거단여대 리장호몽광개화 옥토저근행포란

(繼祖千年惟有窮 飛仙一去但餘臺 籬長瓠夢光開花 土沃藟根行抱卵)

- 이병규(李炳奎)(1887~1954년) 관향은 홍주이며 호는 금산(錦山)이고 손양면 금강리 태생이다. 한학의 대가로서 박학다식하고 시문에 능하며 외과서(外科書)에도 정통하고 훈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양양향교 직원을 역임하고 일시 보천교의 수뇌로 활동한 바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의 정신으로 대성하였고 사부로서 향당의 존경을 받은 대학자였다.
- 이교완(李敎完)(1878~1930년) 관향은 함평이며 본명은 철행(詰行)이다. 양양면 임천리 천석거부 장재(長財)집인 새말집의 주인이다. 세칭 삼천석부재집이라 한다. 공은 한

학이 풍부하며 배일사상이 농후하여 이석범과 손잡은 양양 독립만세의 선구자다. 만세 후 체포되어 갇은 고초와 신문으로 빈사상태였으니 불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 **고광익(高光翼)** 관향은 장흥이며 빈곤하여 만주에 출가하여 치부하고 귀국하여 정미업과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 **장진환(張軫煥)**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적은리에서 한·양방을 개업하였고 인격이 고매하고 한학을 잘하여 시문도 능하였다.
- **장석환(張哲煥)** 관향은 인동이며 한학의 조예가 깊고 인격이 고상하고 글방 초학훈장으로 방방곡곡을 돌며 준엄한 교육으로 세평이 좋고 사부의 존경을 받았다.
- **장기수(張基守)**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적은리 태생이다. 반공투사로서 월남하여 서북청년으로 활약하였으며 수복과 더불어 귀향하여 반공치안에 힘썼다.
- **장시용(張時用)** 관향은 인동이며 양양읍 청곡리 태생으로 한학공부와 시문도 잘하였다. 양양향교 재건사업과 양양명륜중학교 설립에 공이 지대하였다.
- **장두순(張斗淳)** 관향은 인동이며 평안도 기질로 배일사상이 농후하였다. 일찍 교육계에 투신 항상 일본을 증오하는 감정으로 학생을 선동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주동이 되었다. 일시 교직을 그만두고 민주당 당수로 반공에 주력하였으나 수복 후 다시 복직하여 1960년에 손양국민학교의 교장을 거쳐 양양국민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다.
- **장기헌(張基憲)** 관향은 인동이며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금융조합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 **전영수(全永守)** 관향은 정선이며 여운포 태생이다.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군청공무원으로 봉사하였다.
- **정호규 · 정호렬(鄭鎬奎 · 鄭鎬烈)(1877~1952 · 1882~1956)** 관향은 초계이며 두 형제는 어려서 한학을 읽고 실천하여 덕행이 높고 효행이 극진하여 향리의 칭송을 받고 근검절약하여 성가하였다.
- **정용화(鄭龍和)** 관향은 미상이며 양양읍 기정리 태생이다.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기술관으로 농정에 힘썼다. 양양군 내무과장 역임하였다.
- **정정일(鄭正一)** 관향은 봉화이며 본명은 鄭鍾龜(정종구)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에 조예가 깊어 시부도 짓고 서경도 능하였다. 강원도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 대포학교

를 비롯하여 초등교육에 수십년 종사하다 퇴직하고 간성향교의 전교로서 유도진장에 힘썼다. 다시 교직에 돌아와 춘천학무과장을 역임하고 양양국민학교장으로 퇴직하고 구교리에서 우거하였다.

- 조종린(趙鍾麟)(1868~1948년) 관향은 한양이며 현남면 포매리 태생이다. 한국시대에 직강(直講)으로(제3대 현남면장) 권농에 힘쓰고 근검력행시범하여 면치에 공로가 많았다. 장남 학원, 4남 돈원도 현남면장을 역임한 면장가문이다.
- 조학원(趙學元)(1985~1948년) 관향은 한양이며 현남면 포매리 태생이다. 한말에 측량기술을 닦고 일정 세부측량 때 주사직으로 측량에 종사하였다. 현남면 제3대 면장인 조종인의 장남으로 제5대 현남면장으로 등용되어 면정에 치적을 올렸다.
- 조석행(趙哲行)(1916~1980년) 관향은 한양이며 현남면 포매리 태생이다. 양렬공조인벽(襄烈公 趙仁璧)선생의 후예로서 한학이 풍부하고 동명서원을 재건하고 유도회장을 누년 역임하였다.
- 최종원(崔鍾元) 관향은 경주이며 간곡리 태생으로 한학의 석학자였다. 한학훈장으로 많은 문도를 배출하였다.
- 최원집(崔遠集) 관향은 강릉이며 강원교육양성소 수료 후에 초등교육에 종사하였다.
- 최학길(崔鶴吉) 관향은 강릉이며 서면 용천리에서 거주하였으며 3·1운동 당시 만세를 부르다가 피체되어 옥역을 치렀다.
- 최근하(崔近夏) 관향은 강릉이며 손양면 학포리 태생이다. 문필이 출중하고 오랫동안 면서기로 종사했다.
- 최용길(崔容吉)(1905~1979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남면 입암리 태생이다. 성품이 강직하며 현남면 제9대 면장으로 1948년 8월 15일부터 1961년 4월까지 13년간 근무하면서 현남중학교 설립과 6·25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인구·임호초등학교 교사건립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 최정규(崔正圭)(?~1977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남면 입암리 명문가의 출신이다. 춘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공수전·현서·현북·병산·죽왕국민학교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현서국민학교 교정에 보물급의 석불을 안치하여 놓았다.
- 최용헌(崔容憲) 관향은 강릉이며 황해도에서 경찰계에 종사했다. 광복 전에 귀향하여

권농하다가 다년간 양양면 부면장을 역임하고 월리에서 과수원을 경영한 반공투사였다.

- **최경추(崔瓊秋)** 관향은 강릉이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독학하여 교사고시에 합격하여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군정 때에는 양양군 장학사로 활약하였고 양양·광정·고성군지역 학교장을 역임하였다.
- **한하운(韓河雲)** 관향은 청주이며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현북면 서기로 근무하였다. 항일사상으로 투쟁하다가 수복 후 부면장을 지냈다.
- **함세기(咸世基)** 관향은 강릉이며 의사 함흥기 선생의 제자로 양양보통학교를 중퇴하고 한학과 의서를 연구하여 속초에서 한의원을 개업하였다. 배일감정이 깊어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고품을 지켰다.
- **함기성(咸基成)(1904~)** 관향은 강릉이며 1904년 어성전리에서 출생하여 일본 동경 중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어 가난한 서민들의 편에서 서서 수많은 항일애국운동을 도왔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변론을 적극화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함경북도 성진상업학교 교유로 배명 받았으며 빈한한 학생들의 수업료를 대납하는 등 수많은 구휼사업을 했다. 8·15광복이 되자 농수산부 수산국장, 문교부 편수관을 역임하고 원주·횡성·영월군수를 지내면서 영세민을 위한 행정을 폈다. 양양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함종빈 국회의원의 부친으로 퇴임 후 향리의 명주사(明珠寺)에서 선신(禪身)하기도 하였다.
- **함종빈(咸鍾簪)** 관향은 강릉이며 1923년 어성전리에서 출생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정훈장교로서 육군사관학교 주임교수로 헌신하다 육군소령으로 예편 후 제5대, 9대, 10대 국회의원에 당선 의정활동 중 유명했던 삼분사건(三紛事件)을 바로 잡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법률안을 상정 제정하는데 항상 앞장섰다.
- **김양진(金養鎭)(1907~1950년)** 본관은 연안이며 양양 태생이다.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1947년부터 1949년에 걸쳐 혹독한 공산치하에서도 지하조직을 만들어 주모자로서 북한의 각 기관의 정보를 탐지하여 남한의 서북청년단 및 군정보당국에 제보하다 체포되어 아오지 탄광에서 생을 마쳤다.
- **전호규(全浩奎)(1915~1967년)** 관향은 정선이며 현남면 인구2리 태생이다. 공은 양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현남면 부면장으로 퇴직한 후 현남면 인구리 지역농협

(현하조대농협)으로 승격되면서 1965년 3월 25일부터 1968년 10월 30일까지 제1, 2대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농협기반조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1965년 현남면 죽도정 건립 모금운동에도 동참하였다.

- 정돈철(鄭敦澈)(1922~1968년) 관향은 초계이며 현남면 전포매리 태생이다. 현남 중학교가 설립된 1952년 7월부터 6여 년간을 서무과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서무과장으로 재직하다 1963년부터 1962년까지는 제11대 현남면장, 1964년부터 1968년까지는 제13대 주문진읍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 조돈원(趙敦元)(1898~1974년) 관향은 한양이며 현남면 포매리 태생이다. 현남면 제3대 면장이고 조종인의 4남으로 한학을 수학하고 제8대 현남면장으로 면정에 치적을 남겼다.
- 이준재(李俊在)(1893~1976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석영·사덕(錫英·士德)이고 호는 동농(東農)이다. 손양면 수여리 태생으로 1919년 4월 4일 양양장터에서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양양경찰서에서 열사 함홍기와 권병연이 희생되는 것을 목격하고 왜경에 쫓겨 혼자 도망쳐 월리 앞길 뚝 밑에 엎드려 숨어 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뒤쫓아 온 왜경의 군홃발에 채이어 앞니가 모두 붙어졌으나 두려워 소문도 못내고 치료도 못한 바 서서히 10년 내에 나머지 이가 모두 빠졌으니 평생 한대의 치아도 없이 사시다 운명이 다가와서야 자식에게 사실을 알렸다. 서면 용천리 앞 남대천에 설치한 용천보[일명 가평보 : 손양면 동면평 일부, 동면후평 : 밭밭들, 가평들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수리시설] 관리요원으로 봉사하다 해마다 홍수와 노후로 사용불능하게 되자 가평수리조합 대표로서 동 조합위원 송현리 이광재(李光在), 가평리 함해조(咸海祚), 신재필(辛在弼), 도화리 이시행(李時行)과 협동하여 손양면 송현리 고월산 밑에 디젤엔진을 동력으로 한 양수시설 설치를 추진하니 당시 이건웅(李建雄) 양양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양수장 부지 내에 군수이건웅송덕비(郡守李建雄頌德碑)를 1967년 4월 수립(豎立)하여 기념하게 하였다. 만년에는 250년 전통의 경낙회(鏡洛會), 기구회(耆舊會) 회원으로 양강(襄江)의 문화교류에도 힘쓰셨다.
- 이주헌(李柱憲)(1892~1978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성백(成伯) 호는 청람(淸嵐)

이고 손양면 수여리 태생이다. 1909년 현산학교를 수료하고 계속 한학을 수학한 한문학자로서 가업인 농사의 감농과 관동지방을 유유자적하면서 선풍도골(仙風道骨) 기풍으로 민족고유의 미풍양속 선양에 힘쓴 어른으로 타에 귀감이 되었으며 1950년 이후 경락회(鏡洛會)와 기구회(耆舊會)회첩에 서문과 시문을 많이 남기고 기부시문(記賦詩文)을 기록한 청람집(淸嵐集)을 남겼다.

- 전완수(全完銖)(1911~1979년) 관향은 정선이며 현남면 북분리 태생이다. 한학을 많이 하였으며 양양, 주문진, 삼척어업조합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다 1968년~1972년까지 하조대농협장을 역임하였다.
- 이철우(李喆雨)(1918~1979년)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강선리 태생이다. 공은 대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3월 25일 일본국 나라현 남부 정강중학교 4년 수료하고 귀국하였다. 1940년 4월 1일 고성군 건봉사사립봉명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44년 4월 1일 일본군에 징병, 필리핀 전선에서 8·15광복을 맞고 1946년 2월 23일 귀국하여 1946년 5월 5일 천진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1947년 8월 31일 양양중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당시 북한 정권을 반대하다 신변에 위험을 느껴 1948년 11월 3일 월남을 하여 1949년 3월 1일부터 서울 동국대학교 교무처에 근무 중 1949년 9월 1일 동국대학교 물리학부 정경학과 2학년에 편입하였다. 1950년 9월 30일 복직하다가 1950년 10월 15일 내무부령으로 수복지구 행정요원으로 양양군에 파견하여 대한청년단조직을 맡아 근무하였다. 1951년 8월 30일 수복지구 군정 하에 강현초등학교 교장을 명받고 이어 1951년 9월 30일 속초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4년 동안 학교발전에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그 후 화천·고성·내천·우전중학교 교장으로 전전하다 중풍으로 인하여 1966년 2월 28일자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 2회에 걸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김주철(金周哲)(1925~1980년) 관향은 경주이며 현북면 잔교리 태생이다. 현북면 공립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1952년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여 1953년 임관하고 1955년 5월 1일에는 육군중위로 진급하여 육군보병 제3신병보충대 정보과, 제50사단 작전부에 근무하다 1957년 10월 31일자 전역하였다. 1961년 6월 30일 현북면 제3대 면장으로 임명되어 낙후된 농촌건설을 위해 군인정신에 의한 사명감으로 일하

다 1970년 1월 9일자 퇴직 후 현남면 전기유치추진위원장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 김규민(金圭民)(1926~1983년) 관향은 경주이며 현남면 두리 태생이다.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1968년부터 1975년까지 현남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였다.
- 장복환(張復煥)(1916~1985년)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용호리 태생이다. 강현 농잠 학교를 졸업하고 1947년 월남하여 서북청년단 단장을 하다가 헌병대 문관으로 재직하였다. 6·25한국전쟁 후 귀향하여 1952년 강현면 치안대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정 치안과 질서회복에 헌신 주민불편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민정 이양 후 상경하였다.
- 안낙영(安洛榮)(1928~1986년) 관향은 순흥이며 현남면 북분리 태생이다. 1947년 4월에 군에 입대하고 미육군포병학교(정훈학교)를 1954년 4월 입교하여 1955년 2월에 졸업하고 임관 후 포병장교로 근무하다 1960년 2월에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1972년 2월 20일부터 1974년 12월 17일까지 제4대 현남농업협동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1976년 1월 1일부터 1979년 1월 14일까지는 제15대 현남면장을 역임하였고 1979년 1월 15일부터 1983년 2월 3일까지 제6대 현북면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이달용(李達用)(1928~1986년) 관향은 경주이며 경북 울진 태생이다. 6·25한국전쟁을 참전한 육군헌병 상사로 예편하면서 1952년 경찰에 특채되어 28년간 강릉·속초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현남면 인구리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양양군수산협동조합 이사를 거쳐 1984년~1986년까지 수협장을 역임하였다.
- 권혁주(權赫柱)(1933~1986년) 관향은 안동이며 횡성 태생이다. 10세 때(조부모, 선친 따라)에 횡성에서 현남면 남애3리로 이주하였다. 강릉제일고를 졸업한 후 가업인 농업에 꿈을 키우다 1970년도에 양양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으로 열악한 농촌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일했고, 1981년 5월 7일부터 1984년 5월 6일까지는 양양군수산협동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온갖 정열을 불사르다 교통사고로 5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 이동균(李東均)(1910~1987년) 관향은 홍주이며 호는 춘포(春圃)이고 손양면 금강리 태생이다. 한학자 이병규(李炳奎)의 독자로 효자였다. 일제시에는 동신상회(東信常會)를 경영하였으며 광복 후는 강릉으로 월남, 이 때 남파간첩 정 모(鄭 某)의 공작

에 의하여 춘천법원에서 혹독한 고초를 당해 폐결핵으로 신고했으며, 수복 후 환향하여 손양면장, 양양군산림조합장, 군수리조합장, 군변영회장, 양양유도회장, 양양향교전교, 성균관전학을 역임한 인물로서 한국구비문학대계(韓國口碑文學大系)에 구전다수(口傳多數) 수록되었다.

- 김순봉(金順奉)(1914~1987년) 관향은 김해이며 현북보통학교를 나와 어법에 종사하면서 양양군수협창설에 기여하였으며 수협창설 후 1966~1975년까지 1·2·3대 수협장을 역임하며 조합원들의 화합과 초창기 수협의 기틀을 잡는데 공헌하였다.
- 홍대열(洪大烈)(1928~1987년) 관향은 남양이며 현남면 인구리 태생이다. 인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과정인 임호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하여 상업을 하면서 현남면 의용소방대장을 20여 년간 하였고, 현남면 반공연맹위원장, 평통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68년 11월 울진무장공비 침투 시 현남면 두리에서 무장공비 1명을 사살하는데 현남면 예비군 부중대장으로 현장을 지휘하여 기동타격소대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 장성근(張性根)(1942~1987년)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용호리 태생이다. 공은 양양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시립대를 거쳐 강원대대학원을 나온 근면 성실한 독학파다.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용진군농촌지도소장을 거쳐 농촌진흥청에서 다년 근무하다 강원도농촌진흥원의 지도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 최용철(崔容喆)(1916~1988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남면 입암리 태생이다. 일제 때 양양군청 축산계장으로 재직하였고 어업조합 남애출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국민운동을 하며 광복과 6·25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남면 대동청년단장으로 전답을 팔아 사비로 대동청년회 운영과 단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많은 활동을 하였다.
- 김석만(金錫滿)(1918~1988년) 관향은 경주이며 인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학 공부를 하였다. 현남면 갑부로서 많은 전답을 어려운 농가에 소작토록 하였으며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현남면 의용소방대장, 양양군유도회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한바 있다.

○ 안병해(安炳夏)(1928~1988년) 관향은 순흥이며 양양읍 남문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제국중학교(?)를 거쳐 광복 후 서울 대동상고를 졸업하고, 1948년 11월 육사 8기로 입학하여 6개월 후인 1949년 5월 23일자 임관하여 6·25한국전쟁당시 일선장교로 활약한 기수였다. 동기생인 김종필 김형욱 등은 5·16혁명의 주역이 되었으며, 황영시 차규현 등은 전두환과 함께 12·12거사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6·25한국전쟁 초기 6사단 포병부대 소위로서 소양강 전투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춘천시민이 안전하게 피난하게 한 공훈으로 1951년 5월 7일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참전 중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가랑잎 속에서 3일간 숨어 있다가 후퇴했다고 한다. 1953년 봄 15사단 감찰장교로 간성읍에 주둔 당시 5세 연하인 부인 전임순 여사와 속초중학교 강당에서 보통학교 동창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혼인식을 올렸단다. 공은 이어 사단 감찰참모, 대대장, 부연대장을 지냈고 1962년 11월 2일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 공은 예편 다음 날인 11월 3일 총경시험에 응시 합격함으로써 군 감찰장교의 경력을 인정받아 내무부 치안국 정보계장을 시작으로 부산경찰서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내무부 치안국 방위과장, 1974년 강원도경찰국장, 1976년 경기도경찰국장, 1977년 치안본부 제2부 경비과장, 1979년 전남도경찰국장을 역임하다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1980년 6월 2일자 직무유기를 이유로 불명예강제 해임되니 17년 7개월간의 민권경찰생활을 마감했다. 당시 고문의 후유증을 요양하기 위해 낙산사도 다녀갔으나 1988년 10월 10일 끝내 영민하고 고혼은 구천을 헤매니 2005년 11월 24일 경찰청은 과거사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직 사실을 확인하고 유해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시켰다. 2006년 8월 서울지방보훈청은 순직경찰로 등록하였다.(설악의 근현대 인물사 엄경선지음 마음살림(출판)에서 발췌)

○ 최영만(崔永萬)(1906~1988년) 관향은 강릉이며 호는 동헌(東軒)으로 양양읍 조산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학원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 시문에 능한 한학자로서 서예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양양향교의 전교직을 수행하면서 유림의 선구자적 역할로 도덕사회 구현에 힘쓰셨고 양양군노인회장도 역임하였다. 조선영조 26년 경오(1750년) 양양과 강릉의 문인들이 창설한 경낙회(鏡洛會)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기셨고 강릉 경포에 수립(豎立)한 경낙회기념비(鏡洛會記念碑)의 비문을 남기신 문장가셨다.

- 김영록(金永綠)(1916~1989년) 관향은 광산이며 강현면 중북리 태생이다.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다 늦은 나이에 상운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현면 사무소에서 공직 생활 3년간 근무하다 8·15광복 후 월남하여 현남면 인구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강릉사범학교 하계강습 수료 후 1949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1950년 인구 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1955년 회룡국민학교로 전보된 후 교감으로 승진, 1961년 오색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공수전초등학교를 거쳐 고성군 도학국민학교에서 1982년 2월 28일 정년퇴직하면서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은 교육자였다.
- 함상순(咸相舜)(1927~1991년) 관향은 강릉이며 손양면 와리 태생이다. 손양국민학교 2회 졸업생으로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양양군청 산업과 농산계장을 역임하면서 농산 행정력을 배양하고 영농의 신기술을 도입시켜 부를 창출하고자 양양군농촌지도소 초대 소장직에 공채 임명되었으며, 홍천군농촌지도소장, 원주시농촌지도소장을 역임하고 다시 양양군농촌지도소장으로 전입되어 양양군의 새농촌 건설에 힘쓰다 정년퇴임했다. 이어 양양문화원장을 지내면서 양양의 문화진흥에 힘쓰면서 군민의 정신계도에 뜻을 두고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협의회회장을 지냈다. 다시 풀뿌리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해 제1대 양양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자체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의회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 김종래(金重來)(1921~1991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침교리 태생이다. 춘천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사방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양양군농촌지도소장, 정선군농촌지도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양양유도회장, 양양향교 전교를 지낸 바 있으며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 안재욱(安在昱)(1917~1992년) 관향은 순흥이며 양양읍 남문리 태생이다. 양양공립학교 제8회생으로 서울 선린상업학교부설상업실천학교 졸업과 동시 은행 및 지방 공무원에 근무하였다. 그 후 양양시내에 대동문구사를 경영하면서 초 중등학교육성회장 및 양양군체육회장과 양양군행정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향토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한편 정당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인자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군민

의 편에서 생활하다 양양군노인회장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을 마쳤다.

- **고광혁(高光赫)(1934~1992년)** 관향은 제주이며 손양면 상운리 태생이다. 손양국민학교 8회생으로 양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나서 과학영농기술의 도입과 광작으로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시범농가의 모범을 보이면서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청소년선도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양양군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마을에서 면으로 이어져 군정에 이르는 전반의 행정자문에 열성을 보였으며 주민에 가까운 행정정립에 기여한 자문의 실력을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중앙에까지 무대를 넓혀갔으며, 선진적이며 청렴하고 근면 애민하는 그의 생활신조에 인망이 높아 양양군의회의원으로 피선되어 3개월간 의정활동에 전념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쳤다.
- **김동준(金同俊)(1910~1992년)** 관향은 경주이며 강릉 연곡면 태생이다. 현남면 두창시변리 양조장에 근무하였으며 국민회 현남지회장으로 일하다 민선 면장으로 1961년~1962년까지 현남면장을 지냈다.
- **이준영(李俊永)(1920~1992년)** 관향은 전주이며 강현면 장산리 태생이다. 대포공업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6·25한국전쟁 후 대한청년단 단장으로서 향리의 치안 질서 유지와 반공투쟁에 앞장서왔다. 마을 이장을 거쳐 5년간 강현면 면장 직을 역임하면서 강현중학교 설립추진위원장에 추대되어 1969년 10월 14일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에 이어 9년간 강현농협장을 역임하면서 설악저수지를 완공하였으며 관개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진평들을 옥토화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 **박창권(朴昌權)(1925~1993년)** 관향은 무안이며 황해도 장영 출신이다. 어려서 장영국민학교를 거쳐 장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광복 후 황해도 축구선수로서 1946년 해주에서 도대항 축구경기가 있을 때, 팀에서 이탈 월남하여 백령도에 들어가 호림부대에서 활동 중 6·25한국전쟁이 발발하니 국군에 편입하여 육본에서 근무하다가 제1군단에 소속되어 특무상사로 참전(군번 : 6200206)한바 대관령 전투에서 부상의병제대하고 1군단 민사처에서 민사행정의 업무를 수행 중 당시 양양군민정관 박종승(朴鍾勝)을 만나 16만명 양양군민의 구휼(救恤)활동에 적극협력함으로써 양양군과

인연이 되어 행정수복 후 양양군청과 양양교육청에 근무하게 되면서 특히 양양의 체육진흥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공의 부인은 여성지도자이신 황일선(黃一仙)여사인데 혼인의 일화가 오랜 역사와 미련있어 소개한다. 580년 전 조선(朝鮮) 세종조(世宗朝) 때 양가(兩家)가문의 선조가 조정의 같은 부서의 관직에 있으면서 맺은 인연이 계속 되어 박공(朴公)이 경상도에 내려가 교직에 있는 황여사(黃女史)를 만나 혼인하였다.

- 이상익(李相益)(1933~1994년)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송촌(松村)이고 손양면 수여리 태생이다. 가난했던 소년시절 소학교를 거쳐 한학을 수학하고 농업에 종사 신영농기술 전문(專修) 및 보급을 위해 마을 4H 클럽 회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맹인인 형 상억(相憶) 일명 상춘(相春)과 우애 돈독했으며 노부모에 대해 형 못지않은 효도 지극하였다. 중년이후 양양시장에 식품가게를 개점 자전거를 이용 농어촌벽지학교에 학교급식용품을 배달하면서 매년 어린이날이면 대상학교 전교생에게 학용품 1질씩 지급하고 졸업식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빈한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생(生)을 마칠 때 까지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숨은 독지가였다. 양양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시장의 개혁을 위해 양양새마을금고(당시 황소새마을금고) 창립에 기여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또한 십일시회(十逸詩會)라 칭하는 한시회에 가입하여 쇠퇴하는 한시문화부흥에 노력하면서 조선조 후기 대원군의 집정으로 철폐된 조산리 소재 동명서원(東溟書院) 복원에 일역했으며 양양향교 전교를 지내면서 퇴폐해가는 윤리도덕 부흥에 남다르게 노력하다 생을 마친 인물이다.

- 박희태(朴熙泰)(1918~1994년) 관향은 춘천이며 양양읍내 흥양제재소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온 분으로서 6·25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당시 기거 할 주택을 마련하고자 애쓰던 이웃에게 친히 건축자재를 제공하여 집짓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91년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에 사재 1,500만원을 내놓았고 이에 동참한 박준영의 1,000만원의 자금으로 지역민의 찬성동의서를 모아 중앙요로에까지 가서 활동한 바 있겠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진하게 되는 오색~대청봉로프웨이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 밖에 전기유치사업에도 몸소 실천하여 길이 추앙받기에 합당한 자원봉사자라 하겠다.

- 안학선(安鶴先)(1933~1994년) 관향은 순흥이며 강현면 주청리 태생이다. 순흥안

씨 시조 안자미의 26세손이다. 양양고등학교 1회생으로 강원농대 2년을 중퇴하고 강원경찰학교 제7기로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모범경찰관이었다. 경정까지 승진하고 고성경찰서장 직무대행과 강원경찰국 감찰실장을 마지막으로 1994년 6월 30일자 정년퇴직하였으며 대통령군정훈장을 받았다.

- **김남훈(金南勳)(1927~1995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남면 전포매리 태생이다. 강릉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상업은행 남대문지점 은행원으로 1948년 6~8월까지 근무하다 귀향하여 임호고등공민학교 교사로 1950년까지 봉사하였다. 1952년부터 1957년까지 서울 동양통신사에 근무하다 그 후 양양군 공무원이 되어 1980년~1987년까지 현남면장, 1988년 양양읍장을 역임한 행정가였다.
- **김종극(金鍾極)(1905~1996년)** 관향은 김해이고 호는 취현(翠峴)이며 강현면 중북리 태생이다. 2세 때 부친을 여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12세 때에 5개월간 신흥사 주지 홍흥운당(洪興雲堂)의 권면으로 동자승(童子僧)이 되었다가 산뽕을 따러온 어머니를 만나니 너무 그리워 품에 안겼다가 그대로 하산하였다. 1919년 4월 7일 물치리 3·1독립만세 대열에 합류하여 만세를 부르다 양양읍으로 연창리까지 오니 ‘대미소고댕이’에서 일본헌병이 만세군중을 향해 발포하므로 복골로 돌아왔다. 1920년 백형의 권유로 양양보통학교에 입학하고 1922년에 보통학교 졸업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1923년에 강원도립사범학교에 입학, 1925년 사범학교 졸업과 동시에 훈도로서 울진군 매화보통학교를 초임발령을 받고 근무 중 최영순(崔英洵)여사와 혼인하고 홍천, 원주(원주, 황둔, 소초)에서 훈도로 근무 중 1942년 회양군 이포(泥浦)국민학교 교장으로 승진되었다가 1945년 1월 행정정리로 정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8·15광복을 맞고 강현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1947년 6월 월남하여 강릉군 성덕, 묵호, 연곡에 근무 중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대구까지 피난하였다. 다시 북진 주영학교교장으로 있다가 양양이 수복 행정이양으로 양양, 오호, 회룡초등학교 교장에 이어 초대 양양군교육청 교육장(1970년 정년퇴임)을 지내면서 후진양성과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 후 초대 양양문화원장, 명륜중학교장, 노인회장등을 역임하면서 집필 및 설악문화재 발굴 등 향토 문예 진흥에 기여

한 바 있다. 저술로는 양양군향토지, 양양의 열전, 사례편람 등이 있다. 상훈으로는 녹조소성훈장,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각종 단체장의 표창장과 제1회 양양군민문화상 등이 있다.

- **전규성(全奎星)(1928~1996년)** 관향은 정선이며 6·25한국전쟁 참전 장교로 육군 대위로 예편 향토예비군이 창설되면서 1968년 현남면 제1대 중대장과 1970년부터 1976년까지 제3대 중대장을 역임하며 예비군 창설에 공헌하였다.
- **김만영(金萬泳)(1918~1996년)** 관향은 연안이며 현북면 어성전리 태생이다. 강원도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업무에 근무하다가 현북면장으로 부임하여, 1970년도부터 새마을사업활성시 원일전리 개답정리, 원일전 새마을다리(90m)준공으로 박상우 이장이 새마을훈장을 수상케한 지도력과 1971년도 어성전산불 진화시 주민동원 및 공무원동원지휘 등 일시불란한 행정처리로 초기에 산불진화, 농어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전기 전화 보급 확대, 통일벼, 비닐못자리설치 확대 등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였으며 1975년 공직을 정리하였다.
- **최명수(崔明洙)(1923~1996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장산리 태생이다. 대포공업보통학교를 졸업하고 8·15광복 후 월남하여 대학 졸업하고 교직에 종사하여 1952년 당년 29세에 교장으로 승진되었다. 강릉 왕산국민학교 교정에 송덕비가 세워졌으니 공의 교육애를 가히 짐작하리라. 일시 휴직하고서 사설 강현우체국을 설립 우체국장을 역임한 바 있겠다. 다시 복직하여 강현초등학교 재직 중 1968년 강현중학교 설립추진부위원장을 맡아보는 등 육영 사업에 온 정열을 다한 바 오색초등학교에서 퇴임 시 오색리 주민들이 송덕비를 교정에 세운 바 있겠다.
- **김선남(金先南)(1931~1997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남면 원포리 태생이다.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공병장교로 중위로 예편하여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현남면 예비군 제2대중대장으로 역임하며 1968년 울진무장공비 침투로 현남면 두리에서 무장공비 1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운 당시 중대장이었다.
- **김학구(金學倅)(1924~1997년)**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침교리 태생이다. 강현농잠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입대하여 육군 소령으로 3군단 작전처 보좌관으로 근무 중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타의 모범으로 보국훈장을 수상한 바 있고 대전 현충

원에 안장되었다.

- 장기학(張基學)(1919~1998년) 관향은 인동이며 강현면 용호리 태생이다. 대포공립보통학교를 거쳐 강현농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양양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강현면단위농협 초대 조합장으로서 초기 단위조합의 기틀을 닦고 세우는데 공헌한 바 있다.
- 김준렬(金俊烈)(1909~1998년)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서문리 태생이다. 강원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을 천직으로 삼고자 청년시절부터 초등교육을 위해 남달리 올곧게 헌신하시어 존경받던 교육자로서 1927년 초임을 통천군관내 송전, 통천공립보통학교에서 1934~1938년까지 이천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재직하고 1939~1945년까지 양양군삼립주사, 강원도삼림회 기수를 지냈다. 다시 교직에 봉직한 바 있으며 1952년 본군 관내 상평국민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양양·한남·공수전 초등학교를 거쳐 1974년 인제군 진동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하였다.
- 김규남(金圭南)(1935~1998년) 관향은 경주이며 양양읍 서문리 태생이다. 양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양양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애향심이 남다른 인물로서 언론계에 투신 경향신문사의 양양주재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양양지국장을 역임하면서 불우한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활동을 전개한 독지가였으며 요원의 불길 같았던 새마을 운동에 한층 언론계의 역할과 문화진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 탁상연(卓相淵)(1922~1998년) 관향은 광산이며 손양면 간리 태생이다. 1934년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리원양성소, 강원도경찰관교습소를 수료한 후 1947년에 국립경찰전문학교 행정과를 졸업하고 1959년에 경상대학 법정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한 학구파로서 일찍이 양양면서기를 지냈으며 1942년부터 16년간 경찰에 투신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비록 경찰이었으나 애국자를 몰래 보호하는 숨은 애국경찰의 길을 걷다가 8·15광복 후는 경감으로 승진하여 강원도경찰국과 지방경찰서장을 전전하면서 대민봉사경찰관으로 도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퇴직 후는 강원은 물론 양양지역의 향토발전을 위해 정책자문, 행정자문, 양양군번영회장, 체신협력회장, 선거관리위원, 대명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대한경우회강원도부지부장 그 외 여러 사회단체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토방위 및 국위선양을 위한 국책사업의 지

역대표 역할을 담당 수행하였으며 또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솔선 헌신하는 등 평생 사(私)를 버리고 살기 좋은 양양건설에 심혈을 기울이신 명사였다. 다음과 같은 상훈사항을 보아도 공의 행적을 짐작케 한다.[6·25중군기장, 대통령 방위포장, 보통상이기장, 공비토벌기장]

- **고연재(高淵在)(1922~1999년)** 관향은 제주이며 호는 설송(雪松)이고 손양면 하양혈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를 거쳐 강원도립춘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상평국민학교 훈도를 시작, 8·15광복을 맞아 월남하여 인구국민학교에 근무하다 양양이 수복되니 귀향하여 손양면장을 지내면서 전후복구(戰後復舊) 및 사라져가는 문화의 발굴 부흥에 힘썼으며 이어 오호·천진·영랑국민학교장을 거쳐 속초교육청 초대교육장에 취임하여 수복지구교육재건에 전념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며 지역국회의원인 김종호를 특히 후원하니 지역건설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강원도교육위원회 초대 의장을 역임하였다. 손양면 출신 인물을 규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설송회(雪松會)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었다.
- **이홍우(李洪雨)(1933~1999년)** 관향은 경주이며 현남면 입암리 태생이다. 강릉농공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신홍대 신문방송학과 2년을 중퇴 후 68년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인제군과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서 3여 년간 근무 외에는 20여 년을 양양군에서 근무하였다 축산분야에 특기를 갖고 있어 가축사양관리지도와 교육으로 축산발전에 기여했으며, 현남면 지소장으로 오래 근무하며 1972년 조생통일벼 시범단지를 설치하여 쌀 증산의 기틀과 기술보급에 기여한 공이 크다.
- **김태선(金泰善)(1909~2000년)** 관향은 김해이며 서면 수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릉농업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8·15광복 후 북한공산치하에서 양양초급중학교 음악과교사를 역임할 때 ‘양양팔경가’를 작곡하여 산자수려한 양양의 정서를 노래하게 함으로써 향토의 긍지를 드높이게 하였으며 6·25한국전쟁 시 월남하였다가 행정수복 후 귀향하여 1953~1954년 양양초등학교 교장, 1955~1956년 7월까지 양양면장을 역임하면서 전후(戰後) 지방행정의 기반을 확립시킨 인물로서 사망 직전까지 강릉농공고(江陵農工高)의 동창회장의 자리에 있었다.

선생의 묘소는 서면 수리에 있다. 선생께서 작곡하고 직접 가르치신 ‘양양팔경가’ (최용대 작사)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람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뒷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절 : 놀기 좋고 물색(物色)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람은 팔경이로다
남으론 하조대 북으론 운봉산
청간정을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 이형섭(李衡燮)(1916~2001년) 관향은 전주이며 자는 금강산인혜(金剛山人惠)이고 호는 추강(秋岡)이다. 손양면 수여리 태생으로 양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전초대작가, 국전심사위원장, 경남 부산시문화위원, 동명서화원장(東明書畫院長)역임하였다. 증정 화휘호(畫揮毫)로는 미국의 존슨 포드, 서독의 리비케 등 여러 대통령, 중앙청, 청와대, 부산시박물관, 동아대 등에 기증하여 소장하고 있다. 백두산천지 천호(千號) 백여점 해외전시 등 동양화(東洋畵)로서 한국의 산수를 널리 홍보한 화백이었다.
- 이주행(李周行)(1918~2001년) 관향은 함평이며 호는 송계(松溪)이고 현북면 장리 태생으로 초명(初名)은 교의(敎義)로서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서면 수상리로 이주 서면 부면장을 역임하고 양양향교 장의(掌議)와 서면 유도회지회장(儒道會支會長)을 지냈다, 1970년 초에 양양군으로부터 하천부지를 불하 받아 10,000여평을 농경지로 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농지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곧은 성품으로 모범이 되는 일을 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았으며 함평이씨 종친회장을 수행하면서 지대한 업적을 남겨 종친회에서도 추앙을 받은 인물이다.

- **김남호(金南虎)(1927~2001년)** 관향은 강릉이며 양양읍 화일리 태생이다. 청년시절 경찰에 투신하여 지역사회 치안확보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고 그 후 퇴직하여 양양군변영회장, 양양문화원장, 양양군의회 제1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장까지도 역임했다.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부장직도 성실히 수행하여 실로 지역사회에서 의전,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온 정열을 쏟은 인재로서 높이 추앙받고 있다 하겠다.
- **박세각(朴世珪)(1926~2002년)** 관향은 밀양이며 현북면 기사문리 태생이다. 인구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동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국광복과 동시에 귀국하여 1950년 10월 대한청년단원으로 육군 유격부대에 입대하여 1개월간에 군사훈련을 받고 육군 수도사단G-2 첩보대에 배속된 후 동첩보대의 북파 공작원 대원으로 2년간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 정선 임계 고성 등의 적 후방을 드나들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2년 12월 재대하여 속초시 국민회의 초대 대의원을 역임 하였으며, 강현면 주청리로 이주하여 1976년부터 낙산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양양군변영회장을(2대 6년)하는 동안 도.농 통합 반대 성사 등 많은 일을 하였다. 2002년에는 양양군민문화상(사회부문) 수상하기도하였다.
- **심명근(沈明根)(1933~2002년)** 관향은 청송이며 강현면 중북리 태생이다. 양양고등학교출신으로서 뜻한 바 있어 공직에 투신하여 강현면 서기로 재직 중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하여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강현면 부면장(1981년 4월 1일~1987년 6월 3일), 서면면장(1987년 6월 4일~1988년 7월 14일), 현남면장(1988년 7월 15일~1990년 8월 6일), 현북면장(1990년 8월 7일~1992년 10월 11일)을 끝으로 32개 성상의 공직을 마치고 귀농하여 독서를 취미로 불교를 심봉하며 백인근면봉사를 신조로 하고 일일지인이면 백일지우라고 하는 신념으로 인내력이 투철하고 이해성이 다분하여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정확을 기하여주위에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또 양양문화원 이사(1994년 7월~2002년 4월)로 활동하였다.
- **장명호(張明鎬)(1942~2002년)** 관향은 인동이며 현남면 남애리 태생이다. 어업에 종사하며 양양군구산협동조합 대의원 이사를 거쳐 2001년~2002년까지 수협장을 지냈다.

- 이춘재(李春在)(1927~2003년) 관향은 전주이며 함경남도 함흥 태생이다. 소시에는 함흥에서 수학하고 8·15광복 후 단신 남하하여 서북청년회에 가입 활동 중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신방과를 수학하고 1954년 양양에 정착하여 속초방송국 기자에



1985년에 받은 대통령표창장

이어 서울신문사 양양 주재 기자 겸 양양지국장을 역임하면서 양양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며, 불교신자로서 불우한 고아 30여 명을 양육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학까지 교육시킴은 물론 전원 성가[혼인시켜 가정을 꾸림]시킨 매우 자애로운 인물로서 특히 5공화국시절 국가재건사업 및 새마을 운동 홍보에 열을 가하는 등 사회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므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문공부장관 등 수많은 표창과 감사장을 받았으며, 친화적 사회성이 좋아 만인이 추앙하는 인물이었다.

- 이상돈(李相敦)(1935~2003년)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강선리 태생이다. 1955년 속초고등학교를 제1회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이다. 군 복무 3년을 마치고 양양군 지방행정공무원(1963~1971년)으로 9년 동안 근무하였다가 사임하고 가사에 종사하였다. 동민들의 추대와 권유로 이장직을 담당하고 사계성상을 공평무사하게 리 사무를 처리하여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 사업에 충실히 그 사명을 다하여 주민들에 칭송을 많이 받았다. 6·25한국전쟁 호국지사 유족회 중앙위원을 역임하고 천주교 신자로 물치공소 회장으로 다년간 열심히 봉사도 하였다. 1977년 2월부터 1979년 2월까지 강현농협 감사를 성실히 하여 농협 발전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양양군 의회 제1대 의원으로(1991~1995년) 당선되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원만히 하여 위원장 1회(제20회 임시회) 간사 3회(제9회, 제14회, 제18회) 군정질문 3회 9건 등 의원 활동을 성실히 소임을 다하였다.

- 김종순(金鍾淳)(1916~2003년) 관향은 김해이며 강현면 상북리 태생이다. 강현공립양잠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투신하여 강현면 서기로 17년간 근무하면서 능수능대한 수완과 역량으로서 대민 봉사에 철저하여 두터운 신뢰는 물론 만민의 칭송을

받았다. 강현면 제10대 면장(1969년 6월 1일~1974년 12월 17일)으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정책과업 수행에 실천궁행하여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치는 새마을운동에도 선구적인 역할로서 지대한 공을 수립 하였으므로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이고 굴지의 행정가로서 특히 면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한 인물이었다.

- 김중만(金鍾萬)(1911~2003년) 관향은 김해이며 서면 수리 태생이다. 춘천농업전문학교 5회 졸업생으로 슬하에 장남 용수(鏞洙)와 2남 3녀를 두었으며 양양군, 통천군 은행지점장, 농협중앙회 양양지점장, 양양군자문위원, 양양군수리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양양군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이 있었으며 퇴임 후에는 향리에서 서예와 독서를 하면서 수리 마을의 현대화에 기여한 바 그 자취가 지대하며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이다.
- 최선제(崔善濟)(1922~2003년) 관향은 강릉이며 현북면 도리 태생이다. 어려서는 신동이라 불릴 만치 명석하였으며 이웃에 있던 봉암서당(鳳巖書堂)에서 다년간 한문학만을 수학하니 모든 경서(經書)를 탐독한 유능한 한학자이자 유학자(儒學者)였다. 양양향교의 장의를 거치고 유림에서 창건한 명륜중학교(明倫中學校)의 창립 시부터 폐교 때까지 학사(學事) 전반을 담당하여 충실히 학교를 경영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십일회(十逸會) 회원으로 한시문화의 계승 발전에 일조하면서 많은 시문과 서예작품을 남겼다.
- 김남해(金南夏)(1923~2004년) 관향은 강릉이며 양양읍 화일리 태생이다. 투철한 자유수호(반공) 정신으로 6·25한국전쟁 중 퇴각하던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앞장서 시켜 수백정의 소총을 압수한 공적으로 당시 제1군단장으로부터 명예소위로 임관된 바 있겠고 그 후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우리 고장은 새마을운동 선구군(先驅郡)으로 널리 소개받게 된다. 이때 화일리에서는 지역여건에 걸 맞는 한우단지를 조성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바로 그 주인공인 새마을지도자로 맹활약하여 한때 한우가 215마리, 집집마다 4마리(76년 6월 현재)로 실로 풍요로운 마을로 변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73년 10월 8일 새마을훈장 석류장을 받았고 양양군축산협동조합 창설하여 초대 조합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인물이다.
- 이시행(李時行)(1919~2004년) 관향은 함평이며 호는 화정(花庭)이고 속초시 도문

동에서 출생이다. 대포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만주(滿洲)로 이주 만주소학교를 졸업한 후 1년간 교편을 잡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20세 청년 공은 일본군의 한중일 3개 국어 통역관으로 북경(北京)에 파견하여 2년간 전쟁을 체험했다. 다시 상해(上海)에 있는 일본 재벌회사 삼정계열사(三井系列社)인 중흥공사(中興公司)에 일등통역관으로 취직했다. 8·15광복 후 귀향하여 영랑학교 교감, 대포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6·25한국전쟁 중 경북 영일군 송라국민학교 촉탁교사로 근무하다. 휴전 후 다시 귀향하여 양양경찰서의 전신인 양양치안대 사찰주임으로 활약하였다. 1954년 민정이양으로 공직을 정리하고 손양면 송현리에 주거지를 옮기고 농사를 하면서 가평수리조합 대표 손양면 수여리 이준재(李俊在), 위원 송현리 이광재(李光在), 가평리 함해조(咸海祚) 신재필(辛在弼)과 같이 수리사업에 충무로 활약하여 손양면 동면평과 동면후평[밭밭들, 가평들]의 수리안전화에 일역했다. 이어 손양면 도화리로 주거지를 정착한 도원장(桃源莊)에서 한문서당을 개설하고 함평이씨(咸平李氏), 강릉김씨(江陵金氏), 강릉최씨(江陵崔氏) 족보와 양양향교지(襄陽鄉校誌) 편집에 일역했으며, 양양문화원 개설 한시교실에서 양양음사(襄陽吟社) 초대회장으로서 한시를 교수함으로써 우리민족 고유전통문화인 한시의 맥을 잇고 부흥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2004년 양양군민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750년 7월(조선조 영조 26년 경오)에 양양 강릉 양양의 문인의 조직으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경낙회(鏡洛會)의 기념비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을 담당[추진위원 : 이종우(李鍾禹), 최익규(崔翼圭), 이종욱(李鍾旭), 고석우(高錫佑)] 2003년 3월에 낙산도립공원내에 수립하여 영원히 양강의 문물과 유풍을 유전하는데 노력하였다.

- 추의엽(秋義燁)(1937~2004년) 관향은 추계이며 강현면 둔전리 태생이다. 양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실부모한 공은 영농에만 착업 근면성실로서 자수성가한 노력가이다. 양양읍 청곡리에서 10여 년간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하고 열정으로 헌신하여 표창도 많이 받았다. 또한 양주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되어 농협 발전과 조합원 소득증대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이준택(李濬澤)(1915~2005년)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사암(史岩)이고 손양면 수여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 경성사범학교, 일본대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고성 장전,

양양 오호국민학교 훈도로서 일제의 내선일체 황국신민화(內鮮一體 皇國臣民化)의 교육정책에 반기하여 우리 민족교육과 국어교육에 특별히 힘썼다. 감시와 갈등으로 교단을 지키지 못하고 퇴직하여 멀리 경남지방에 은거 중 재기하는 심정으로 김해군 내무과장 부산시 사회과장을 역임하면서 위민행정, 국토개발행정의 수완을 발휘하여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주민의 칭송이 자자했다. 6·25한국전쟁 후 행정수복되자 귀향하여 영남지방에서 쌓은 행정능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향토발전에 기여코자 국회로 진출하려하였으나 당시 자유당시절 관권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주민의 정신윤리계도에 힘쓴 인물이다.

- 김주악(金周岳)(1918~2005년) 관향은 경주이며 손양면 간리 태생이다. 청년시절 초등교육(현성간이학교)에 봉직한 바 있고, 그 후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발탁되어 오랜 기간 실무를 몸소 바르게 일한 점 인정받아 손양면장(7년간)으로 임명되어 온 심혈을 경주하여 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다. 당시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또 다른 면모로 성실히 임기를 마치게 되었고 양양군노인회장직을 제4대(7·8·9·10)를 연임하는 동안 노인회관 3층 증축과 노인 게이트볼 팀을 조직, 점진적으로 군내 확산의 기초가 되게 하였다. 그밖에도 양양군농협과 재건국민운동촉진회(손양면)에서도 활동한 바 있었기에 실로 한평생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 이주남(李柱南)(1937~2005년) 관향은 전주이며 손양면 수여리 태생이다. 양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1군사령부에서 군복무를 필하고 강원도지방공무원에 채용되어 강원도청, 대관령농업시험소, 양양군청 행정직을 거쳐 서면장 현남면장 손양면장을 역임하였다.
- 김학춘(金學春)(1935~2006년)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침교리 태생이다. 명륜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양양군행정자문위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위원, 양양군향토지증보조사위원, 범국민 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강원도대의원,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청소년선도위원, 속초경찰서방법자문위원,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 또한 일심건설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하게 헌신한바 있다.
- 이상현(李相鉉)(1935~2007년) 관향은 전주이며 현남면 동산리 태생이다. 서울 휘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8세에 양양군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1980년부터 1993년까지 현 북면과 현남면 부면장으로 재직하다 1994년 7월 19일부터 1996년 10월 23일까지 제 22대 현남면장으로 마지막 공직을 고향을 위해 일하였다. 재직당시 내무부장관의 우수공무원 표창과 퇴직시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퇴직후에는 양양군행정동우회 부회장과 전주이씨종친회 양양군 현남면 분회장으로 지인들과 교류하며 지냈었다.

- 김태환(金台煥)(1925~2007년) 관향은 경주이며 강현면 태생이다. 경성공업전수 학교를 졸업한 후 강현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8·15광복을 맞게 되는데 이때 큰 뜻을 품고 교직에 몸담게 된다. 주로 본군 관내에서 후학양성에 온갖 정열을 불태우다가 6·25한국전쟁 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1954년 복직하여 교사,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1990년 8월 31일 양양국민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한다. 그 동안 근무한 학교는 양양·조산·상평·손양·인구·한남·현성이며 한때 잠간 속초시 청호학교에 근무한 바 있다. 상훈관계로는 6·25한국전쟁 참전유공으로 무공화랑훈장을 받고 교직에서는 연공상 등 많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 김남필(金南泌)(1933~2007년) 관향은 강릉이며 강현면 정암리 태생이다. 강현중 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 근면 성실하여 유족한 생활로서 일향에서 존경을 받았다. 이장직을 수년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마을발전에 기여한바 크며, 사회정화추진 위원회강현면위원장(1984~1987년), 바르게살기운동강현면회장(1989~1998년)을 역임하면서 평소에 송조존유(崇祖尊儒) 사상이 많아 양양향교에 입적하여 장의, 의전으로 많은 일을 하다 전교로 등정한 인물이다.
- 이면수(李冕洙)(1919~2008년) 관향은 전주이며 호는 간송(澗松)이고 손양면 수여리 태생이다. 양양 흥덕택 종손으로 양양보통학교, 일본제국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제 말기 금융기관에 종사했다. 8·15광복과 동시 전 재산과 대대로 이어오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가옥, 선조를 모시던 사당, 7대조의 효자정려문까지 모두 몰수당하니 몸 둘 곳조차 없어 1946년 여름날밤 수산항에서 목선을 이용하여 월남하던 중 당시 세기에 드문 사라호 태풍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소생하여 강릉에 유착(流着) 환향의 꿈만을 달래다 조상의 유물이 전부 탄화된 양양에 1953년 수복과 동시 귀향하여 몰수당한 토지만을 수습하고 전화복구에 일부 재산을 헌납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

손양면장을 거쳐 양양군농업협동조합장을 역임하면서 금융계는 물론 양양의 재건에 온 정성을 다했으며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의 기치아래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사업 시 500여 평의 문전옥답을 희사하고 수여리 마을회관과 마을창고 건설을 위해 250여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주이씨 완풍대군파의 후예로서 송조돈종과 대동단결을 꾀하고 종사에 적극 헌신하였으므로 공을 기리는 영송비(永頌碑)가 양양읍 기리 179번지 언덕길가에 1997년 9월 15일 제막되어 지나는 길손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다.

- 김문달(金文達)(1923~2008년) 관향은 전주이며 강현면 간곡리 태생이다. 대포공업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4월 일본군에 징병되었다. 조국 광복으로 1946년 귀국하였으며 월남하여 흥천군청에서 서기로 근무하다가 6·25한국전쟁으로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1955년에 귀향하여 양양군청 서기로 근무하다 공보실장 강현면장(1963년 8월 31일~1964년 4월 30일)으로 면정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 후 양구군청을 거쳐 1971년 1월 26일 화천군 공보실장으로 재직 중 1973년 4월 6일 퇴직하였다.
- 조진환(趙振煥)(1943~2008년) 관향은 한양이며 현남면 동산리 태생이다.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양양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직하고 친화력이 있어 동료들과 가까이 지냈다. 1995년 5월 8일부터 1998년 11월 30일까지는 현북면장 1998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는 양양읍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퇴직 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 박용길(朴隆吉)(1945~2008년) 관향은 춘천이며 양양읍 남문리 태생이다. 양양초등학교 양양고등학교 졸업하고 투철한 애향정신의 소유자로서 청년시절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양양청년회의소(JC)회장을 시작으로 민주평통양양군협의회장, 군체육회수석부회장, 현산장학회상임이사로 활동하였고 지역사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강원도의회 제6·7대 의원으로 당선, 관광건설분과위원장, 부의장직도 역임하였으며 생활체육양양군협의회장, 양양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가업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홍양제재소를 운영 관리한 바도 있다.
- 정연수(鄭然秀) 일명 정성각(鄭成珪)(1910~2008년) 관향은 연일이며 호는 경암(敬

庵)이고 현남면 죽정자리 태생이다. 인구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일생경로를 쓴 경암집편(敬庵集編) 머리말에는 “오직 우리들은 범인으로써 학(學)이 위본(爲本)이라 배우고 배움으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행(行)하게 되니 또한 기쁘지 않으리오. 그러하나 배우고 행하지 못하면 실로 가석(可惜)함이니라”하였다. 1940년 현남면 서기로 임명되어 재직하다 6·25한국전쟁으로 자동 퇴직하였으며 목수기술을 배워 6·25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인구초등학교 교실 3실을 건축하면서 창문틀을 무보수로 제작하는데 봉사하였고 현남중학교 설립과 교사 신축에도 공헌하였다. 또한 현남면의 명승지인 죽도정(竹島亭)을 1965년 건축할 당시 무보수로 참여하였으며 죽도정 현판을 직접제작 서필하였으며 많은 한시를 남겨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게 하였다.

- 심동진(沈東振)(1946~2008년) 관향은 청송이며 강현면 중북리 태생이다. 군 복무를 마친후 농사일을 하면서 중북리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10여 년을 하였고 강현 농업협동조합 감사로서 본분의 책임을 완수하였고 선진농업에 앞장서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의 기수로 초석을 다져왔다. 또한 강현면농촌지도자 회장 5년 동안 농촌지도자회 발전과 회원들의 소득 증대에 헌신한바 있겠다.
- 김은순(金銀順)(1946~2006년) 관향은 김해이며 속초시 태생으로 박순원의 처다. 오색1, 2리 새마을 부녀회장을 시작으로 양양군새마을부녀회 부회장, 농촌지도자 부회장, 생활개선회장, 전통음식모임회장을 역임하면서「오색옹기장식품」인 현재의 오색전통장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평생 연구, 개발, 보급에 진력해 왔다. 국제적인 봉사단체인 해송라이온스 제1대~제3대 회장도 하였으며 전통 문화예술분야에도 전력하여 양양문화원 한가람 풍물패 회장을 하면서 오색초등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사물놀이 지도에 크게 공헌하였다. 수상경력으로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장, 강원도지사 표창 등이 있다. 특히 전통장(傳統醬) 품평회에서 최우수상(농업진흥청)과 MBC 자랑스런 시민대상도 수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이유화(李由和)(1932~2007년) 관향은 전주이며 양양읍 서문리 태생이다. 항일 애국정신이 투철한 가정에서 성장한 여사는 사회진출의 첫발을 교육계로 뜻을 두어 초·등교단에서 수년간 봉직하였다. 그 후 뜻을 같이한 한용한 선생과 결혼함으로 교단에서 물러나 남편 내조와 자녀 성가 이후 사회봉사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17년간

한결같이 음양으로 봉사 헌신하였다. 그중에도 양양읍 5일 장날마다 장수식당을 무료로 운영 뜻을 같이한 분들과 더불어 헌신적으로 행한 실적이 약 175,00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게 밑반찬을 마련하여 15회에 걸쳐 7,500여 명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격려하였다. 신성한 기독교인으로 장로직분에 걸맞게 선교활동, 봉사활동에도 큰 업적을 남겼으므로 실로 타에 귀감이 된다하겠다. 각계로부터 받은 포상으로는 여성부장관,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관계 기관단체의 표창이 수십 차례에 달한다. 특히 양양군민문화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하여 진정한 사회봉사에 일생을 바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 **한기종(韓基鍾)(1926~1951년)** 관향은 청주이며 이명(異名)은 서원수무(西原秀武)로서 현북면 중광정리 태생이다. 현북보통학교를 거쳐 1939년 인구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경성 광신중학교에 진학 1942년 3학년에 재학 중 학생의 몸으로 ‘일제에 반대하고 조선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소위 일제의 ‘보안법 위반’의 명목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4년간의 연도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8·15 광복을 맞아 출소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이듬해인 1946년 10월에 급히 월남하여 ‘조선민주청년통일전선준비위원회’를 결성[1947. 3.30. 오후 1시 종로통 영보빌딩 3층]하고 부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였다.[자유신문 1947년 4월 10일자 신문 참조]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의 보좌관이 되어 김구 선생을 수행하여 평양까지 다녀오면서 조국통일성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1950년 10월 1일 국군 선발대와 함께 38선을 넘어 기사문리로 들어와 현북면 치안유지를 위하여 중광정리에서 치안대를 조직 활동하였으며, 1951년 1·4 후퇴 당시는 현남면, 현북면, 손양면에 이르기까지의 북한군 병력사항을 파악하여 아군 작전참모에 알리는 첩보활동을 전개하여 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고문후유증으로 아깝게 1951년 3월 생을 마쳤다.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전란 기였으므로 정부에서는 한기종이 사망사실을 모르고 1952년 3월 요직에 기용코자 이승만 대통령의 명으로 준장교 2명이 의복까지 마련하여 데리러 왔었으나 안타깝게도 현북면 하광정리 38° 선상에 위치한 서향관에 모셔진 그의 묘소만을 참배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2) 관노(官奴)

- 동구리(同仇里) 1460년대 양양의 관노(官奴)였다. 조선 세조 12년(1466년)에 세조 대왕(世祖大王)은 정희왕후(貞熹王后), 세자와 같이 낙산사 법당에 향폐(香幣)를 드리는 불사를 행하고 동년 윤 3월 14일 장막(帳幕)안 어전(御前)에서 개최한 농가경창대회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잘 불러 악공(樂工)의 예(例)로 어가를 따르게 하고 유의(襦衣)를 한 벌 내려주니 일약 나라의 소리꾼으로 등용되었다.(세조실록) 현재 양양문화원에서는 2001년부터 ‘동구리 농가 경연대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전통농요를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 원손(元孫) 중종 28년 계사(1533년) 양양의 관노 원손이 승려 조희(祖熙)와 사인〔(土人) :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와 불탱(佛幀)을 만들어 가지고 부상대고〔(富商大賈) : 자본이 없는 상인〕와 여염〔(閭閻) : 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드나들며 민중을 속이면서 동궁〔(東宮) : 왕세자의 궁궐〕에서 나온 것이라 사칭하다가 의금부에 잡혀 추문과 동시 벌을 받았다.(중종실록)

집필 : 이종우, 이재풍, 이상범, 추종삼, 이상규, 김준영

참고문헌

- 경주이씨증앙화수회, 보학총람, 장원출판사, 1998
김종극, 양양의 열전, 강릉문왕출판사, 1982
민석홍, 서양사 개론, 삼영사, 1994
양양군, 양주지, 강원일보 출판사, 1990
양양군, 통계년보, 양양인쇄사, 2007
양양문화원, 남궁 익의 계몽과 민족교육, 대양출판사, 2000
양양문화원, 향토지, 대한공룡사, 1976
염남섭, 한국의 족보, 중앙자료개발원, 1992
이이화, 놀이와 습습의 사회사, 2001
이종욱, 민족인가 국가인가, 소나무, 2006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이흥식 편저, 국사대전, 서울인쇄사, 1976
김익달 편집, 대백과사전, 1958년초판 1962년 수정판
신동국여지승람, 1499
여지도서, 1757
양주읍지, 1822
관동지, 1826
관동읍지, 1871
강원도양양군읍지, 1899
강원도지, 1940
양양향교지, 대보사, 1999
전주이씨족보외 각 씨족족보
양양문화원, 현산문화, 1989~
양양군 발행, 사단법인강원향토문화연구회 편저, 양양역사자료집, 2003